

공동서신의 메시지

조동호 교수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Main Messages of General Epistles

Dong-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05, 2009

258-15 Umsary Umsamyun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10)9793-9697, <http://kccs.info>

머리말

본서 『공동서신의 핵심 메시지』는 시중에 내놓기 위해서 마음먹고 저술한 신학서적이거나 연구저서가 아니며, 신학대학 ‘공동서신’ 수업을 위해서 꾸며진 간략한 교재일 뿐이다. 따라서 각주나 참고서적 목록을 따로 두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공동서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되는 우주적 구원에 이르는 길, 이생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의 설립과 유지, 행함이 따르는 믿음, 사도전승의 해석과 보존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글이다. 우리는 이 서신들을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정황들을 살펴보고,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가를 배우며, 그 속에서 오늘의 교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배우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저자와 기록연대, 집필동기와 장소, 수신자와 수신자의 형편 등의 역사·비평적인 연구들을 간략하게라도 살펴 보아야 할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 곧 사도전승이 당대의 교회정황에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었는가를 살펴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의 말씀을 우리가 당면한 정황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할 것이며, 그간에 연구되어진 제반 성서비평방법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살펴서 서신들의 핵심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할 것이며, 알아낸 그 핵심메시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에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배워야 할 것이다.

본 교재에는 1996년 후반기 대전극동방송 「생명의 말씀」 프로그램을 위해서 작성했던 공동서신들의 간략한 소개와 2004년 전반기에 교회에서 신약성서 각권에 대한 핵심메시지를 설교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공동서신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금치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2005년 9월 1일

황산별 연구실에서 조동호

· 4 · 공동서신의 메시지

차례

머리말	3
차례	5
총론	7

히브리서/11

1. 히브리서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	11
2. 히브리서 집필 배경과 동기	12
3. 히브리서의 장르	13
4. 히브리서의 문학적 구조	14
5. 히브리서의 신학	19
6. [설교]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24
7. [논문]히브리서의 유대교 이해에 관한 고찰	31

야고보서/85

1. 야고보서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	85
2. 야고보서 집필 배경과 동기	86
3. 야고보서의 장르	87
4. 야고보서의 문학적 구조	88
5. 야고보서의 신학	89
6. [설교]행함이 없는 믿음	93

베드로전서/101

1. 베드로전서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	101
2. 베드로전서 집필 배경과 동기	102
3. 베드로전서의 장르	102
4. 베드로전서의 문학적 구조	103
5. 베드로전서의 신학	105
6. [설교]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108

베드로후서/117

1. 베드로후서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	117
2. 베드로후서 집필 배경과 동기	117

· 6 · 공동서신의 메시지

3. 베드로후서의 장르	118
4. 베드로후서의 문학적 구조	118
5. 베드로후서의 신학	120
6. [설교]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122

요한서신/129

1. 요한서신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	129
2. 요한서신 집필 배경과 동기	130
3. 요한서신의 장르	130
4. 요한서신의 문학적 구조	131
5. 요한일서의 신학	132
6. [설교]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	135
7. [설교]사랑의 한계	142
8. [설교]선택 받은 자를 본받으라	147

유다서/155

1. 유다서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	155
2. 유다서 집필 배경과 동기	155
3. 유다서의 장르	155
4. 유다서의 문학적 구조	155
5. 유다서의 신학	157
6. [설교]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159

참고서적(Bibliography)/166

부록/167

1. 타르타로스	167
2.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	170
3. 외경과 위경이란?	179
4. 시락의 교회서	180
5. 모세승천기	181
6. 에녹서	182
7.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1(빛과 어둠의 세계)	185
8.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2(감춰졌던 세계)	191

총론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는 명칭은 바울의 편지들과 같이 독자가 어느 특정 교회나 개인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어느 독자나 또는 어느 교회나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각 서신들의 수신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히브리서 - 독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

야고보서 -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

베드로전서 -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에 흠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베드로후서 -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요한일서 - “너희.”

요한이서 -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요한삼서 -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유다서 -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여기서 보듯이 요한 삼서만이 특정한 독자에게 쓴 순수한 편지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교회, 모든 교회, 모든 교인이 공동으로 읽을 수 있는 공개편지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들 편지들을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공동서신’의 명칭들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그러나 바울서신들은 편지를 받는 교회나 개인의 이름을 따랐다. 히브리서가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호칭된 것은 아마도 히브리서가 바울서신의 하나라는 전승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동서신을 서두, 인사, 감사, 본문, 결미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바울서신과의 차이점을 잘 비교해 볼 수 있다.

· 8 · 공동서신의 메시지

1)서두

편지	발신자	수신자
바울서신	바울	교회나 개인
히브리서	없음	없음
야고보서	종(노예)인 야고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베드로전서	베드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에 흩어진 나그네
요한일서	우리	너희
요한이서	장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
요한삼서	장로	가이오
유다	종인 유다	모든 믿는 사람
베드로후서	종과 사도	모든 믿는 사람

2)인사

편지	인사
바울서신	은혜와 평강
히브리서	없음
야고보서	문안하노라
베드로전서	은혜와 평강
요한일서	없음
요한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요한삼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유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
베드로후서	은혜와 평강

3)감사

바울은 감사에서 주제를 언급하고 마지막 날의 하나님의 보상을 기원하는데 공동서신에서는 베드로 전서에서만 나타난다.

4) 본문

요한 이서와 요한 삼서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교리와 설교식 권면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적 언급이나 요구나 명령은 없다. 바울서신에서는 신학적 교리와 권면이 분리되는데, 공동서신에서는 교리와 권면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5) 결미

편지	인사
바울서신	마지막 축복과 사도나 동료들이 안부를 전한다.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에게 곧 가겠다는 계획을 밝힘
야고보서	형식적 끝마감이 없다.
베드로전서	송영과 동료들의 인사
요한일서	없음
요한이서	심방 계획과 안부
요한삼서	심방 계획과 안부
유다	송영이 있는데 마지막 인사는 없다.
베드로후서	그리스도에 대한 짧막한 찬양(3:18b)

신약성서의 책들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계시록을 제외한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은 그 순서가 크기순서로 되어 있다. 신약성서의 순서가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계시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레코로만 전기방식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신약성서의 책들 가운데 바울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된 글들이란 것이다. 따라서 공동서신은 그 정확한 기록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바울서신보다는 후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

바울서신 가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공관복음서처럼 그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공동서신 가운데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그런 케이스이다. 학자들은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자료로 사용하여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믿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다음의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동서신이 바울서신보다 늦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 10 · 공동서신의 메시지

첫째, 공동서신의 내용이 바울서신의 내용보다 훨씬 더 보편성을 띤다.

둘째, 공동서신 가운데는 베드로전서와 요한일서를 제외한 나머지 글들이 정경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다.

셋째, 바울서신에 등장하는 유대교와의 문제나 교리적인 논쟁들이 공동서신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들으로써 성장과 함께 찾아온 물리적인 박해, 이단들의 도전, 신행일치, 교회질서를 위한 조직정비, 윤리문제들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음을 본다.

넷째, 교회성장과 재림지연으로 인한 신학정립과 교회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공동서신들이 기록되던 시기에 교회들이 직면한 과제들이었다.

다섯째, 바울선교 초기에 나타났던 교회의 특수성이 공동서신에서는 보편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에 직면해서 히브리서는 논문으로 시작해서 설교로 발전하여 편지로 마치면서 독특한 기독교론 해석으로 믿음과 인내를 권면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순종의 믿음 즉 실천과 행함의 믿음을,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방탕한 영지주의 이단의 도전에 대하여 격분하고 공동체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한다. 요한 서신들도 교회 내의 이단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사랑과 진리로 교회를 지켜나갈 것을 가르친다. 요한일서가 사랑의 서신이라면, 요한이서는 사랑의 한계를 다룬 서신이며, 요한삼서는 목회자에 관한 문제를 다룬 서신이다.

히브리서

1. 히브리서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

히브리서의 저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다. 동방교회에서는 대다수가 바울이 저자라고 믿었고, P46사본에는 로마서 다음에 배치되었다. 220년경 북아프리카의 터툴리안은 바나바가 저자일 것으로 생각했다. 바나바는 히브리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성전의 예배의식에 대해서 잘 아는 레위인 출신이었다. 215년경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누가가 히브리서를 썼을 것으로 생각했다. 히브리서의 헬라어 용법이 사도행전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대 신학자 하르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저자라고 생각했다. 저자의 이름이 없는 것은 글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루터는 아볼로가 저자라고 생각했다. 아볼로는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 그는 구약성서에 박식했고, 언변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히브리서는 60년에서 90년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도 유대교와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유대교에로 복귀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들에게 단호한 어조로 기독교와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이다. 히브리서는 논문으로 시작해서 설교로 발전하고 있고 편지로 마치고 있다. 특히 히브리서는 선포와 교훈이 네 차례나 반복되고 있다.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실재어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다. 플라톤은 보이는 세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진 완전한 모습의 불완전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이 두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로 구분 지었다. 그리고 이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인들은 그림자의 세계에서 벗어나 실재의 세계로 옮겨가는 방법을 찾고 있었

다.

이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실재어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본 사상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천사나 모세나 또는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이며 완성자이며 중보자라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헬라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헬라인들이 찾던 실재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약속의 증거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2. 히브리서 집필 배경과 동기

히브리서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와 히브리서의 집필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히브리서 공동체가 직면했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배신과 배도와 배교의 위협이었다. 그들에게 불어 닥친 유혹과 시험과 위협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물리적인 박해였다. 박해로 인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12:12)이 될 만큼 건지기 힘든 것이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앎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히 10:2-36).

히브리서 공동체는 아직 “피 흘리는 데까지는 대항하지”(12:4, 13:7) 않았으나 “고난의 큰 싸움”을 이미 겪었고, 더 큰 어려움도 예견하고 있었다(12:3-13, 13:3).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비방을 받고

있고,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감옥에 투옥 되었고, 친인척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였으며, 고향을 등졌고, 나그네로 유리하였으며, 산업까지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하였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손은 풀리고 무릎은 떨게 되었으며, 크게 낙심하였다. 이런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그들을 배신과 배도와 배교로 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황에 처한 신앙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고난과 시험을 받고 죽으셨지만, 다 이기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존귀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며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영원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4:7)고 하였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들 앞에서 훼방과 능욕과 고문을 당하고, 감금되고, 배척당하여 방황하는 교우들을 맞아들이고, 감옥을 찾아가고, 이제는 손이 풀리고 무릎이 떨리는 위기를 당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서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을 상속받고, 하늘의 안식을 얻는 큰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였다.

모이기를 꺼려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배도하는 이들은 나중에 후회해도 다시 약속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므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참 약속을 믿고 환난을 견디라고 권면하였다.

3. 히브리서의 장르

히브리서의 문학적 성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주장되고 있다.

첫째는 편지라는 주장이다. 히브리서에 서론이 없는 것은 서론이 떨어져 나갔던지, 회람편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론이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또 당대에는 편지를 인편으로 부쳤기 때문에 배달부

· 14 · 공동서신의 메시지

가 구두로 인사를 대신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발송된 편지가 아니며 편지형태는 전적으로 문학적 표현양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실제로 13장 22-25절을 뺀 나머지 부분의 히브리서는 편지로 보기가 어렵다.

둘째는 13장 22-25절을 뺀 나머지 부분은 신학적 논증이라는 주장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나타난 신비를 일반적 상황에서 신학적으로 설명한 글이란 주장이다.

셋째는 설교라는 주장이다. 사실 성경은 그 내용이 역사적 내용이든 신학적 내용이든지간에 넓은 좁은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글들이기 때문에 설교적인 특성을 강하게 띠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히브리서가 논문으로 시작해서 설교로 발전하고 있고 편지로 마치고 있다는 점이다.

4. 히브리서의 문학적 구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생각한다. 히브리서에는 유대인의 의식법이 언급되고 있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제도와 많은 부분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곧 죄사함을 위한 희생물, 참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에 대한 모형이자 또한 상징이었다.

1)내용의 개요

보다 뛰어나신 분 1:1-7:28	보다 뛰어난 제도들 8:1-10:18	보다 뛰어난 생명 10:19-13:25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같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행하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1:1-2:4	• 더 좋은 언약과 • 더 좋은 성소 8:1-9:12	• 나아가자 믿음의 담력 : 10:19-39
구세주 예수 2:5-18		• 믿자 믿음의 모범 : 11:1-12:2
안식을 주시는 예수 3:1-4:13		• 인내하자 믿음의 인내 : 12:3-29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 4:14-5:10		• 사랑하자
경고들	• 더 좋은 희생물	

5:11-6:20	9:13-10:18	믿음의 사역 : 13:1-19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 7장		• 결어 : 10:19-13:25

2)내용의 특징

히브리서는 선포(케뤼그마)와 교훈(디다케)이 번갈아 나오는 독특한 설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서론 없이 바로 본문이 시작된다.

[선포1]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구주이신 예수(1:1-3:6).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형상으로써 위엄의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앉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1:2-3). 그분은 구약시대의 그 어떤 선지자나(1:1) 천사나(1:5-14) 모세보다도(3:1-6) 더 뛰어난 분이시다.

[교훈1]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던 때에 마음을 강박케 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같은 불순종을 본받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한다(3:7-4:13).

[선포2] 대제사장이신 예수(4:14-5:10).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5:6). 구약시대에 백성을 위해서 매년 속죄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보다 월등히 뛰어난 “큰 대제사장”이시다(4:14).

[교훈2] 이러한 대제사장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버리고, 성숙한 경지에까지 발전해야 한다(5:11-6:20).

[선포3] 다른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 예수(7:1-10:18).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던” 분이시다(9:12).

[교훈3] 그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제치고 “새롭고 산길”을 열어놓으셨으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10:19-39).

[선포4] 믿음의 선구자요 완성자이신 예수(11:1-39).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10:20)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일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가 나타나 행할 표적을 바랐고, 헬라인들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로 인도하여 들일 지식을 찾아 헤매며 그 지식을 찾게 해줄 지혜를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기로 간절히 바랐던 것은 영원한 안식처인 성소이며, 그곳에 인도해줄 새롭고 산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룰 실상이요 증거이다.

[교훈4]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과 인내로 모든 환란을 이기고 저들을 위해 예비된 본향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12:1-13:17).

마지막 축도와 인사(13:18-25)

3)히브리서의 내용분해

서문 1:1-4 서론

A. 1:5-4:16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와 구속의 우월성

a. 1:5-14 천사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

b. 2:1-4 경고와 권면

c. 2:5-18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이유

d. 3:1-4:13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a)3:1-6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모세보다 우월하다

b)3:7-11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c)3:12-4:11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순종할 것

d)4:12-13 순종하라는 권면

e. 4:14-16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

B. 5:1-10:25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최종적 희생

- a. 5:1-7:28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 a)5:1-10 대제사장의 자질
 - b)5:11-6:20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권면
 - ㉠5:11-6:3 그리스도 대제사장 직책의 참뜻을 알리는 말씀
 - ㉡6:4-8 두 번째 참회는 불가능하다는 경고
 - ㉢6:9-12 소망과 기업을 받으라는 격려
 - ㉣6:13-20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의 확실성
 - c)7:1-28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그리스도
 - ㉤7:1-3 멜기세덱 제사장의 의미
 - ㉥7:4-10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한 멜기세덱 제사장직
 - ㉦7:11-28 그리스도 대제사장 직분의 우월성
- b. 8:1-10:25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드리는 대제사장의 최종적 희생제사
 - a)8:1-6 서론: 천상의 장막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 b)8:7-13 성경: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비교
 - c)9:1-10:10 설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의 성취
 - ㉧9:1-10 지상의 장막과 옛 제사제도
 - ㉨9:11-14 짐승의 피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피
 - ㉩9:15-22 옛 언약과 새 언약
 - ㉪9:23-28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완전한 제사
 - ㉫10:1-10 많은 제사와 일회의 완전한 제사
 - d)10:11-18 결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 e)10:19-25 권면: 새롭고 산길을 굳게 잡으라
- C. 10:26-13:17 약속의 큰 상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라는 권면
 - a. 10:26-31 두 번째 속죄를 위한 제사가 없다는 경고
 - b. 10:32-39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라는 격려
 - c. 11:1-40 신앙의 영웅들
 - a)11:1 신앙의 본질
 - b)11:2-38 신앙의 영웅들
 - c)11:39-40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여 온전하게 되지 못

· 18 · 공동서신의 메시지

함

d. 12:1-3 완전한 예증이신 그리스도

e. 12:4-13 고난과 징계

f. 12:14-17 화평함과 거룩함의 필요성

g. 12:18-29 새 계약과 옛 계약의 비교

h. 13:1-17 기타 마지막 권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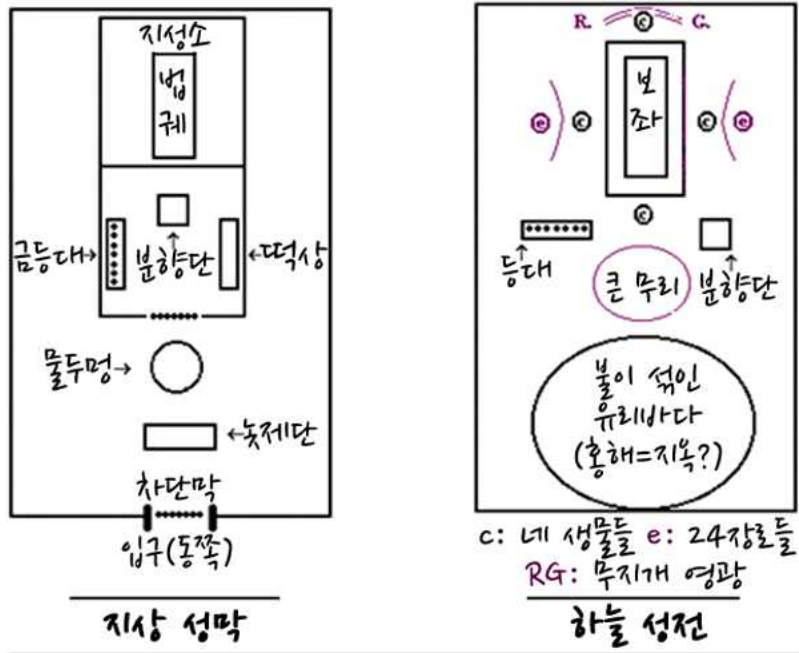
결론 13:18-25 축복과 인사

4)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제사제도의 비교

	옛 언약	새 언약
1. 대제사장의 자질	레위 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5:3; 7:27). 무식하고 미혹하고 언약에 싸여 있다(5:2-3).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7:28; 4:15).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늘위에 높이 계신 분(7:26).
2. 장막	손으로 지은 장막(9:24).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9:23).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 더 크고 온전한 장막(9:11). 하늘에 있는 성소(9:24). 하늘에 있는 실체(9:23).
3. 제물	염소와 송아지의 피(9:12,13; 10:4).	자기의 피(9:12).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심. 한 제물(10:14).
4. 성격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법에 따라(7:12).	자의로(10:9).
5. 횃수	해마다(9:25; 10:3). 매일(10:11).	단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9:14; 10:2,10; 9:12,25-26). 영원한 제사(10:11-12).
6. 효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지 못하고(10:4).	죄를 없이하고(9:26,28) 깨끗케 하고 거룩하게 한다. 영원히 온전하게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다(10:3).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2:10; 5:9; 7:28).	한다(10:14). 그리스도 자신이 온전한 분이시므로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10:24; 11:40; 12:23).
7. 기한	납아지고 쇠하는 것으로 새 것으로 개혁될 때까지(8:13; 9:10).	예수는 영원한 계시이므로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아니함(7:24). 영원한 제사(19:12).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9:26). 종말의 사건
8. 성취	옛 언약이 성취하지 못한 것임(9:18; 8:7,13).	새 언약의 중보(9:15).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고 영원한 기业的 약속을 얻게 하심(9:15).

5) 성막의 구조



5. 히브리서의 신학

1) 모형론(Typology)

영원한 천상의 세계와 일시적인 지상세계로 되어 있는 수직적 이

원론과 현세와 내세로 된 종말론적 이원론이 히브리서에 드러나 있다. 이 가운데 수직 또는 공간적 이원론은 참 이데아의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라는 플라톤 사상이 반영된 것이며, 히브리서에 나타난 신학사상의 핵심이다. 신약성서의 대표적인 해석인 모형론(또는 유형론, typology)이 여기서 나온다. 먼저 있는 것은 나중 있을 더 좋은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이며, 나중 있을 것은 먼저 있는 것의 원형이며 실체라는 것이다. 구약의 것들은 신약의 것들의 그림자요 모형이 되는 것이고, 신약의 것들은 구약의 것들의 원형이요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방법을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성서해석방법’이라 일컫는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8:5).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 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9:24).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10:1).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8:13).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9:11).

2)기독론(Christology)

히브리서 저자가 즐겨 사용한 그리스도의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이다(1:2,5; 4:14; 5:5,6; 7:3). 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은 신성과 선재성 그리고 우월성이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메시아 칭호인 '그리스도'를 9번, 사람의 칭호인 '예수'를 10번,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사용하였다. 이 호칭들의 특성은 예수님의 인성과 우월성이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명확하게 강조하였으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12:2)와 휘장 안에 앞서 가신 자(6:19)로 묘사하였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1:5).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2:17).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배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3:6).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4:14).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고(5:5).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7:28).

3) 큰 대 제사장(The Great High Priest)

히브리서의 또 다른 기독교론의 핵심 주제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 제사장직이다(5:6). 멜기세덱의 반차(order)는 영원하며(timeless), 왕이며(royal), 변치 않는다(changeless). 그러나 아론의 대를 잇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제도는 장차 나타날 더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으로써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큰 대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단 한번 드리심으로써 백성의

· 22 · 공동서신의 메시지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9:26), 백성들을 죄로부터 온전하게 구속하셨다(2:17).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2:17).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3:1).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이다(4:14).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4:15).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5:10).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6:20).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7:26).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7:27).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8: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9:11).

4)새 언약(New Covenant)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25).

여기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3-34절에서 “....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한 말씀에 근거를 둔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만들어진 새 언약에 적용시키고 있다. 히브리서 8장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개된 새 질서를 구약의 지나간 질서와 대조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옛 것이 아닌 참된 장막 가운데서 섬기신다. 왜냐하면, 옛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8:5).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8:6). 왜냐하면,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8:7). 이 말씀들은 결점 있는 옛 언약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과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8:8). 즉 하나님께서 옛 질서 아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찾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필요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8장 8-12절은 예레미야서 31장 31-34절을 인용하고 있다. 이 인용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새 언약 즉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가능하게 된 새 언약을 말하고 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8:13).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 24 · 공동서신의 메시지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9:15).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밋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12:24).

6.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19-25)

1998년 11월에 영국의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가 저술한 『제3의 길』이란 책이 우리말로 번역 출판된 이후로 ‘제3의 길’이란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앤소니 기든스는 영국 언론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의 사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든스는 토니 블레어가 주창하는 ‘제3의 길’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든스는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의 갱신』이란 책도 출간하였습니다.

『제3의 길』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이념을 뛰어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정치 사회적 전망을 제시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좌우를 포용한 제3의 길을 가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제3의 길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길 이 아니라, 이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뛰어넘는 새로운 중도좌파의 길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 가운데에도 앤소니 기든스처럼 『제3의 길』을 제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고린도서를 쓴 바울과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제3의 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2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의 말처럼 실제로 당대의 유대인들은 열심히 표적을 찾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던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메시아인가는 그가 행하는 하늘로부터 내린 표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메시아의 등장만이 유대인들은 이상국가(理想國家)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았던 이유는 그들이 이데아라 불렀던 참실재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해줄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표적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표적과 지식의 결합으로도 안 되고,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상국가를 세울 수 있고, 참 실재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제3의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수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다수의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인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이상국가로 인도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을 참실재의 세계로 인도할 하나님의 지혜란 것이며, 그것이 비록 멸망 받을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많은 종교나 철학이 있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요, 산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인들이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들의 실상이요, 헬라인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 길을 찾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철학의 지식을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는 참 길을

찾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바를 얻지 못하고, 찾던 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는 헬라인들이 보고자 했던 참 실재에로 나갈 수 있는 길이요,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기다렸던 메시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믿음은 명백합니다. 유대인들이 구했던 율법의 길도 아니요, 헬라인들이 찾았던 철학의 길도 아니란 것입니다. 인류에게 “새롭고 산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본 사상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천사나 모세나 또는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월등히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믿음의 선구자이시며 완성자이시며 중보자이시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은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들이 이뤄질 실상이요, 헬라인들이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뤄질 증거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새롭고 산길”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밝혀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60-90년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나서도 유대교와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또 동족의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유대교에로 복귀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우왕좌왕하는 자들에게 왜 그리스도께서 ‘제3의 길’인지, 바울의 표현처럼,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지, 왜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한 존재이신지, 그리고 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한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려고 하였습니다.

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7:25)고 하였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10:22)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12:2)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논문으로 시작해서 설교로 발전하고 있고, 편지로 마치고 있는 매우 독특한 글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선포와 교훈이 네 차례 반복되고 있는 매우 훌륭한 문체로 쓰인 글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는 비교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빈번한 비교는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복음과 율법의 비교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비교를 모형론 또는 유형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형론은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보고, 그 먼저 나타난 모세와 율법을 모형 또는 그림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놓았듯이, 먼저 나타난 것, 그래서 먼저 본 것은 나중에 나타날 좋은 일의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10:1). 그러므로 먼저 나타난 모세와 율법은 나중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인 나중 것, 즉 그리스도와 복음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대교는 실체인 기독교의 모형 또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실체가 바울에 의하면 이전 세대들의 사람들에게 감춰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1장에서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으로 소개하였고, 2장에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를 없이하시며, 백성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하시며,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며,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구세주로 소개하였습니다. 3-4장에서는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5장에서는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

를 굳게 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6장의 경고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떠나서 성숙함에 이르자고 하면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약속을 받아 이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7장에서는 뿔기세텍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8-10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유의 모형론을 들고 나오면서 예수님을 옛 언약보다 뛰어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옛 언약시대의 장막보다 더 뛰어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과 더 나은 제사의 큰 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길”이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끝까지 견디자, 믿음으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 소망 중에 인내로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장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축복의 반열에 든 신앙선배들을 일일이 열거하여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강조한 또 다른 내용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고, 12장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 10장 29절에서는 배교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였으며, 10장 32절에서는 이전에 큰 고난을 당하고도 잘 참고

이긴 것을 생각하라고 하였고, 또 13장 3절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배교직전에 놓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형론이라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대조효과가 뛰어난 방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대조효과란 다 쓰러져 가는 몇몇 초라한 집을 먼저 보여 주고 난 후에 정상적인 집을 보여주면, 잠재고객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 집을 훨씬 더 훌륭하게 평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한다든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는 일은 월등히 높은 위치에서 대조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키울 수 있고, 얻어지는 효과도 크지만, 그 반대로 등급이 낮은 위치에서 월등한 것과 대조를 하거나 비교를 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보디가드」란 영화의 후반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배우 케빈 코스트너 (Kevin Costner)가 가수 휘트니 휴스턴(Whitney Houston)의 경호원으로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열연한 대중가수 레이첼을 죽이려 한 사람 때문에 케빈 코스트너가 프랭크란 이름의 경호원으로 열연을 했는데요, 레이첼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레이첼의 언니였습니다. 레이첼의 언니도 동생처럼 음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동생이 유명해지면서 동생의 어린 아들을 돌보는 보모로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레이첼의 언니가 동생을 살해하려고 고용한 사람인데요, 정작 살해를 부탁한 언니는 그가 누군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부살인자는 레이첼의 경호원인 프랭크와 함께 대통령의 경호를 함께 맡았던 전직동료였습니다. 이 사람이 레이첼의 청부살인을 맡게 된 이유는 레이첼을 광적으로 좋아한 팬이었거나 돈이 궁해서가 아니라, 이전 동료였던 프랭크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프랭크가 맡았던 의뢰인을 죽임으로써 책임감이 워낙 강한 프랭크를 침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레이첼의 경호원 프랭크는 대통령이 암살되던 때에 비번이었고, 자신의 책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암살에 대한 죄책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경호원직을 그만둘 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레이첼과 그의 어린 아들이 암살위협에 떨게 된 것은 레이첼의 대중적인 인기를 자신의 처지에 비교하면서 남몰래 질투했던 언니의 빼놓아진 비교 때문이었으며, 책임감과 실력이 남달리 뛰어난 프랭크를 경쟁상대로 보았던 전직 대통령 경호원의 빼놓아진 비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영화는 경호원 프랭크가 온 몸으로 총탄을 맞으며 의뢰인의 목숨을 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빼놓아진 비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점과 일단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경호원의 사명감이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경호원 프랭크처럼 우리 인류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온몸을 던져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표절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단은 프랭크의 전직 동료처럼 예수님을 질투하여 인류를 보호하고 지키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몸을 던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죽어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게 하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하셨으며, 대중가수 레이첼처럼 그분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자들과 부부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등 뒤에 두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 우리들 뒤에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서가는 그분을 바라보며 좌로도 치우치지도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도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7. [논문]히브리서의 유대교 이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Hebrews' Understandings about Judaism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의 목적은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교를 이해한 방법과 해석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다른 점,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하는 유대교와 신약성서를 경전으로 하는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와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으로 알고, 그 차이점을 모르고 있어서 신약성서의 기독교가 구약성서의 기독교로 변질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현실에서 현대 기독교에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일은 신약성서 기독교회를 회복하는 일이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면,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신약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어야 한다. 신약성서가 구약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한 방법을 밝힘으로써 신약성서 기독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으면 하는 것이 본 논문을 쓰는 동기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대교인들이 구약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한 방법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또 어떻게 얼마나 다르게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약속의 땅,' '본향,' '예루살렘과 시온,' '안식,' '모쉬아크' 등에 대한 유대인들의 입장을 히브리서의 입장과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I. 총론

히브리서는 장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장과 3장에서 각각 천사보다(1장) 또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3장)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2장부터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형님과 오빠이신 예수님'(2장),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4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5장),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예수님’(6장),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님’(7장),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8장)을 소개하였으며, 계속해서 ‘구약예법과 성막’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9장),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10장), 그리고 ‘믿음의 실상과 증거이신 예수님’(11장)을 소개하였으며, ‘오름의 행진의 방향’과 ‘장차올 좋은 것’(11장)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12장), ‘영원히 한결같으신 예수님’(13:8),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13:12),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13:20)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1. ‘희망’에 관한 히브리서의 이해

이러한 예수님 소개의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과 바벨론유배 전후에 예언된 메시아와 신정국가 도래에 대한 오래 묵은 희망 때문이다. 유대교인들은 그 희망을 ‘하티크바’(Ha-Tikvah)라 부른다.¹⁾ 그리고 그 희망을 이를 불세출의 지도자, 제2의 모세를 ‘모쉬아크’(Moshiach)²⁾라 부른다. 그리고 그가 장차 예루살렘 시온성에 세울 신정국가를 ‘올람 하바(Olam Ha-Ba)’³⁾라 부른다. 유대교인들은 이 때 흩여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본향에 돌아오게 되고, 토라(Torah)⁴⁾와 성전중심의 유대교 예배가 재건되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안식을 얻게 된다고 믿는다.⁵⁾

히브리서는 이런 유대교인들의 숙원을 기독교의 독특한 희망으로

1) 조동호, “선민의 조건에 관해서”(http://kccs.pe.kr/jewishcal20.htm).

2) 조동호 역, “유대주의에서의 메시아사상”(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자료출처: http://www.jewfaq.org/moshiach.htm). 유대인들은 ‘메시아’란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모쉬아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인들의 메시아관을 왜곡시켰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의 메시아관이 기독교의 것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3) “유대주의에서의 메시아사상.”

4) 구약성서의 첫 다섯 권의 책들, 곧 모세오경을 말한다. 이 토라의 글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mitzvot)이 총 613개라고 믿고 있다.

5) “유대주의에서의 메시아사상.”

재해석하고 있다. 히브리서 이해의 핵심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실체와 그림자,’ 혹은 ‘원형과 모형’으로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다. 유대교인들이 바라는 ‘그 희망’의 내용들은 땅의 것이고, 유한한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고,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것이며, 기독교인들의 희망은 하늘의 것이고, 무한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고, 장차올 좋은 것들의 실체와 원형임을 밝힌다. 이 땅에는 우리가 찾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이 땅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바라볼 것인가, 유한한 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무한한 것을 추구할 것인가, 일시적인 것에 착념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착념할 것인가, 그림자와 모형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실체와 원형을 쫓을 것인가를 바르게 생각하고 선택할 것을 힘줘서 권면한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회복할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한다. 그 예로써 에서가 땅의 것,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의 상징인 팔죽한 그릇에 하늘의 것,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의 상징인 장자축복의 상속권을 포기한 후에 크게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던 점을 소개한다.

둘째는 장차 나타날 구원자 제2의 모세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모쉬아크’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써 마지막 때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게 될 자를 뜻한다. 그러나 모쉬아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救世主)가 아니고, 죄가 없으신 신적(神的) 존재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쉬아크가 다윗 왕의 후손인 위대한 정치 지도자일 것이고, 유대법에 정통하여 그것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며,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일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의 본보기를 따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위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위대한 군사 지도자일 것이고, 의로운 결정을 내릴 위대한 재판관일 것이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그는 인간일 것이고, 신적 혹은 반신적 존재나 초자연적 존재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다.⁶⁾

그러나 히브리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그분의 우월성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또는 아론계열의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7장에서는 예수님을 아론계열의 대제사장들과는 별다른 대제사장으로, 육신에 속한 연약하고 무익하며 폐지된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맹세로 된 대제사장으로, 그 직분이 영원히 보장되어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바벨론유배 전후에 예언자들이 메시아와 신정국가 도래를 예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와 뜻이 문자적인 가나안 땅, 문자적인 제2의 모세, 문자적인 유대왕국회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장차올 더 좋은 것, 영적이고 영원한 것,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저 하늘의 것,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시고, 다윗과 알렉산더보다 더 훌륭하시고, 아론계열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월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선지자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멜기세덱계열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하늘의 성막과 하늘의 왕국과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방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유대민족과 유대왕국의 경계를 뛰어넘는 세계적이고 우주적이며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으로 재해석한다.

2. ‘언약,’ ‘약속,’ ‘예언’에 관한 히브리서의 이해

유대교인들의 희망, ‘하티크바’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세 가지 단어들, ‘언약,’ ‘약속,’ ‘예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언약(covenant)’이란 말은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 시내산 언약’을 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유대교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토라’(torah)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 언약을 자기 민족의 판단잣대로 삼아 활동한 예언자들의 글이 예언서들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은 구약성서 39권의 핵심이자 이해의 중심이다.⁷⁾ 그러나 신약성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짐승의 피로 맺은 흠 있는 ‘옛 언약’으로 단정 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원하고 무흠한 ‘새 언약’을 소개한다.

‘약속’(promise)이란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을 말한다. 물론 성서에는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 말고도 다른 약속들이 많지만, 신구약성서이해의 중심을 차지하는 약속개념은 가나안 땅이다.⁸⁾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노예였고, 떠돌이였다는 것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노예와 떠돌이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안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⁹⁾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떠돌이와 유배의 삶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에 걸쳐서 지속되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한 맺힌 것이자, 안식의 상징이며, 문자적으로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시온에 제한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시온으로 오름’(ascension to Zion)은 지금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3분의 2정도가 그들이 ‘유배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국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신약성서도 ‘약속’의 개념을 자주 언급하였다. 구원의 내용으로 약속되어 지고, 그 약속의 보증금과 인감으로써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기업’(땅)¹¹⁾과 ‘후사’(상속자)¹²⁾만하더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이해하

7) 장일선, 『구약신학의 주제』(대한기독교서회, 1991), 253-319쪽; 『이스라엘 포로기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90); 『히브리 예언서 연구』(대한기독교서회, 1991), 55-62쪽.

8) 조동호 역, “이스라엘의 땅”(http://kccs.pe.kr →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자료출처: http://www.jewfaq.org/israel.htm).

9) 조동호, “유대민족의식에서 본 기독교 출범의 당위성 고찰”(http://kccs.pe.kr → 신학논문→신약성서분야).

10) “이스라엘의 땅.”

11) 고후 1:22(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엡 1:13-14(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이 약속의 땅을 팔레스타인 땅¹³⁾, 예루살렘 시온으로 보지 않고, 하늘 가나안 땅, 하늘 예루살렘 시온으로 오름을 강조한다. 지상의 가나안 땅에서는, 비록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인간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언’(prophecy)은, 물론 다른 예언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바벨론 유배이후에 발전된 ‘장차올 메시아’와 ‘장차올 세상’(올람하바) 곧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두 가지 내용으로 활동하였다. 첫째가 회개운동이고, 둘째가 회복운동이었다.¹⁴⁾ 예언은 이 두 번째 회복운동에 관련된 것이고, 이 운동의 내용 속에 메시아가 세울 신정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고, 당연히 이 예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믿는다.¹⁵⁾

3. 히브리서의 모형론

그러나 신약성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였고,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론에서는 구약성서내용을 신약성서내용의 모형과 그림자로, 신약성서내용을 구약성서내용의 실체와 원형으로 설명하였다.

히브리서에는 영원한 천상의 세계와 일시적인 지상세계로 되어 있는 수직적 이원론과 현세와 내세로 된 종말론적 이원론이 드러나 있다. 이 가운데 수직 또는 공간적 이원론은 참 이데아의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라는 플라톤 사상이 반영된 것이며, 히브리서 신학사상의 핵심이다. 신약성서의 대표적인 해석인 모형론(또는 유형론,

보증이 되사...); 히 6:17(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히 9:15(...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cf.: 행 13:19, 20:32, 26:18; 엡 1:11,14,18, 5:5; 골 1:12; 히 11:8, 12:17; 뱀전 1:4.

12) 롬 8:17(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엡 3:6(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cf.: 롬 4:13, 4:14,16; 딤후 3:7; 히 1:2,14, 11:7.

13) 조동호, “선민의 조건에 관해서”(http://kccs.pe.kr/jewishcal20.htm).

14) 정훈택, 『신약개론』(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14-15쪽.

15) “유대주의에서의 메시아사상.”

typology)이 여기서 나온다. 먼저 있는 것은 나중 있을 더 좋은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이며, 나중 있을 것은 먼저 있는 것의 원형이며 실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의 예법과 성막’(9:1)은 신약의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그림자요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은 구약의 예법과 성막의 원형이요 실체인 것이다.

히브리서가 구약의 예법과 성막을 “모형”(ὑπόδειγμα, 8:5; 10:1), “그림자”(σκιά, 8:5; 10:1), “비유”(παραβολή, 9:9), “표”(ἀντίτυπος, 9:23, cf. 벧전 3:21)라고 하였을 만큼 신약성서 저자들 사이에서 모형론은 일반적인 구약해석의 한 방법이였다.¹⁶⁾ “모형”(ὑπόδειγμα = copy)은 표시(sign), 형상(figure), 본(example)을 의미하고, “그림자”(σκιά = shade)는 스케치, 윤곽(outline), 예시(例示)를 의미한다. “비유”(παραβολή)는 옆에 놓는다는 뜻으로 대조, 닮음, 유사함을 의미하고, “표”(ἀντίτυπος)는 모양 따라 조성된 것, 사본, 예표(豫表)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아이콘”(εἰκών, 계 15:2)은 이미지, 형상을 의미하고, “본”(τύπος, 살전 1:7)은 도장 같은 것으로 찍은 표시(mark)나 형상(figure), 형태(form), 글자(letter), 모양(pattern), 활자(type)를 의미한다.¹⁷⁾ 신약성서에서 모형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대상들로는 최초의 범죄자 아담, 율법의 전달자 모세, 예언자 엘리야, 성막과 제사와 안식일 제도, 아론계열의 대제사장, 출애굽사건, 광야 40년 유랑, 노뱀 등이다.¹⁸⁾ 이상의 차이점들을 구분할 수 있을 때, 히브리서가 유대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16)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8:5);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 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9:24);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느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10:1);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8:13);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9:11).

17) Bernard Ramm,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pp. 217.

18) *Ibid.*, pp. 231-232.

해석했는가를 알 수 있다.

4. ‘안식’에 관한 히브리서의 이해

유대교사상 가운데 중요한 테마가 안식이다. 유대교인들에게 안식은 특별한 개념이다. 그들이 그토록 안식일을 엄하게 지킨 이유, 상황에 따라서는 수백 가지가 넘는 상식을 초월한 안식일 법들을 만들어서 지킨 이유가 그들의 오랜 유배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절실하게 안식이 필요했다.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원형(prototype)은 가나안 땅이다. 아브라함이 오랜 유랑 끝에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진입한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다. 홍해를 건넌 후 사막에서 40년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한다. 기나긴 세월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얻게 되는 가나안 땅, 나라 없이 떠돌던 서러움을 한 순간에 씻어버린 가나안 땅의 진입이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의 진입은 오랜 고난과 시련에 종지부를 찍고 얻는 안식을 상징한다.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 불모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희망(하티크바)의 땅이요, 하나님이 잡지 하신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거룩한 땅이요, 영원한 안식처이다. 이 가나안 땅에 오름(aliyah)¹⁹⁾, 이것은 분명 유대인들의 집단무의식이자 원형이며, 끈질긴 집념이면서 절대 신앙이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의 안식개념은 지나치게 민족적이고, 배타적이며, 땅 중심적이었다. 그것은 또 지나치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이었고, 육체노동의 쉽과 모든 창조활동의 중지를 의미하였다.²⁰⁾ 그래서 히

19) 유대인들은 ‘오름’이란 표현을 두 가지 경우에 쓰고 있다. 하나는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오름을 ‘알리야’(aliyah)라 부른다(“이스라엘의 땅”). 다른 하나는 회당에서 열리는 기도회 때에 토라(Torah)를 읽기 위해서 단상에 오르는 명예를 ‘알리야’(aliyah)라 부른다(조동호 역, “유대교의 예식서”(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토라와 가나안 땅의 뗄 수없는 관계를 읽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20) 조동호,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에 대한 고찰”(http://kccs.pe.kr/jewishcal10.htm).

브리서는 유대인들의 민족적이고, 배타적이며, 영토중심적인 안식개념을 우주적이고 탈민족적인 포용개념으로 승화시켰고, 유대인들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안식개념을 내세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승화시켰다. 또 무덤상황 곧 흑암과 혼돈과 죽음의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는 부활의 삶을 안식의 개념으로 취했다. 일하지 않는 육체의 쉼 보다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쉼을 의미하였다.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힌 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과 오직 믿음과 은혜로 법적인 속죄는 물론이고 양심까지 깨끗케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육적인 복은 물론, 더 좋은 영적인 복까지 풍성히 채워주신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이시며, 참 안식을 주시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분이시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장래에 좋은 일들을 엮어 주시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도들의 꿈과 희망을 이뤄주실 분도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보장이 되고,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장차올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으로써'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들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비록 천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셨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것을 이루는 보장이 되고 실상이 된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비록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르는 무모한 것일지라도, 끝내 이기고 약속의 증거를 손에 넣게 할 것이고, 바라던 것을 이루게 할 능력이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할 지혜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나아가 도달할 곳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성도들의 오름의 행진과 방향은 저 팔레스타인 땅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

루살렘이다. 또 성도들이 도달할 곳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케루빔과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과 24장로들과 천군천사들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계 7:9)가 도열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을(계 9:12) 씬 없이 돌려보내는 곳이다. 또 그곳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그곳에 오르는 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받아쓰게 될 곳이다.

5. 히브리서의 권면

히브리서는 열일곱 차례나 ‘하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 4장에서 다섯 번 쓰고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1,11절). 신앙을 굳게 지키자(14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16절).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자(16절)고 했고, 6장에서 한번 초보단계에서 벗어나자(1절)고 권했다. 10장에서 네 번에 걸쳐 하나님께 나아가자(22절). 신앙을 굳게 잡자(23절). 서로 격려하자(24절). 모이기를 힘쓰자(25절)고 했으며, 12장에서도 네 번에 걸쳐 인내로써 경주하자(1절). 예수님을 바라보자(2절). 감사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28절)고 권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에서 세 번 예수님이 겪으신 치욕을 짚어지자(13절).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15절)고 권했다.

히브리서는 믿음과 인내에 관한 글이다. 히브리서 10장 26-39절은 기록목적에 부합한 글이다. 내용은 이렇다.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 때에는 속죄 제사가 남아 있지 않다. 믿음과 인내를 보이지 못하고 배신했을 때,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과 그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이다. 하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의 빛을 받은 뒤에 그 숱한 고난의 싸움을 견디고 이긴 첫 사랑의 때를 회고해 보라. 그 시절에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고, 동일한 처지에 놓인 교우들의 동반자가 되며,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재산물수를 당하고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

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쁨으로 당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믿음이 있는 행동은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용기 있게 전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약속하신 큰 상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수고를 마치고 인내의 결실을 맺을 때가 멀지 않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다. 그분은 결코 지체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10:35-37).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놓지 아니한 그 희망과 믿음의 끈이 결국에는 우리를 인생의 미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게 될 것이다.

II. 히브리서의 장별 해설

1.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에 관한 해설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옮겨서 살펴보고, 본 장(章)에서는 히브리서의 장별 해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만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라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1917년에 이런 글을 썼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를 구원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야가 분명히 미래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²¹⁾ 또 『두 형태의 신앙』(Two Types of Faith)에서는 기독교가 실현된 종말론(realized eschatology)을 믿고 있는 반면에 유대교는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론(futuristic eschatology)을 믿고 있다고 했다.²²⁾ 부버가 언급

21) Will Herberg, ed., *The Writings of Martin Buber*, p. 31.

22) 최한구, 『유대인은 EQ로 시작하여 IQ로 승리한다』(도서출판 한글, 1998).

한 이 두 개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민족에게는 영적구원(종말)이 없고, 육적구원(종말)만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구원과 그의 재림 시(時)에 육적 완성이 이뤄질 것을 말하는데, 부버는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대(大) 구원(초기구원)이 이뤄졌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본 것이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미 실현된 구원의 확산, 곧 종말에 주어질 축복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반면, 유대교에는 그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유대교인은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유대교인에게는 '이미'가 없고, 오직 '아직'만이 있을 뿐이다.

유대민족의식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구원은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뤄진 것이고, 이 사건이 대(大) 구원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유대민족이 고대하는 올 세계('올람 하바', Olam Ha-Ba 곧 world to come)의 도래, 곧 이스라엘 국가의 궁극적인 완성이자, 제2의 출애굽사건을 주도할 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왕이 오시면 이스라엘 국가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고, 세상 끝 날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도문 「쉐모네 에스레이」를 매일 세 차례씩 암송한다.²³⁾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란 말 대신에 '모쉬아크'(Moshiach)란 히브리어를 쓴다. '메시아'가 지나치게 기독교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⁴⁾

'모쉬아크'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써 마지막 때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게 될 자를 뜻한다. 그러나 모쉬아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救世主)가 아니고, 죄가 없으신 신적(神的) 존재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쉬아크가 다윗 왕의 후손인 위대한

23) 조동호 역, "쉐모네 에스레이"(<http://kccs.pe.kr/jewishcal7.htm>).

24) 조동호 역, "유대주의에서의 메시아사상(Moshiach: The Messiah)"(<http://kccs.pe.kr> → 성경연구 → 신약성경관련).

정치 지도자일 것이고, 유대법에 정통하여 그것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며,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일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의 본보기를 따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위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위대한 군사 지도자일 것이고, 의로운 결정을 내릴 위대한 재판관일 것이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그는 인간일 것이고, 신적 혹은 반신적 존재나 초자연적 존재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⁵⁾

모든 세대에서 사람은 모쉬아크가 될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만약 그 사람이 살아서 활동할 때에 메시아시대에 적절한 때가 도래한다면, 그 사람은 모쉬아크가 될 것이지만, 만약 그 사람이 모쉬아크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죽는다면, 그 사람은 모쉬아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²⁶⁾

일반적으로 모쉬아크는 (세상이 죄로 넘쳐서)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나 (세상이 심히 좋아져서) 가장 합당한 때로 여겨지는 시기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모쉬아크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킴으로써 정치적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스라엘에 한 정부를 세울 것이고,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전 세계 정부의 중심에 세울 것이며,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성전예배를 다시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종교법정 체계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라 법으로써 유대법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다.²⁷⁾

이때의 세계를 유대문학에서 ‘올람 하바’(Olam Ha-Ba), 곧 다가올 세계라 부른다. 올람 하바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이며(사 2:4),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이 유배되었던 나라들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며(사 11:11-12, 렘 23:8, 30:3, 호 3:4-5), 회년 법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고, 전 세계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유대종교를 유일하고 참된 종교로 인정하게 될 세계라는 것이다(사 2:3; 11:10; 미가 4:2-3; 스 14:9). 이 세계에서는 살인, 약탈, 경쟁과 질투는 사라질 것이고, 죄도 없어질 것이다(슥 3:13). 희생제물은 성전에서 계속 드려질 것이나 제물들은 감사에

25) *Ibid*

26) *Ibid*

27) *Ibid*

물에 국한될 것이라고 믿는다.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²⁸⁾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민족에게는 출애굽사건에서 시작해서 모쉬아크 사건에서 완성되는 이스라엘 국가의 설립과 완성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은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성도들이)가 성령의 능력가운데서 영적으로 시작되는 구원으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육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가운데서 영적으로 시작되는 구원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뤄지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써 약속과 인침과 보증과 선취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또한 ‘칭의’라 부른다. 약속과 인침과 보증과 선취란 그리스도의 재림 시(時)에 완성될 육적 구원(성도들의 육체부활과 우주의 회복인 새 하늘과 새 땅), 곧 종말에 이뤄질 축복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약속받고, 인침(도장) 받고, 보증(선수금) 받고, 맛보고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 이뤄진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 혹은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유대교에는 없다. 이와 같은 축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인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출애굽사건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란 것은 메시아가 가져오실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이요, ‘아직’이라는 말은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소망 가운데 있다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만 믿고 있는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현재구원이 없고, 오직 미래구원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뤄진 구원을 맛보며, ‘아직’ 이뤄지지 아니한 것을 은혜 가운데서 희망하는 것이다.

2. 각 장(章)에 나타난 차이점

히브리서가 기록된 일세기 후반기를 살던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스

28) Ibid

도인이 되고나서도 유대교와 유대공동체와의 고리를 끊지 못한 자들이 많았고, 그들의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에로 복귀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자들에게 왜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길인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지, 왜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한 존재인지, 그리고 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에서 희망하는 그리스도보다 우월한지, 또는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려고 하였다. 특히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외쳤다.

히브리서는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神性) 메시아이신 것을 변증한다. 모형론이란 새것을 옛것에 비교하거나 천상의 것을 지상의 것에 비교하는 방법인데, 옛것이나 지상의 것은 새것과 천상의 것의 그림자이거나 모형일 뿐이고, 새것과 천상의 것이 참인 실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구약, 모세, 율법, 성막예배와 같은 옛것들은 실체요 새것인 신약, 예수님, 복음, 기독교예배의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사라지고 말 것들이란 것이다. 참과 실체와 새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흠 많은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것을 거절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란 것이다.

1장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코자 하실 때에는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다고 말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때 그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달빛처럼 희미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보기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

존하시는 분이라고 하였다. 또 예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던 분이시며,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되셨으며,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셨다고 말한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태양빛처럼 밝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달빛처럼 희미한 율법에 우리가 목숨을 내맡겨야겠는가? 아니면, 태양빛처럼 명확하고 분명한 복음에 목숨을 내맡겨야겠는가?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예언자란 것이다.

천사들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시중들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파견된 일꾼들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누구와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뛰어난 분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일생일대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2장 형님과 오빠이신 예수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낮아져 인간처럼 죽음을 맛보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9절),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져 인간이 되셨지만,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고, 천사들보다 낮아져 인간처럼 죽음을 맛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동생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둘째(10절),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낮아져 인간처럼 죽음을 맛보신 목적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많은 남녀 동생들을 영광에 이끌어 들이기 위함이다.

셋째(11-13절),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 모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신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들을 자기의 남녀동생들로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신뢰할 뿐 아니라, 그의 동생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넷째(14-15절),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낮아져 인간처럼 죽음을 맛보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예수님의 동생들이 피와 살을 가진 육신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이 되실 필요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또 다른 이유는 죽음을 경험 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여 평생 죽음의 공포에 놀려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섯째(16-18절),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낮아져 인간처럼 죽음을 맛보신 목적은 천사들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시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동생들과 같아져야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동생들의 죄를 대속시키려 했다. 또 예수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동생들을 넉넉히 도울 수가 있다.

3장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유대인들은 모세의 영도로 이뤄진 이집트 탈출을 대 구원사건이라고 부른다. 가나안 땅에 히브리 민족의 나라가 서게 되고, 다윗왕조가 세워졌지만, 2대만인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되고, 이후 대국들의 침략으로 패망의 멍에와 쇠사슬에 묶인 채 또 다시 노예로 끌려가 수백 년이 걸린 유배생활을 시작한다.

모세시대에 히브리인들은 이미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다는 해석도 있고, 그 절반인 215년간 종살이를 했다는 해석도 있지만,²⁹⁾ 아무튼 기나긴 속박의 세월이다. 눈물과 한숨과 고통의 세월치

29) 창세기 15장 13-14절과 출애굽기 12장 40절은 430년 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까지를 430년으로 보고 있고, 야콥이 이집트에 들어간 이후 탈출 때까지를 215년으로 보고 있다(*Antiquities* II.15.2). 오늘날 이스라엘은 천지창조이후 주전(主前)까지를

고 너무나 긴 세월이다. 이집트 탈출 후,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국가를 세운 후에 이스라엘 국가의 영화는 1,000년을 넘지 못한다. 솔로몬 사후에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모세이후 5백여 년 만에 앗수리아의 공격을 받고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고(주전 722년), 남유다도 모세이후 7백여 년 만에 바벨론에 패망한 후로(주전 586년) 또 다시 수백 년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으며, 1948년 5월 14일 건국³⁰⁾을 선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2,500년이나 된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집트 탈출과 같은 제2의 대 구원사건을 눈물겹게 기다려왔고, 그 때를 제2의 모세, 곧 메시아가 나타나는 때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같이 왕권과 신권을 가진 예언자가 메시아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보게 되었고, 그가 나타나면,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이 세워지고, 성전예배가 재건되며, 유대교를 국교로 하는 세계통합이 이뤄져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고 믿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에 언급된 ‘오는 세상’ 곧 ‘올람 하바’(Olam Ha-Ba)이다. 이 새로운 세상은 영적인³¹⁾ 동시에 물질적인 세상이다. 비록 팔레스타인에 세속주의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된 지 60여년이나 되었지만, 정통 보수주의 유대교인들은 메시아가 출현할 때까지는 진정한 이스라엘 국가, 곧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³²⁾ 이토록 ‘오는 세상’에 대한 유대인들의 희망 곧 ‘하티크바’가 뻗속깊이에까지 사무치다보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독교에 입문했다가도 유대교로 회귀

3761년으로 보고 있어서 215년설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히브리력으로 2008년은 5769년이다. <http://kccs.pe.kr/jewishcal.htm> 참고.

30) 이스라엘 건국일을 ‘욥하아즈마웃’(Yom Ha’Atzmaut)라 부른다. 기념일은 ‘이아르’(Iyar)월 5일이다. 히브리력은 태음력이다. 따라서 ‘이아르’ 5일은 태양력으로 5월 14일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축일들을 음력으로 지킨다.

31)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천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교회가 신령한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올람하바’의 유대왕국이 신정국가가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이 땅의 신정국가는 지상의 교회 안에서 이미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 완성의 모델, 곧 원형과 실체로써의 천상의 교회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32) “유대주의에서의 메시아사상.” 신약성서에서는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오순절 성령강림이후 지상의 교회 속에서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았고,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이 세운 나라가 물질세계가 아니라 영적세계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메시아관과 메시아가 세울 나라의 성격만 바꿔 생각하면 쉽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지만, 현세에서는 물론이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혜택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다른 이방인들과 전혀 차별이 없다는 점에 이르게 되면, 심하게 흔들리게 되어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주장이 그만큼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드리기 힘든 부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수용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선민의식, 특권의식,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익을 빼앗아 이방인들에게 고르게 나눠주는 식의 기독교만인평등사상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주장을 퍼뜨리고 다니던 바울이 죽이도록 미웠고, 그의 만인평등설에 자극되어 썰물 빠지듯이 기독교로 옮겨간 헬라인 개종자들이³³⁾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바울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자였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유대사상 중의 하나가 안식이다. 유대인들은 오랜 노예생활에 지쳐있던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다. 그들에게 가정과 나라는 안식처이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안식처의 상징이다. 비록 그 땅이 쓸모가 많지 않은 버려진 땅들이고, 산악지역들이고, 사막지역들이라라도, 그곳이 내 땅이고, 내 조국이고, 노예상태가 아닌 자유 시민으로 살 수 있는 나라란 점에서 명백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들의 꿈이 결코 지중해 연안의 불모지 같은 곳에 토지 장만하고 집짓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유대인들의 꿈은 그보다 훨씬 원대하고 커서 세계를 다윗의 깃발아래 두고 통치하는 것이다. 그런 꿈의 소유자들에게 히브리서 3장은 그 꿈을 포기하

33) 유대교에 개종한 헬라인들에 관해서는 필자의 “사도행전 13-14장을 통해 본 바울의 선교방법과 청중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시오.

고,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편협한 민족주의와 배타적 선민사상에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없다. 오히려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과 전쟁만을 촉발시킬 뿐이다.

유대인들이 땅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오랜 세월 남의 나라에서 유배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자기 집 없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셋방살이 전세살이 한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그곳이 불모의 땅일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소중한 땅일 수 있다. 그렇다고 그 땅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었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땅에 대한 집착은 과거 60년³⁴⁾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는 분쟁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3장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집중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수박겉핥기 식으로 생각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쯤 깊이 심사숙고해 보라는 것이다.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4장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

유대사상 가운데 중요한 테마가 안식이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은 특별한 개념이다. 그들이 그토록 안식일을 엄하게 지킨 이유, 상황에 따라서는 수백 가지가 넘는 상식을 초월한 안식일 법들을 만들어서 지킨 이유가 그들의 오랜 유배생활과 무관하지 않다.³⁵⁾ 그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절실하게 안식이 필요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원형(prototype)은 가나안 땅이다. 아브라함이 오랜 유랑 끝에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진입한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다. 홍해를 건넌 후 사막에서 40년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한다. 기나긴 세월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얻게 되는 가나안 땅, 나라 없이 떠돌던 서러움을 한 순간에 씻어버린 가나안 땅의 진입이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의 진입은 오랜 고난과 시련에 종지부를

34) 이스라엘은 2008년 5월 8일에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35) 유대인들의 안식일 '게자이라'(gezeirah, 토라의 율타리) 법에 관해서는 필자의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에 대한 고찰"과 "선민의 조건에 관해서"를 참고하시오.

찍고 얻는 안식을 상징한다.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 불모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희망(하티크바)의 땅이요, 하나님이 점지하신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거룩한 땅이요, 영원한 안식처이다. 이 가나안 땅에 오름, 이것은 분명 유대인들의 집단무의식이자 원형이며, 끈질긴 집념이면서 절대 신앙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원형에, 그들의 집단 무의식에, 그들의 끈질긴 집념에, 그들의 절대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 기독교이다. 유대인들의 안식개념은 지나치게 민족적이고, 배타적이며, 땅 중심적이었다. 그것은 또 지나치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이었다. 유대인들의 민족적이고, 배타적이며, 영토 중심적인 안식개념을 우주적이고 탈민족적인 포용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기독교이다. 유대인들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안식개념을 내세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유대인들의 이집트 탈출, 홍해도하, 광야생활, 요단강도하, 가나안 정복이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이며, 영토 중심적이고, 지나치게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반면, 기독교에서는 이집트 탈출을 죄악과 사단의 억압에서의 탈출로, 홍해도하를 침례 받음으로, 광야생활을 지상에서의 교회생활로, 요단강도하를 육체의 죽음으로, 가나안 땅의 진입을 천국에 들어감으로 내세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승화시켜 안식개념을 우주적이고 탈민족적인 포용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기독교는 육체노동을 마치고 잠시 쉬는 일시적인 유대교적 안식개념을 버리고, 무덤(혹암, 혼돈, 죽음)의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는 부활정신, 부활신앙, 부활의 삶을 안식의 개념으로 취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노동으로부터의 쉼을 강조하는 제칠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제칠 안식일 즉 토요일 안식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안식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진정한 쉼을 주는 참 안식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식은 '일하지 않는다.'는 육체

의 쉽다는 '참 평안을 누린다.' '해방을 만끽한다.' '자유를 누린다.'와 같은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쉽을 의미한다.

5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뒤를 돌아본다는데 있었다. 과거 모세시대에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을 사막에서 머물렀는데, 그 기간이 그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기간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을 그리워하였고, 참혹했던 그 때의 생활을 동경하여 되돌아가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사막에서 겪었던 생활은 잠시 받는 고난이었지, 억압을 당하는 생활은 아니었다. 현재보다 더 잘살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잠시 받는 시련이었지, 그것이 결코 불행이거나 재앙은 아니었는데도, 히브리인들은 당대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에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부정과 불가능의 동굴 속 어두운 세계를 탈출하여 긍정과 가능의 밝고 환한 동굴바깥 세계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동굴 속의 삶을 동경하여 부정과 불가능의 동굴 속 어두운 세계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떠나온 유대교를 못내 잊지 못하고 자꾸만 그곳을 향해서 되돌아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불행은 마치 롯의 아내가 떠나온 소돔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되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당부를 잊고 되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과 같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12:1)해야 할 성도에게 당부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떠나온 세계, 떠나온 놀이와 문화, 떠나온 습관, 떠나온 지식과 종교에 대한 향수를 버려라. 그것들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 길을 돌아보지 마라. 오직 예수님께

만 집중하라. 그는 우리를 영원히 살릴 새롭고 산길이다. 그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실 하늘에 오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5장 11-14절에서 뒤를 돌아다보는 자들을 일컬어 ‘듣는 것이 둔한 자들’ 곧 ‘더디 배우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배움의 시간으로 봐서는 뒤를 돌아보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자들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자들이 되었고, 갓난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6장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예수

히브리서 6장 9-20절에는 행위, 사랑, 믿음, 오래 참음, 약속, 맹세, 영혼의 닳과 같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약속’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했다. ‘맹세’란 것이 무엇인가? 16절에서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확정이다.”고 하였다. 18절을 보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한다.

히브리서 6장에 ‘소망’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온다. 아브라함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는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아니겠는가? 맹세로써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의 소망의 근거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마치 ‘영혼의 닳’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다. 닳은 바다에 떠있는 배가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한

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들은 ‘영혼의 닻’처럼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앞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확고히 신뢰하자고 말한다. 18절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한다면,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7장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멜기세덱은 히브리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의와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의 모형이다. 둘째, 멜기세덱은 그의 직책이 ‘의와 평강의 왕’이란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방불한 자였다. 셋째, 멜기세덱은 무시간적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형이다. 히브리인들은 죽보를 중시했지만, 멜기세덱의 죽보는 언급이 없다. 이런 점에서 그는, 3절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죽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던” 자였다. 넷째, 멜기세덱은 히브리인의 시조인 아브라함한테서 십일조를 받았고, 그를 위해 예배를 인도하였으며, 그를 위해 복을 빌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보다 또 백성들한테서 십일조를 받았던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하였다. 다섯째, 멜기세덱은, 8절처럼, 십일조를 받았으나 죽을 운명을 타고난 레위인과 달리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레위인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다. 둘째,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법, 곧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지된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대제사장이다. 셋째, 예수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넷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제사장이다. 다섯째,

예수님은 영원히 그 직분이 보장된 제사장이다. 여섯째,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제사장이다. 일곱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제사장이다. 여덟째,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사장이다. 아홉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신, 곧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제사장이다. 열째,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제사장이다. 열한 번째, 예수님은 레위 대제사장들처럼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바쳐야 할 필요가 없는 제사장, 곧 백성의 죄만을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 제사를 바친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다. 열두 번째, 약점을 가진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다.

8장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유대민족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인식은 언약의 하나님이다.³⁶⁾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말씀이다.

구약성서의 언약은 유대민족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판가름하는 잣대였다.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시련을 겪는가에 대한 해답을 예언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큼 성실하게 지켰는가에서 찾았다.

하나님은 유대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언약이다. 이 언약은 구약 39권을 구성하는 핵심내용이자,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가 되게 하고, 기독교를 탄생시킨 밑거름이다.

출애굽기 24장 1-11절에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나온다. 1-3절은 예비단계로써 하나님이 이런 저런 내용으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데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묻는 장면이고, 4-8절은 본 단계로써 언약식이 엄숙하게 진행되는 장면이다. 모세가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기록한 후, 언약식 당일 이른 아침에 단을 쌓고, 열두 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번제와 소들을 잡아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

36) “유대민족의식에서 본 기독교 출범의 당위성 고찰.”

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만 상징적으로 태우고, 살코기는 예배자의 몫으로 되돌려주어 언약체결식사에 사용되었다.

언약식의 주요단계 가운데 하나는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것이다. 모세가 소들의 피를 받아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린 다음 언약서(십계명과 율법)를 회중에게 읽어주었고, 회중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준행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9-11절에는 언약체결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9절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장면이고, 10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11절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설명이다. 이 장면을 교회에서 연출하고 있는 것이 ‘주의 만찬’이다.

신약성서에서는 이 시내산 계약을 ‘옛 언약’(구약)이라고 말한다. 이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선민계약’이라 부른다.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고, 이 언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과 율법을 언약대로 지켜야만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유대인들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 이 새 언약을 히브리서 저자는 8장에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히 7:22) 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히 8:6)라고 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되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 흘림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침례(세례)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언약 공동체가 되었으며, 매 주일 나누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9장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예수

1세기경 유대인 기독교인들(Messianic Jews)³⁷⁾은 동족인 유대교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복귀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9장은 ‘옛 언약’인 구약을 ‘육체의 예법’(10절), ‘모형’(23절) 혹은 ‘그림자’(24절)로 표현하면서 신앙의 위기에 빠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옛 언약의 예법에 따른 제사와 제물³⁸⁾과 대제사장은 장차 올 더 좋은 예배와 제물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비해서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은 첫 언약의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막이 갖는 제한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곧 법궤 위 속죄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휘장으로 막혀 있었다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분명하지도 않았고, 좀처럼 쉽지도 않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제사장이 일 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때만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법궤 위 속죄소로 나아간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성막과 예법이 장차 나타날 더 좋은 것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점이다.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옛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성취와 실체는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더 좋은 것으로써 완전하고 항구적인 것이다.

셋째, ‘옛 언약’에 따른 성막 제단에 드러진 희생제물과 봉헌물은 인간의 양심까지 온전케 할 수 없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어지는 구원은 법적인 속죄는 물론이고 양심까지 깨끗하고 온전하게 영구적으로 사하

37) 전 세계 유대인 1천34백만 명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 대략 2-3만 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의 전통과 종교를 실천하면서 나사렛 예수(Yeshua)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다. <http://www.menorah.org/mjews.html>.

38) 9장 1절에 언급된 ‘구약의 예법과 성막’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다음 장(章)에서 다뤘다. <http://kccs.info> →설교자료→빛과생명교회주일설교(2008년) 참고.

는 능력이 있다.

넷째, ‘옛 언약’에 따른 예법은 심령보다는 육적인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발생한 부정을 씻는 일에 중점을 두었고, 민수기 19장은 죽은 자와 접촉하는 데서 발생한 부정을 씻는 일에 중점을 두었으며, 레위기 12-15장은 문둥병과 유출병과 같은 질병으로 발생한 부정을 씻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제도는 육체에 관해서는 철저했지만, 영혼에 관해서는 약점을 지닌 것이어서 반드시 ‘새 언약’에 따른 예법으로 개혁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다”³⁹⁾고 하였던 것이다.

구약성서시대의 히브리인들은 영적세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⁴⁰⁾ 그들의 사고는 통합적이어서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영적세계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인식이 약했다. 영적세계에 대한 관심과 강조는 헬레니즘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헬레니즘의 이원론이 매우 두드러진 때였다.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의 모형이나 그림자 혹은 예표로 강조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구약성서가 육적이고, 신약성서가 영적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육적인 ‘옛 언약(구약)’에 따른 예법은 영적인 ‘새 언약(신약)’에 따른 예법으로 개혁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1-28절에는 예수님의 우월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첫째,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 둘째,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39) 유대인들의 먹고 마시며 씻는 육체의 예법들에 대해서는 조동호, “유대교인들의 음식법에 관한 고찰”(http://kccs.pe.kr →신학논문→신약성서분야)과 “유대교인들의 식사전 손씻기법”(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참고.

40) 구전 전승의 구속력과 권위를 부정하여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던 ‘사두개인들의’ 경우를 보면, 레위인의 정결의식과 제사의식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반면, 모세오경에 없다는 이유로 내세, 부활, 영적세계, 천사와 마귀 등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섬기는 대제사장이시다. 셋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넷째,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처럼 매년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한 단번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참 성전인 하늘 성막에서는 모형으로 할 필요가 없고, 더 좋은 제물인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한 것이며,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의 피로써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매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실 필요가 없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다섯째,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의 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케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능력의 대제사장이시다. 여섯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부름을 입은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얻게 할 능력의 대제사장이시다. 일곱째,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다시 오실 대제사장이시다. 이 때 세상을 향한 대심판이 있게 된다. 여덟째, 인간의 죄와 고독과 죽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대제사장이시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힌 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⁴¹⁾에 나갈 수 있는 길과 오직 믿음과 은혜로 법적인 속죄는 물론, 양심까지 깨끗케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육적인 복은 물론,

41) 히브리서 4장 16절의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 뚜껑 위의 ‘시온소’ 또는 ‘속죄소’를 두고 한 말이다. 유대교의 성전개념은 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광장으로 쓰인 이방인의 뜰, 유대인 여성의 뜰, 13세 이상의 ‘발 미즈바’(계명의 아들)인 유대인 남성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들이 담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성전건물의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성소는 그 날의 당번 제사장들이, 지성소는 일 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다. 따라서 성전의 담들과 성소의 휘장은 종족의 담, 성별의 담, 신분의 담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이들 담과 휘장의 상징으로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들 담들의 붕괴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는 종족의 담, 성별의 담, 신분의 담에 의한 가로막힘 없이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a new and living way)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더 좋은 영적인 복까지 풍성히 채워주신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이시며, 참 안식을 주시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연합함을 체휼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분이시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장래에 좋은 일들을 엮어 주시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0장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장차 더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로 잠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장차 이뤄질 더 좋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군을 뽑아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봉사자로 세워 열방선교의 그릇으로 쓰시려 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그들 자신의 하나님만으로, 그들 조상의 하나님만으로,⁴²⁾ 그들 민족의 하나님만으로 독점해버렸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오해하여 안식일법과 정결법과 같은 터무니없이 많은 율타리법들⁴³⁾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였으며, 선교의 대상인 이방인들과는 접촉이나 식탁교제를 차단시켜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한 노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오류를 범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였으며,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내셨던 것이고,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 2600여 년 전 유다왕국이 바벨론제국에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회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고, 그들의 생각에다가 새겨 줄 것이

42) “유대민족의식에서 본 기독교 출범의 당위성 고찰.”

43) 조동호, 할라카: 유대인의 법”(http://www.jewfaq.org/halakhah.htm).

며,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렘 31:33-34).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루실 온 인류를 위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기 민족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는 죄와 불법이 용서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8-19절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소휘장을 찢고 열어 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이요, 그 휘장은 십자가가 못 박혀 찢기신 예수님의 몸의 모형이다(히 10:20).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혈혈단신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당신의 온몸이 찢기고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싸우셨고, 결국에는 인류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고, 죄를 씻고, 세례의 물로 몸을 씻은 사람들이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굳게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모임을 싫어하거나 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야 한다(히 10:20-25).

히브리서와 계시록은 믿음과 인내에 관한 글이다. 성서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 이미 얻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권면한다. 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26-39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 때에는 속죄 제사가 남아 있지 않다.

믿음과 인내를 보이지 못하고 배신했을 때,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과 그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이다. 하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의 빛을 받은 뒤에 그 듯한 고난의 싸움을 견디고 이긴 첫 사랑의 때를 회고해 보라. 그 시절에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고, 동일한 처지에 놓인 교우들의 동반자가 되며,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재산몰수를 당하고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쁨으로 당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믿음이 있는 행동은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용기 있게 전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약속하신 큰 상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수고를 마치고 인내의 결실을 맺을 때가 멀지 않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다. 그분은 결코 지체치 않을 것이다.

11장 믿음의 실상과 증거이신 예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에서 ‘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티크바’(희망)를 말하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랐고, 아직도 바라고 있는 ‘올람하바’(장차올 좋은 세상)를 말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연고로 얻지 못했고, 결국은 대다수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대신 받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에서 ‘실상’은 ‘실체,’ ‘확신,’ ‘보장,’ ‘기초’를 뜻한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보장이 되고,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장차올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으로써”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들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의 신분이 비록 천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셨다. 따

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것을 이루는 보장이 되고 실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장차올 좋은 세상,’ ‘약속의 땅’을 전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입한 것, ‘알리아라 부르는 ‘오름’을 시행한 것을 말한다. 창세기를 보면, 유대인의 대표자로서 아브라함이 대가족을 이끌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오른 것을 볼 수 있고,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 ‘오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순례자의 길’이다. 신약성서는 이 ‘오름’이 ‘장차올 더 좋은 것’을 향한 십자가의 길, 그러나 끝내 이기고 예수님의 영광스런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의 길임을 말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눈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오름의 행진을 펼친 후에 끝내는 이기고 그 약속의 증거로 바라고 소원했던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비록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르는 무모한 것일지라도, 끝내 이기고 약속의 증거를 손에 넣게 할 것이고, 바라던 것을 이루게 할 능력이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할 지혜이다. 신실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선배 신앙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증거물로 얻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대 선언이다. 그리고 나머지 11장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약속의 실체와 실상을 증거로 확보했던 증인들의 이름들을 열거한 것이다.

12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히브리서 12장 1-5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한 경주에 관한 권면의 글이다. 1절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란 11장에서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수동적인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확증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순교자들이다. 그들은 약속의 실체를 받지 못했지만 삶 속에서 약속의 실체를 기다리며 증언한 자들이다. 여기서 “약속의 실체를 받지 못했지만”이란 뜻은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곳 가나안 땅은 그림자와 모형일 뿐이고, 장차 올 더 좋은 땅, 가나안 땅의 실체인 하늘 가나안 땅, 곧 영원한 나라의 땅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다 그 나라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동참할 때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이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경주에 나가 달리는 자가 경주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이나 거추장스런 것들을 말한다. 고대 헬라인들이 시합 중에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 경기를 했던 관습에서 나온 말이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추장스런 죄를 벗어버리자는 것이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는 먼 거리를 달리는 마라토너처럼 인내를 통해서 인내와 함께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자는 것이다.

2절에서는 또 다시 예수님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다. 11장에서는 구름떼같이 수많은 증인들을 내세웠는데, 12장 2-3절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성도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주목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데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뜻이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범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장차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을 위해서 달게 받았던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는 보상을 받으셨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고 하였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하셨다. 또 요한은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히브리서 12장 6-13절까지는 훈련과 인내에 관한 권면의 글이다. 부모가 자녀들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이다. 그때 그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며, 그 훈련을 잘 참아 내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17절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를 뵈는 길에 대해서 말한다.

14절은 주님을 뵈는 길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은 인간끼리의 정의로운 화평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더불어 먼저 화평하지 않고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를 뵈지 못한다.

15절은 주님을 뵈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가족과 동족의 탄압을 이기지 못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명기 29장 18절에 근거해서 의심과 배교행위를 ‘쓴 뿌리’에 비교하였다.

16-17절은 주님을 뵈는 길이 ‘우상숭배하지 않고, 경박하고 속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넘긴 에서가 늦게 깨닫고 후회하면서 이삭의 축복을 눈물로서 간구하였지만 거절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므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18-24절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늘나라임을 말해준다. 저자는 여기서 두 장소와 두 인물을 비교한다. 시내산과 모세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땅의 것의 상징이고, 하늘 시온 산과 예수님은 영원하고 무한한 하늘의 것의 상징이다. 시온산과 모세는 장차올 좋은 하늘 시온산과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이고, 장차올 좋은 시온산과 예수님은 이미 나타난 시온산과 모세의 실체란 점을 밝힌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나아가서 도달한 곳은, 유한한 땅의 것이 아니고, '시온 산,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한다. 또 성도들이 도달한 곳은 성도들을 축하하려고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나와서 도열한 곳이고,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가 뿌리신 피"가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곳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케루빔과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과 24장로들과 천군천사들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계 7:9)가 도열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을(계 9:12) 씬 없이 돌려보내는 곳이다. 또 그곳은 헤라클레스가 죽어서 신들의 전에 오른 후에 신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불가사의한 과업으로 인해서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었던 헤라클레스가 장렬한 최후의 날까지 모든 수고를 훌륭하게 참아낸 후에 천상에 올랐을 때, 올림포스의 신들이 그를 맞으러 제우스의 대전으로 모였다는 그리스 신화를 연상케 한다. 따라서 히브리서 12장 18-24절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하늘 시온산에 오르는 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최후의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받아쓰게 될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25-29절은 '흔들리는 것들'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고 있다. '흔들리는 것들'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피조물을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무한하고 영원한 천상의 것들을 말한다. 최후심판 때에 대격변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게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 속하여 남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구

원받지 못한 자들은 ‘흔들리는 것들’에 속하여 소멸의 불이신 하나님
의 준엄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한다.

심판과 경고에 관한 말씀은 계시록을 비롯해서 성서 66권에서 고
르게 다루고 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14-29절은 오늘 우리들의 삶
의 현실과 문제들에 던지는 경고의 말씀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 흔
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들이다. 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기자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의 권면이다.

13장 영원히 한결같으신 예수

하나님이 기울이시는 최대관심은 인간이다. 인간들을 관계단절에
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원상회복과 화평을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
나님은 인간과의 깨진 관계복원을 위해서 인간들이 먼저 취해야할
어떤 행동이나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이 먼
저 솔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희생당하시고 그 사랑의 힘과 신뢰를
바탕으로 깨진 관계가 복원되도록 하셨다. 이 사랑을 성서는 ‘아가
페’라고 말한다. ‘아가페’는 ‘just love’를 말하는 것으로써 ‘의로운 사
랑’이란 뜻이다. 이 사랑은 자기희생과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의로움을
세우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한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인을 벌줌으
로써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세운 의로움을 말한다. 이것을 ‘의로운 사랑’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고 우리 그리스
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의 가치를 뺏고 앞사귀를 내어 공동체
발전이란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라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내용이다.

인간의 하나님 사랑이나 관심은 이웃사랑에서 증명된다. 그러므로
말로만 하나님 사랑을 말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
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한다.

나그네와 감옥에 갇힌 자들을 꼭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우리 주변에 정신적 영적 물적으로 나그네 된 자들과 갇힌 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정신적 영적 간힘의 현상을 ‘코쿤현상’이라고 말한다. ‘코쿤현상’이란 애벌레가 고치를 짓고 그 속에 자신을 가두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코쿤현상’은 병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한테서도 발견된다. 매사를 자기중심에서 남을 생각하고, 자기우상에 빠져서 남을 이단시하는 것도 ‘코쿤현상’이다. 자기중심에 갇힌 사람, 자기 우상에 갇힌 사람,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남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헌신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가둔 고치를 뚫고 나온 나비가 세상을 향해 날갯짓하며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게 하듯이 정신적 영적 부활의 정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살림의 일이 풍성하다.

가정경제의 어려움만큼 우리를 낙심시키고 팔다리에 기운을 빼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언제나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 일시적인 것에 착념치 말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얻고자 힘쓰며, 말씀으로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을 기억하고 본받자고 말한다.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기억하고, 눈과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고정시켜, 그분에 대한 믿음과 인내를 경주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자고 권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과 천사와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성도들이 운집한 큰 집회에서 영광스런 월계관을 받아 쓸 것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식탁은 제단에 가깝다. 특히 저녁식사는 매우 종교적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식사가 너무 종교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방인들과의 식탁교제를 막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대교인들은 그들의 종교법에 따른 ‘코쉬’ 곧 정한 음식만 먹을 뿐 아니라, 고기제품을 우유제품과 함께 먹을 수 없고, 고기제품에 접촉

된 그릇들은 우유제품에 쓸 수 없고, 반대로 우유제품에 접촉된 그릇들은 고기에 쓰일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사실상 차단시키고 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성결하다 해도, 사람을 깨끗케 하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깨끗케 하는 것은 마음의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지, 특정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셨다. 죽음의 근원인 죄악을 마음에서 제거하지 않은 채,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서 결코 성결해질 수 없다.⁴⁴⁾

그러나 기독교의 주님의 만찬은, 안디옥교회를 섬긴 이그나티오스 교부가 에베소 서신에서 밝힌 것처럼, “불사(不死)의 약(藥)이요, 죽음의 해독제”이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 불사(不死)의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역설(paradox)이면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수용하기 힘든 뜨거운 감자였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 역설이 믿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試金石)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불사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고 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 상반절의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제단’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만찬상을 말한다. 그리고 하반절의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들에 참여할 분깃이 없다는 뜻이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3장 11절,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치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몸을 진 밖에서 태워 버립니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44) “유대교인들의 음식법에 관한 고찰.”

이것은 일반제사의 경우에 제사장들은 제물의 일정부분을 자기 몫으로 취하게 되지만,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초막절 5일전에 드리는 대속죄제의 경우, 제물을 모두 진 밖에서 태워버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몫이 없었던 점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고 한 것은 연중 한번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희생제물이 성문 밖에서 모두 태워졌듯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신 사실을 말한 것이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이루신 대속사역의 축복들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나오는 말

히브리서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려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신성(神性)을 부인하는 자들이지만, 히브리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왜 그분이 천사나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신지, 왜 그분이 아론계열의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유대교인들의 희망의 실상이요 증거이시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이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분, 장래 좋은 것을 가져오실 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큰 목자로 소개하였다.

히브리서의 예수님 소개의 방법과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과 바벨론유배 전후에 예언된 메시아(제2의 모세, Moshiach)와 신정국가(올람 하바, Olam Ha-Ba) 도래에 대한 오래 묵은 유대교인들의 희망 때문이고, 둘째는 장차 나타날 구원자 제2의 모세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이란 점을 살펴보았다. 유대교인들은 메시아가 단지 인간일 뿐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적(神的) 혹은 반신적 존재나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인들의 이러한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실체와 그림자,’ 혹은 ‘원형과 모형’으로 명확하게 구분지어 설명한다. 유대교인들이 바라는 ‘그 희망’(Ha-Tikvah)의 내용들은 땅의 것이고, 유한한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고,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것이며, 기독교인들의 희망은 하늘의 것이고, 무한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고, 장차올 좋은 것들의 실체와 원형임을 밝힌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땅에 속한 아론계열의 대제사장이나 다윗 혈통의 제2모세가 아니라, 천사와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아론계열의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난 하늘에 속한 분이로서, 육신에 속하여 연약하고 무익하며 폐지된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맹세로 된 대제사장으로, 그 직분이 영원히 보장되어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이심을 밝힌다.

히브리서 설명의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써 구약성서내용을 신약성서내용의 모형과 그림자로, 신약성서내용을 구약성서내용의 실체와 원형으로 설명하는 모형론(또는 유형론, typology)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모형론에서는 먼저 있는 것이 나중 있을 더 좋은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이며, 나중 있을 것은 먼저 있는 것의 원형이자 실체로 본다. 따라서 ‘구약의 예법과 성막’(9:1)은 신약의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그림자요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은 구약의 예법과 성막의 원형이요 실체가 된다는 설명이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나아가 도달할 곳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밝힌다. 성도들의 오름의 행진과 방향은 저 팔레스타인 땅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곳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그곳에 오르는 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받아쓰게 될 곳이고, 진정한 의미의 안식과 쉼을 얻을 곳이

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고자 한다.

첫째, ‘오름의 행진과 그 방향’에 관한 히브리서의 설명이다. 본향을 떠난 삶을 유배생활로 인식하는 유대인들이 동쪽 끝자락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 눈을 향하고 이주하는 것을 일컬어 ‘시온에 오름’이라 부른다.⁴⁵⁾ 이사야 35장 5-10절을 보면, 시온에 이르는 대로(highway)가 언급되어 있다. 이사야 35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시대에 관한 예언이자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언젠가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뤄질 ‘장차울 세상’이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시온에 이르는 대로(highway)가 하늘나라 시온성에 오르는 길로 이해되어지고 있고, 신실한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길로 소개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표현을 써가며 ‘장차울 더 좋은 세상’이 하늘나라인 것을 밝히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에 관한 히브리서의 설명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오름의 행진을 성공리에 펼치고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 받은 것을 문자적으로는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히브리서의 해석에 따르면, 그들은 약속받은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을 뿐이지, 이 땅에서는 그것들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이 땅에서는 남의 나라에 얹혀사는 외국인이고, 유배지를 떠도는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말한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본향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 그대왔던 것처럼, 그들도 본향을 향해 눈을 고정시키고, 돌아갈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조상들이 그토록 바랐던 ‘그 희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 곧 하

45) “이스라엘의 땅.”

늘나라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영원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들이 진정으로 바랐던 희망은 이 땅이나 이 땅의 것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이었다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을 받았으되,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에베소서 3장 5-6절의 말씀대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 속에 있었던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감춰뒀던 비밀이었다고 말한다. 이 복음의 신비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한 몸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나눌 자격자가 된 것이다.

셋째, ‘장차올 좋은 것’(what is to come)에 대한 히브리서와 신약 성서의 설명이다.

(1) ‘장차올 좋은 것’은 참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받아야 할 거룩하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말한다. 히브리서는 ‘장차올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6장 9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말씀으로 포문을 연 후에 ‘좋은 소망’(7:19), ‘더 좋은 언약’(7:22), ‘더 좋은 약속’(8:6), ‘장차올 좋은 일’(9:11), ‘장차 나타날 좋은 것’(10:1)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사모’하였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였다’고 밝힌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시고, 미리 세워둔 ‘더 좋은 계획’에 따라(40절) 그들을 위한 ‘한 도시’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해 주셨다(16절)고 밝힌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35절)는 것이다. 바울서신들도 ‘장차올 좋은 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는 말씀이 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지만, 영어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장차올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으로써”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었다. 여기서 성령님은 ‘장차올 좋은 것’에 대한 ‘약속’의 ‘보증금’과 ‘인감’으로써 설명되었다. 그리고 바울서신들에서 ‘장차올 좋은 것’은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보장하는 보증금과 인감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2) ‘장차올 좋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속을 ‘기업’과 ‘후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히브리서 2장 5절은 ‘앞으로 올 세상’을 언급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13장 14절에서는 “장차 올 도시” 곧 천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바울은 ‘장차올 나라’에서 받을 상속을 ‘기업’이란 말로 설명하였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사용된 “장차올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이란 말 대신에 ‘기업에 대한 보증’이란 말을 쓰고 있어서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 상속의 내용은 ‘장차올 좋은 세상’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

(3) ‘장차올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신실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12절). 11장을 보면,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다.

‘장차올 좋은 일’은 구약성서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그것을 일컬어 신학에서는 ‘묵시문학사상’이라 부르고 있고, 유대교적 배경에서 보면, ‘올림 하바’에 대한 ‘하티크바’ 곧 ‘다가올 세상’에 대한 ‘희망’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유대교적 배경은 고대 페르시아제국 시절에 활동했던 역대기 역사가들의 가나안신정국가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유대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테마가 안식이다. 유대인들은 오랜 유배생활에 지쳐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안식은 절대적이고, 신성하며, 지복의 상징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원형(prototype)은 가나안 땅이다. 떠돌이 히브리인들의 후예인 유대인들은 너무 오랜 세월을 노예로서, 유배당한자로서 혹은 피억압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가나안 땅 예루살렘 시온으로 향하고 산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안식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약성서의 시각이고, 그 잘못을 바르게 잡고 있는 것이 신약성서이다. 유대인들의 안식개념은 지나치게 민족적이고, 배타적이며, 영토 중심적이다. 그것은 또 지나치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다. 이런 잘못된 안식개념을 우주적이고 탈 민족주의적인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신약성서이다. 유대인들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안식개념을 내세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신약성서이다.

기독교인들은 이천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장차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로 확신하였고, 그분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참되고 영원한 안식처로, ‘장차올 좋은 일’로, ‘장차올 세상’으로 인식하였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문자적 의미의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개개인들에게 임하신 후에 이뤄질 영적 의미의 이스라엘 나라이며, 민족과 신분과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공평하고 값없이 은혜로 열려있는 현재의 영적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궁극적으로 이뤄질 부활과 영원한 세계를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하고 보장하고 인증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문자적인 세계이고, 아직 이뤄진 적이 없는 미래세계이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장차올 좋은 것’인 ‘하

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 안에 상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뤄졌고, 장래에 이뤄질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을 보장하는 보증금과 인감으로써"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후계자들'이고, 이런 일을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넷째, 히브리서는 열일곱 차례나 '하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 4장에서 다섯 번 쓰고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1,11절). 신앙을 굳게 지키자(14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16절).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자(16절)고 했고, 6장에서 한번 초보단계에서 벗어나자(1절)고 권했다. 10장에서 네 번에 걸쳐 하나님께 나아가자(22절). 신앙을 굳게 잡자(23절). 서로 격려하자(24절). 모이기를 힘쓰자(25절)고 했으며, 12장에서도 네 번에 걸쳐 인내로써 경주하자(1절). 예수님을 바라보자(2절). 감사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28절)고 권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에서 세 번 예수님이 겪으신 치욕을 짚어지자(13절).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15절)고 권했다.

다섯째, 히브리서는 믿음과 인내에 관한 글이다. 히브리서 10장 26-39절은 기록목적에 부합한 글이다. 내용은 이렇다.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 때에는 속죄 제사가 남아 있지 않다. 믿음과 인내를 보이지 못하고 배신했을 때,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과 그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이다. 하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의 빛을 받은 뒤에 그 숯한 고난의 싸움을 견디고 이긴 첫 사랑의 때를 회고해 보라. 그 시절에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고, 동일한 처지에 놓인 교우들의 동반자가 되며,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재산몰수를 당하고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쁨으로 당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믿음이 있는 행동은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용기 있게 전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약속하신 큰 상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수고를 마치고 인내의 결실을 맺을 때가 멀지 않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다. 그분은 결코 지체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10:35-37).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놓지 아니한 그 희망과 믿음의 끈이 결국에는 우리를 인생의 미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참고서적

[1. 인터넷 자료]

유대교 관련 자료들(Judaism 101, <http://www.jewfaq.org>).

유대교 관련 자료들(<http://www.menorah.org>).

유대학술세미나 자료들(이스라엘 문화원,

<http://www.iscc.co.kr/seminar.asp>).

정호진. “이스라엘 농촌 사회.” 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

<http://www.iscc.co.kr/seminar.asp>.

조동호. “선민의 조건에 관해서.” <http://kccs.pe.kr/jewishcal20.htm>.

조동호.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와 차이.”

<http://kccs.pe.kr> →신학논문→신약성경분야.

조동호.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에 대한 고찰.”

<http://kccs.pe.kr/jewishcal10.htm>.

조동호. “유대교인들의 음식법에 관한 고찰.”

<http://kccs.pe.kr> →신학논문→신약성경분야.

조동호. “유대민족의식에서 본 기독교 출범의 당위성 고찰.”

<http://kccs.pe.kr> →신학논문→신약성경분야.

조동호. “사도행전 13-14장을 통해 본 바울의 선교방법과 청중에 관한 연구.” <http://kccs.pe.kr/misc09.htm>.

조동호 역. “쉐모네 에스레이.” <http://kccs.pe.kr/jewishcal7.htm>.

조동호 역. “유대교인들의 식사전 손씻기법.”

-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조동호 역. “유대교의 예식서.”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조동호 역. “유대인들에게 대 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http://kccs.pe.kr/jewishcal5.htm>.
조동호 역. “유대인들에게 설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http://kccs.pe.kr/jewishcal4.htm>.
조동호 역.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키기.”
<http://kccs.pe.kr/jewishcal6.htm>.
조동호 역. “유대인의 월력에 대한 설명.”
<http://kccs.pe.kr/jewishcal2.htm>.
조동호 역. “유대주의에서의 메시아사상.”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조동호 역. “이스라엘의 땅.”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조동호 역. “카발라와 유대신비주의.”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조동호 역. “카샤룻: 유대인의 음식법.”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조동호 역. “할라카: 유대인의 법.”
<http://kccs.pe.kr> →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조동호 편역. “유대인들의 기념일.” <http://kccs.pe.kr/jewishcal.htm>.
조동호 편역. “유대교 안식일법의 39가지 범주들.”
<http://kccs.pe.kr/jewishcal9.htm>.
조동호 정리. “유대인들의 기념일(민력).”
<http://kccs.pe.kr/jewishcal.htm>.
조동호 정리. “이스라엘의 월력.” <http://kccs.pe.kr/jewishcal3.htm>.
조동호 정리. “이스라엘의 추수축제(초막절).”
<http://kccs.pe.kr/jewishcal8.htm>.
최명덕. “이스라엘의 가정교육.”
<http://www.iscc.co.kr/seminar/2005sm.asp?select=6>.
최명덕. “유월절로 본 성만찬.” 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자료,
<http://www.iscc.co.kr/seminar.asp>.
최명덕. “유대인의 식탁법(Kosher).”
<http://www.iscc.co.kr/seminar/choi.asp?select=8>.

현용수. “유대인의 IQ + EQ.” 이스라엘문화원: 유대학술세미나자료,
<http://www.iscc.co.kr/seminar.asp>.

[2. 단행본 자료]

- 김득중. 『복음서신학』 컨콜디아사, 1986.
 김득중. 『신약성서 개론』 컨콜디아사, 1986.
 김득중. 『요한의 신학』 컨콜디아사, 1994.
 김정준. “제6장 기독교의 역사이해.” 『기독교와 문화』 한신대학교출판부, 1990.
 김철손 외. 『신약성서개론』 기독교서회, 1972.
 변홍규. 『성서개론』 한국기독교문화원, 1994.
 장일선. 『구약신학의 주제』 대한기독교서회, 1991.
 장일선. 『이스라엘 포로기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장일선. 『히브리 예언서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1991.
 전경연 외. 『신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1971.
 정훈택. 『신약개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조동호.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이해와 말씀: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 도서출판 가나다, 1998.
 조철수. 『유대교와 예수』 도서출판 길, 2002.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1997.
 노르만 페린, 데니스 둘링. 『새로운 신약성서개론』 박익수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1991.
 바클레이, 윌리엄. 『신약성서의 주요 메시지』 신성종 옮김. 컨콜디아사, 1995.
 베커, 크리스천. 『사도 바울』 장상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1.
 래드, G. E. 『신약신학』 이창우 옮김. 성광문화사, 1988.
 헌터, A. M. 『신약성서개론』 박창환 역. 컨콜디아사, 1989.

Clouse, Robert G. Ed.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77.
 Herberg, Will ed. *The Writings of Martin Buber*.
 Ramm, Bernard.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Walvoord, John. *The Millennial Kingdom* Findlay, Ohio: Dunham, 1959.

Whiston, William, trans. *The Works of Josephus*. Lynn,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84.

[3. 히브리서 관련자료]

권성수. 『히브리서』 총신대학교출판부, 1997.

권오현. 『공동서신』 대한기독교서회, 1998.

김달수. 『히브리서(성서주석)』 대한기독교서회, 1999.

박영선. 『히브리서 강해 1』 엠마오, 2004.

박윤선. 『성경주석 히브리서 공동서신』 영음사, 1989.

박윤성. 『히브리서 어떻게 가르칠까』 기독교신문사, 2004.

박형용. 『히브리서(한국성경주석총서)』 햇불, 2003.

유도순. 『구속사 관점에서 본 히브리서(유도순 목사 성경 강해 연구 시리즈 17)』 머릿돌, 1999.

이필찬. 『히브리서』 이레서원, 2004.

이흥기 역주. 『히브리서(200주년신약성서 11)』 분도출판사, 1991.

임성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히브리서)』 ESP, 2005.

장동수. 『히브리서 해석과 설교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아가자』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전경연. 『히브리서 주석과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0.

조병수. 『히브리서』 가르침, 2005.

조동호. 『공동서신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05.

Hagner, Donald A. 『히브리서 총론』 이창국 옮김. 크리스찬출판사, 2005.

Jones, A. T.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히브리서)』 에버라스팅 가스펠, 2001.

레인, 윌리엄 L. 『히브리서(상하)』 World Biblical Commentary 47』 채천석 옮김. 솔로몬, 2007.

룽, 모마스 G. 『히브리서: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현대성서주석)』 김운용 옮김.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리습, 제임스. 『히브리서(말씀과 삶 성경공부 시리즈)』 이승학 옮김.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3.

- 미헬, 오토. 『국제성서주석: 히브리서』 편집부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1988.
- 밀리건. 『히브리서』 차원봉 옮김. 태광출판사, 1971.
- 바클레이, 윌리엄. 『히브리서(성서주석시리즈 13)』 박근용 옮김. 기독교문사, 1973.
- 브라운, 레이먼드. 『히브리서 강해(BST 시리즈)』 김현희 옮김.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0.
- 브루스 B 외. 『히브리서』 성서유니온, 2002.
- 브루스, 프레드릭. 『히브리서(성경주석뉴인터내셔널 17)』 이장림 옮김. 생명의말씀사, 1986.
- 색, 스투아르트. 『히브리인의 눈으로 본 히브리서』 이선규 옮김. 크리스천헤럴드, 2006.
- 월슨, 마빈 R. 『기독교와 히브리 유산』 이진희 옮김. 컨콜디아사, 1995.
- 젠센, 어빙 L. 『히브리서』 배정웅 옮김. 아가페출판사, 1988.
- 피츠너, V. C. 『히브리서』 이기문 옮김. 컨콜디아사, 1990.
- 휴즈, P. E. 『히브리서(상하)』 이남중 옮김. 크리스찬서적, 1991.
- Guthrie, Donald. *The Letter to the Hebrews*. Inter-Varsity Press, 1983.

- Hagner, Donald A. *Encountering the Book of Hebrews: An Exposition*. Baker Pub Group, 2002.
- Irving, Roy. Ed. *Studies in Hebrews*. Scripture Press Publications, Inc., 1984.
- Lane, William L. *Word Biblical Commentary: Hebrews 1-8*. Thomas Nelson Inc., 1992.
- Long, Thomas G. *Hebrews*. Presbyterian Pub Corp, 1997.

[4. 기독교와 유대교 관련자료]

- 그로스, 데이빗 C. 『1001 Q&A: 유대인을 알고 싶다』 장병길 옮김. 도서출판 살렘, 1997.
- 조동호.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07.
- 최한구. 『유대인은 EQ로 시작하여 IQ로 승리한다』 도서출판 한글, 1998.

- Bockmuehl, Markus N. A. *Revelation and Mystery in Ancient Judaism and Pauline Christianity*. Coronet Books Inc., 1989.
- Chilton, Bruce and Neusner, Jacob. *Types of Authority in Formative Christianity and Judaism*. Routledge, 1999.
- Chilton, Bruce D. and Neusner, Jacob. *Classical Christianity And Rabbinic Judaism: Comparing Theologies*. Baker Pub Group, 2004.
- Cohn-Sherbok, Dan. *Judaism: History, Belief, and Practice*. Routledge, 2003.
- Davies, W. D. *Christian Engagements With Judaism*. Continuum Intl Pub Group, 1999.
- Deeg, Alexander and Homolka, Walte and Schor. *Preaching in Judaism and Christianity: Encounters and Developments from Biblical Times to Modernity*. Walter De Gruyter Inc., 2008.
- Donfried, Karl P. and Richardson, Peter. *Judaism and Christianity in First-Century Rome*. Lightning Source Inc., 1998.
- Engberg-Pedersen, Troels. *Paul Beyond the Judaism/Hellenism Divide*. Presbyterian, 2001.
- Evans, Craig A.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n Early Judaism And Christianity : Studies In Language And Tradition*. Continuum Intl Pub Group, 2004.
- Ferguson, Everett. *Early Christianity and Judaism*. Routledge, 1993.
- Fredriksen, Paula and Reinhartz, Adele. *Jesus, Judaism, and Christian Anti-Judaism: Reading the New Testament After the Holocaust*. Presbyterian Pub Corp, 2002.
- Holmn. *Jesus from Judaism to Christianity*. Continuum, 2007.
- Horbury, William. *Herodian Judaism and New Testament Study*. Coronet Books Inc., 2006.
- Kalimi, Isaac and Haas, Peter J. *Biblical Interpretation in Judaism And Christianity*. Continuum Intl Pub Group, 2006.
- Lotker, Michael. *A Christian's Guide to Judaism*. Paulist Press, 2004.
- Murphy, Frederick J. *Early Judaism : The Exile to the Time of Jesus*. Hendrickson Pub., 2002.
- Neusner, Jacob. *Judaism and Christianity in the Age of Constantine*

- History, Messiah, Israel, and the Initial Confront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 Neusner, Jacob. *Judaism in the Beginning of Christianity*. Augsburg Fortress Pub., 1984.
- Neusner, Jacob. *Judaism in the Matrix of Christianity*. Rowman & Littlefield Pub Inc., 1991.
- Nickelsburg, George W. E. *Ancient Judaism and Christian Origins: Diversity,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Augsburg Fortress Pub., 2003.
- Petropoulou, Maria-zoe. *Animal Sacrifice in Ancient Greek Religion, Judaism, and Christianity, 100 BC - AD 200*.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Reed, Annette Yoshiko. *Fallen Angels And The History Of Judaism And Christianity: The Reception Of Enochic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Richardson, Peter and Granskou, David M. *Anti-Judaism in Early Christianity: Paul and the Gospels*.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1986.
- Sanders, E. P. *Jesus and Judaism*. Augsburg Fortress Pub., 1987.
- Setzer, Claudia. *Resurrection of the Body in Early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Doctrine, Community, and..*. Brill Academic Pub., 2005.
- Shafiroff, Ira L. *Every Christian's Book on Judaism: Exploring Jewish Faith and Law for a Richer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Noga Press, 1998.
- Shanks, Hershel, *Christianity and Rabbinic Judaism : A Parallel History of Their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Biblical Archaeology Society, 1993.
- Sim, David C. *The Gospel of Matthew and Christian Judaism: The History and Social Setting of the Matthean Community*. Continuum Intl Pub Group, 1998.
- Weiss-Rosmarin, Trud. *Judaism and Christianity: The Differences*. Jonathan David Pub., 1997.

야고보서

1. 야고보서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일기삼서가 이어진다. 이들 일곱 개의 서신을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부른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주후 64년 경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야고보서의 기록 시기는 순교 이전인 40년에서 60년 사이가 될 수 있다.

저자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1:1)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서 수신자는 “세계에 흠어져 사는 열 두 지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호칭이 전 세계에 흠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야고보서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누구를 말한 것인가? 그 가능성은 다섯 가지가 된다. 첫째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둘째는 유대교 기독교인들, 셋째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넷째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다섯째는 모든 기독교인들이다. 초대교회는 그들 자신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곧 본향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는 잠시 나그네로 흠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야고보서는 실천의 종교 즉 행함의 신앙을 강조한 글이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야고보서를 일컬어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고 했다. 야고보서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루터의 이 언급에 대해서 19세기의 헤르데르(Johann Gottfried Herder)는 “만약에 본서가 ‘지푸라기’라면, 바로 그 지푸라기 속에 매우 핵심적이고 단단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알곡이 아직 해석되지 않고 정미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평가했다.

바울이 일부 서신에서 강조한 ‘칭의의 믿음’이 ‘구원을 위한 믿음’ 즉 초신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야고보가 그의 글에서 강조한 ‘행함의 믿음’은 ‘성화의 믿음’ 또는 ‘순종의 믿음’ 즉 이미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야고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들에게 신앙교육의 차원에서 행함의 믿음을 강조했다.). 바울도 그 대상이 이미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일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과 성결을 강조했다(롬 6-8장).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목적은 선행을 위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2. 야고보서 집필 배경과 동기

야고보서에는 우상숭배라든지, 성적문란과 같은 언급이 없다. 또 유대인들의 할례나 율법문제도 없고 고기 먹는 문제도 없다. 다만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며 정치마당화 되어가는 회당(교회)이 있을 뿐이었다. 야고보 저자는 빛과 소금의 역할도 없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공동체를 향해서 주의 강림과 심판의 다가움을 경고하고, 그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였다(5:11).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 서계시니라(5:7-9).

야고보는 특히 심판과 언행을 강조했다. 행함이 없는 쪽정이 같은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 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기 때문이다(4:17). 주의 강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기 때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를 유업으로 상속받고(2:5)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쓸 수 없기 때문이다(1:12).

3. 야고보서의 장르

야고보서의 형태는 첫 구절을 제외시킨다면 편지의 성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수신자의 실제적 형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 야고보서는 전체 108절 가운데 54개의 동사가 이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윤리적 권고를 목적으로 한 문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기독교적 복음의 선포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적 설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야고보서의 가치는 서신에 수집되어 있는 다양한 교훈의 말씀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야고보서는 유대인의 지혜문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이 보는 입장은 편지, 설교, 권면의 글, 그리고 지혜문학,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편지로 보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를 제외하고는 편지 형태도 없고, 인사도 없고, 부탁도 없고, 결미도 없다.

둘째, 설교로 보는 입장이 있다. 2장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들을지어다.”와 같은 말씀이 있기는 하나 히브리서나 요한일서에 서와 같은 선포가 한 줄도 없다.

셋째, 권면의 글로 보는 입장이 있다. 짧은 교훈과 권면의 말씀과 간단한 에세이 형태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1장에서는 시험, 시련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시키는 방편으로 시련을 주셨다고 말한다. 2장에서는 모든 것을 심판의 개념으로 전개한다. 심판의 표준은 자유의 율법인데(2:8-13), 자비를 베푸는 자와 긍휼을 얻게 된다(2:12). 아무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2:19). 사랑의 법만이 온전하게 된다(2:15-16). 간간이 신앙에 대하여(2:14-16), 말에 대하여(3:1-12), 시기에 대하여(3:13-4:10) 간단한 에세이형태로 논증한다. 그러나 권면의 글이라고 분류할 때에 야고보서는 아무런 목

적이나 의도가 없는 잡다한 사랑방 이야기로 전락하고 만다.

넷째, 지혜문학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구약에서 지혜전승은 율법이나 예언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형태로 참 삶, 곧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 야고보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신데, 주께서 오시면 자유의 율법에 따라 긍휼을 행한 자에게는 긍휼로 심판하는 엄정한 심판을 따라,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긴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터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주의 오심을 대처할 것인지 묻는다. 그러므로 단순히 잠언이나 격언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나 말이나 자기 삶을 준비하도록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지혜를 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지혜전승을 따르는 지혜문학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4. 야고보서의 문학적 구조

야고보서는 단편적인 교훈들을 수집해 놓은 글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구조를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야고보서는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산만하게 옮겨 다니며 지혜의 보석을 던지고 있다. 심지어 이들 주제들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들 사이에 아무런 관련도 없이 연결되기도 한다.

유대인들은 청중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한 주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설교를 카라즈(charaz)부르는데, 이 말은 실에 꿰여 있는 진주를 뜻한다고 한다. 야고보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한 움큼의 진주를 연달아 하나씩 독자들의 마음속에 꿰어 넣는 것이었다.

1)야고보서의 내용분해

- | | |
|-----------|-----------------------|
| 1:1 | 인사 |
| A. 1:2-18 | 서론적 권면 |
| a. 1:2-4 | 시험 중에 기뻐하라 |
| b. 1:5-8 | 의심 없이 지혜를 간구하라 |
| c. 1:9-12 | 낮은 형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 |

- e. 1:13-18 시험이 아니라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 B. 1:19-2:26 **신앙과 행실**
 - a. 1:19-27 참된 경건의 길
 - b. 2:1-13 하나님 나라의 왕도
 - c. 2:14-26 살아 있는 믿음과 사랑
- C. 3:1-12 **혀를 재갈 먹이라**
 - a. 3:1-5 입에 재갈을 먹이라
 - b. 3:6-12 말로 생기는 해독
- D. 3:13-4:12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 a. 3:13-18 두 종류의 지혜
 - b. 4:1-10 하나님의 베푼 벗이 되어라
 - c. 4:11-12 비방하지 말라는 권면
- E. 4:13-5:11 **그리스도인 인생관**
 - a. 4:13-17 어리석은 장사꾼에 대한 경고
 - b. 5:1-6 악한 부자에 대한 질책
 - c. 5:7-11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 F. 5:12-20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
 - a. 5:12 맹세하지 말라
 - b. 5:13-18 기도에 대한 권면
 - c. 5:19-20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5. 야고보서의 신학

1) 실천의 종교(Religion of Praxis)

야고보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실천의 종교, 행함의 신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야고보는 이 서신의 중심부에 믿음과 행함에 대해 논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2:17)이라고 못 박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의 칭의 교리를 보충해주고 있다. 이 같은 야고보의 가르침은 마태의 교훈과 비슷하다. 또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죄에 대한 독특한 정의를 내려 범법

죄만이 아니라 태만죄까지도 강조하여 예수님의 정신에 더 근접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옳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함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2:14-26).

실천과 관련된 야고보의 입장을 다음과 같다.

- ①시련은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낸다(1:2-4).
- ②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시험과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시키지 않는다(1:13-15).
- ③교회 내에서 부유한 자들에게는 아첨하고 가난한 자들은 업신여기는 속물근성은 죄다(2:1-7).
- ④부는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며, 정의보다 부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1:10; 5:1-6).
- ⑤참된 종교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1:27).
- ⑥지혜에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3:13-17).

- ⑦혀에 재갈을 먹여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1:26; 3:1-12).
⑧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2:14-26).

2)생명의 면류관(The Crown of Life)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마음에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구원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써야 한다. 말씀을 듣기만 하거나 교회당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시켜야 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1:12).

3)위로부터 난 지혜(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지만 땅에서 나오는 지혜는 오직 심판과 사망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지요, 정욕적이지요, 마귀적이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3:15-17).

4)자유의 율법(The Law of Liberty)

야고보서는 신앙이 행동으로 구현되고, 공동체가 유지되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이기는 것은 자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1:25; 2:12).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1:25).

· 92 · 공동서신의 메시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하기도 하라(2:12).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큰 사실에 기초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자유의 율법아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판단을 받게 될 근거는 자유의 율법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정통과 유대인들처럼 외적인 613개의 율법항목과 수많은 율타리(계자이라) 법들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사랑의 요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강요나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율법을 말한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긍휼을 베푸는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이란 점을 기억해야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2:13)

5)하나님의 벗(Friend of God)

야고보서는 철저히 신본주의 신학을 수립하여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한다.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 귀결된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벗”이 되라고 권면한다(4:4).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2:23).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4:4).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4:8).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 친구란 같은 태도, 같은 가치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자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벗과 세상의 벗이 되려고 두 마음

을 품는 자들이 있는데, 세상의 욕심과 표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베풀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4:4).

6. [설교]행함이 없는 믿음(약 2:14-26)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이복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후 6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수신자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 두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칭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야고보서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쓰인 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글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칭의의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으로써 죄인에게 요구되는 믿음이고, 야고보가 강조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순종과 성화를 위한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바울도 서신서들에서 그 대상이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들일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과 성결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목적은 선행을 위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였고,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7장 4절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구원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원과 목사인 박옥수는 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말로 접근합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로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통교회들에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신자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자들의 몸의 변형이 있기까지는 구원을 받았

다하더라도, 구원은 약속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에 크든 작든 지배를 받게 되는 성품과 인격은 여전히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파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박옥수는 의지적인 회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피동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선행이나 성화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달콤함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 구원파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총 10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절반인 54절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절 가운데 한절이 “~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관한 것입니다. 4장 7-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고 하였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1장 22절에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1장 25절에서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고,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였고, 8절에서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4장 11절에서는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고, 5장 9절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1장 26절에서는 자기 혀를 재갈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3장 2절에서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4·5절에서는 작은 키로 큰 배를 조종하듯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세치 혀는 무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3장 6·8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치 혀의 놀림이 형제나 자매에게 주는 해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소망 중에 인내로 하라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고,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였으며,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 7·8절에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였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언급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로 행하지 않고도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고,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살림의 일을 예수님이 본받아 하였고, 또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살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란 죽음의 일을 일삼던 우리가 변화되어 살림의 일을 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변화란 흑암이 빛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함’이란 바로 이 살림의 일, 재창조의 일, 건설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생각, 죽음의 말, 죽음의 행동은 사단의 일이지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도대체 행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림의 일이 없는 믿음, 삶 속에 변화가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질책을 받아야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자만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소홀히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금식을 안 했습니까? 십일조를 제대로 안 바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고(눅 18:12), 613개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많은 율타리 법들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더 이상 경건할 수 없고, 그 이상의 종교인이 없을 듯싶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요 7:19)고 하였고, “외식하는”(마 23:23) 자들이라 하셨으며, 그들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마 5:20). 그들 가운데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마 3:7)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엄청난 독설을

받아야했습니까?

첫째, 의(義)와 인(仁)과 신(信)을 버렸기 때문입니다(마 23:23).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사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았고, 소망 중에 인내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은 살림의 결과를 낳지 못하고, 언제나 죽음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막 7:8)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막 7:13)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경배라고 하셨습니다(막 7:7).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마 23:27)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자랑하는 지식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익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들린 자라고 하였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눅 7:34)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눈먼 장님이란 사실을 몰랐고, 그들은 자신들이 귀먹고 어눌한 병어리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무식했더라면 좋았을 사람들은 다른 아닌 바로 잘났다고 빠기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넷째,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변화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라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탄압함으로써 결국 수난의 민족으로 오래도록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토록 살림의 일과 창조적인 일, 그리고 긍정의 변화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

구』, [제4편 문명의 쇠퇴]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시적인 자아를 우상화하는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례는 신약 성경에 폭로된 유대인의 과오이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시리아 문명의 요람기에 시작하여 예언자 시대가 절정에 달한 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대의 백성은 일신교의 종교사상에 도달함으로써, 그 주위에 사는 시리아 사회의 다른 민족들보다 단연 뛰어나게 되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정신적 보물을 강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당연하였으나, 그 정신적 성장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단계이기는 하였지만, 하나의 과도적인 단계에 불과한 것을 우상화하는 과오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확실히 무상(無上)의 정신적 통찰력을 타고난 민족이었지만,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진리를 발견한 후에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절반 진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들은 '유일한 참신'을 이스라엘이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신의 선민임을 계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절반진리는, 그들이 가까스로 도달한 일시적인 정신적 탁월성을 신이 자기들에게 영원한 성스런 약속으로써 부여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과오에 빠지게 하였던 것이다. 그 천부의 재능을 어리석게도 땅에 숨겨둠으로써 그것을 활용할 줄 몰랐던 그들은 신이 나사렛 예수의 강림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제공한 한층 더 큰 보물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1549년 7월에 일본 큐우슈우(九州)에 상륙한 예수회 신부 프란시스 사비에르(Francis Xavier)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와 함께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일본은 1854년 미국과 화친조약을 맺은 이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등 서양 제국과 차례로 통상조약을 맺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이룩하였습니다.

중국도 당나라 때에 이미 한차례 기독교(景敎)를 수용한 경험 이 있고, 또 1583년 9월, 중국 광둥성에 도착한 예수회 신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와 함께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유럽의 발전된 과학학문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변화를 받아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동서양학문이 결합된 변증법적 진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유럽의 각종 문물과 번역서들이 해마다 북경에 파견되는 사절들에 의해서 유입되었지만,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들을 접하고도 배척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인들을 '사학죄인'으로 몰아 1만여 명이나 죽였는가하면, 쇄국정책을 펼쳐 서양학문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였고, 실학자들을 정치적으로 크게 탄압하였습니다.

이 당시 성리학에 바탕을 둔 양반세력들은 평등사상에 바탕을 둔 기독교 정신에 위기의식을 느껴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은 청(淸)나라를 제외하곤 다른 외국과의 통상 및 교류를 꺼려 강경한 쇄국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근세 들어 겪게 되는 엄청난 외세에 대응할 만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국제무대에서 고립되는 불행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것은 쇠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해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변화가 일고 있는지, 행함은 있는지, 과연 우리는 매사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소망 중에 인내로 행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1. 베드로전서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

베드로전서는 박해시대의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로마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받은 초기 박해로는 네로 황제 때에 로마 시에 국한된 박해가 있었고, 도미티안 황제와 트라얀 황제 때에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지금의 터키 지역에도 박해가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로 때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베드로전서가 실루아노(바울의 동역자)가 대필한 베드로의 서신으로 주장되고 있어서 네로 황제 박해 때인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서신이 보내어진 지금의 터키 지역에는 당시에 공개적인 박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추측하기는 로마에서 비참한 박해를 겪고 배도하는 사람이 속출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신앙인들에게 예상되는 박해에 직면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당부해 두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거나 언제나 그랬듯이 크고 작은 박해들이 이미 부분적으로 있었으리라 본다.

베드로전서는 두 개의 설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3절부터 4장 11절까지로써 침례식 때의 설교이다. 이것은 저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침례 받고 기독교인이 될 당시의 신앙의 결단과 감격을 되살려 주려는 목적에서 첨가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설교이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12절부터 5장 11절까지로써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설교이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영광”에 대한 “산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한다.

2. 베드로전서 집필 배경과 동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 있었고, 이때는 로마시의 삼분의 일 이상을 태워버린 대화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로부터 억울한 박해를 당하던 때였다. 이 당시 베드로전서가 보내진 지금의 터키 지역에 로마에서와 같은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전히 불법으로 인정되고 있었고 소수였기 때문에 주민과 지방정부로부터 크고 작은 탄압을 받고 있었다. 추측하기는 로마에서 비참한 박해를 겪고 배도하는 사람이 속출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신앙인들에게 예상되는 극심한 박해와 또 현실적인 크고 작은 탄압에 직면해서 성도들을 격려하여 끝까지 믿음위에 굳게 서도록 당부하려고 이 글을 썼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하므로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권면(설교)의 글을 쓴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이다(4:12-14a,19).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5:8-10).

3. 베드로전서의 장르

베드로전서는 전형적인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다. 서두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언급되어 있고(1:1-2) 끝부분에는 마지막 인사가 나오고

있다(5:12-14). A. M. 헌터는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일컬었다. 그 소망은 탐욕스런 소망이 아닌 기독교인의 소망, 곧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사 성도의 믿음과 소망을 그 안에 있게 하신(1:21) 하나님께 근거한 살아 있고 확신에 찬 하늘에 대한 기대라고 하였다. 소망의 등불이 어둠의 날에도 계속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순수한 편지이기보다는 오히려 설교에 가까운 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설교적 성격을 띤 서신 또는 권면의 편지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베드로전서의 문학적 구조

1) 문학적인 문제

베드로전서는 전형적인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편지보다는 오히려 설교로 보고 있다. 베드로전서는 두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1:3-4:11)에서는 침례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고, 둘째 부분(4:12-5:11)에서는 박해의 위협아래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권면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이 나뉘고 있다.

첫째, 1장 3절부터 4장 11절까지와 4장 12절 이하를 나누는 입장이다. 베드로전서 자체는 단일 편지인데, 원래 침례자를 위한 설교(1:3-4:11)에다가 교회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일어나자 4장 12절 이하의 권면을 첨가하여 발송하였다는 입장이다.

둘째, 1장 3절부터 5장 11절까지 전체가 하나의 침례식 때에 말씀한 설교라고 본다. 4장 12절 이하의 고난은 전반부와 구분이 없고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이 설교에다가 편지의 형태만 갖춘 셈이다.

셋째, 각각 다른 두 개의 설교가 합쳐졌다고 보는 주장이다. 전반부는 침례를 받는 자를 위한 설교이고, 후반부는 침례식을 거행한 후에 전체 교인에게 행한 설교라는 입장이다.

첫째부분을 침례예식 설교로 보는 학자들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감독의 엄숙한 개회기도(1:3-12), ②침례 후보자에 대한 공식적인 훈시(1:13-21)와 이어서 실제로 침례를 베풀고, ③새로이 침례 받은 자들에 대한 환영의 말씀(1:22-25), ④성례전 생활의 근본에 대한 교훈(2:1-10), ⑤새로이 침례 받은 자들에게 주는 기독교 제자직의 의무들에 관한 말씀(2:11-4:11)으로 되어 있다. 첫 부분을 침례의식과 관련된 설교로 볼 경우 뒷부분은 흔히 침례예식에 참여했던 전체 회중에게 주는 설교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때에는 저자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맨 처음 침례 받고 기독교인이 될 당시의 첫 결심과 감격을 되살려주기 위해 앞에 침례예식 설교를 첨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박해의 상황에 직면해서도 “영원한 영광”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2) 베드로전서의 내용분해

- | | |
|--------------|---|
| 1:1-2 | 서문 |
| A. 1:1-3-2:3 | 거듭난 새사람의 새로운 삶 |
| a. 1:3-2:3 |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 |
| ①1:3-5 | 그리스도의 부활과 침례를 통하여 얻게 된 거듭난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 |
| ②1:6-9 | 시험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큰 기쁨 |
| ③1:10-12 |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구약예언이 복음전파로 달성됨 |
| b. 1:13-2:3 |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 |
| ①1:13-16 | 그리스도인의 거룩성 |
| ②1:17-21 | 어린양 보혈의 거룩성 |
| ③1:22-25 | 아가페 사랑을 하는 새로운 삶 |
| ④2:1-3 |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갓난아기로 하나님 자녀로 살라는 권면 |
| B. 2:4-3:12 | 하나님의 새 백성의 거룩한 직분 |
| a. 2:4-10 | 하나님의 새 성전 |
| ①2:4-8 | 산돌로 세워진 신령한 성전 |

- ⑥2:9-10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 b. 2:11-3:12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제사장의 직분
- ⑥2:11-12 이방인 중에서도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중
 요성
- ⑥2:13-17 국가에 복종하라는 권면
- ⑥2:18-25 그리스도인 종들은 순종하라는 권면
- ⑥3:1-6 그리스도인 아내의 순복하는 행위
- ⑥3:7 남편에 대한 권면
- ⑥3:8-12 그리스도인 형제간의 사랑과 겸비
- C. 3:13-5:11 **영광의 소망과 의를 위한 고난**
- a. 3:13-4:11 핍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 ⑥3:13-17 신앙생활은 고난을 가져옴
- ⑥3:18-22 그리스도 고난의 의의
- ⑥4:1-6 죄를 씻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 ⑥4:7-11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 b. 4:12-5:11 당면한 핍박에 대한 권면
- ⑥4:12-19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광
- ⑥5:1-5 고난에 대한 교회직분자의 태도
- ⑥5:6-11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고난
- 5:12-14 결론

5. 베드로전서의 신학

1) 세 가지 중요한 예수님 상

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양으로 보았다(1:19). 유월절 어린양은 흠 없고 점 없는 것이었다(출 12:5). 죽음의 사자(使者)가 그 집을 지나간 것은 그 집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양의 피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씻인 사망에서 구원해 준다.

②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종으로 보았다(2:21-24).

③ 예수님을 속죄 염소로 보았다. 속죄일의 의식에서 속죄 염소, 곧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들을 걸머지고 광야로 나갔다(레 16:20-22).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2:24).

2) 새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계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계약의 백성으로 믿었다.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야훼 한 분만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며, 그들은 야훼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을 나누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이로써 그들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받은 양푼에 담고 받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출 24:6-8).

그러나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구속이 성취되어 완전히 구약의 참된 계승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도(2:21-25)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그리스도는 버린 돌로써 집 모퉁이의 요긴한 산돌이 되어 거룩한 성전을 지어 간다는 말씀도(2:4-8)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말한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한 말씀이(레 11:44; 19:2; 20:7)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1:15-16). 교회는 명실공히 구약의 참된 계승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었다.

구약(옛 언약)은 시내산에 체결되었다. 그러면 신약(새 언약)은 어디서 무슨 계약에 의해서 이뤄진 것인가? 하나님의 우산아래 보호를 받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태어나면서 구성원으로 편입이 되지만, 이

방세계에 소단위의 공동체로 흩어져 있는 교회는 침례식 때에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다. 베드로전서가 침례식 때의 설교란 점이 2장 9절의 말씀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식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구세주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구약이란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계약을, 신약은 침례식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3) 침례의 참뜻

베드로전서는 침례를 매우 강조한다.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고 말씀하셨듯이,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과 옛 생활로부터 갈라서는 분기점이다. 침례식 때에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공동체인 교회에 편입되어 천성을 향하여 걷는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시작하는 분기점이다.

4) 성령의 집을 짓는 산돌

침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내게 되지만, 교회라는 새 언약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산돌이 된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교회의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2:6)이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집을 짓는 산돌(지체)이 된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6)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나라(2:5),

5) 거룩한 제사로써의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신앙을 단련하는 용광로다(1:6-7; 4:12). 금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단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1:7).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잠시 당하는 것일 뿐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5:10).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입장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되고 구속을 받았듯이,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고난당함으로써 모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6. [설교]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벧전 4:1-11)

베드로전서는 박해를 언급한 서신입니다. 로마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받은 초기 박해로는 네로 황제 때에 로마 시에 국한된 박해가 있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트라야누스 황제 때에는 베드로전서가 보내진 지금의 터키 지역에도 기독교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로 때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베드로전서가 실루아노가 대필한 베드로의 서신으로 언급

되고 있어서 네로 황제 박해 때인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순교할 당시에는 이 서신이 보내어진 터키지역에는 주목할 만한 공개적인 박해가 없었습니다. 추측하기는 로마에서 비참한 박해를 겪고 배도하는 사람이 속출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터키지역에 사는 신앙인들에게 예상되는 박해에 직면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당부해 뉘야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거나 언제나 그러했듯이 로마당국이 개입된 직접적인 박해가 아니더라도 동족이나 친인척에게 당하는 크고 작은 박해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써 침례식 때의 설교입니다. 본문의 전반부는 죄와 불신자와의 관계청산을 당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한 것입니다.

첫째, 죄와 불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고 침례까지 받았으니, 육신의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자기네와 함께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해서 괴이하게 생각하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잘못들을 낱알이 털어놓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자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두 개의 설교로 나뉘집니다. 첫 번째 설교는 4장 11절까지로써 침례식 때의 설교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침례 받고 기독교인이 될 당시의 신앙적 결단과 감격을 되살려 주려는 목적에서 첨가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써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성도의 신분, 성도와 목자, 성도의 믿음, 성도의 구원, 성도의 삶, 성도의 고난 그리고 성도의 침례에 관한 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설명하는 위의 주제들에 대해서 차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성도의 신분은 “택하신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2:9)이며, “하나님의 백성”(2:10)입니다. 성도는 흠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과 거듭남을 받은 자들이고, 하늘나라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러워 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을 자들이며,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기까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입니다(1:1-5). 또 성도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4:10).

(2)성도의 목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며, 십자가에 죽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분입니다(2:21-25).

(3)성도의 믿음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는데, 불에 단련되어 나온 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고(1:7), 최종목표인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1:9).

(4)성도의 구원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던 것이고,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관심을 보였던 것이지만, 그들은 받아 누리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밝혀진 신비입니다(1:10-12).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른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며”(1:18-19),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며,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1:23).

(5)성도의 삶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는 삶이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광스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며(1:1-8), 흑암에서 불러 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입니다(2:9).

(6)성도의 침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써 이뤄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명뿐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 준 표였던 것입니다(3:20-21).

(7)첫 번째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은 상당히 많지만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고 하였고(1:13), “사욕을 본받지 말고”(1:14),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며”(1:15),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며”(1:17),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1:22)고 하였습니다. 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2:1-2)고 하였으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2:4-18, 3:1-12)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성도가 당할 고난에 대한 당부와 목회자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라는 권면과 성도들에게는 목회자인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부탁한 말씀입니다.

(1)성도의 고난은 용광로의 불처럼 단련하는 불길이 될 터인데, 그와 같은 시련의 불길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고, 오히려 기뻐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4:12-19).

(2)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부탁은 목회자인 장로들에게 주신 권면으로써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5:1-4).

(3)성도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은 목회자인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과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원수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정신차려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5:5-10).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입니다. 성도의 성격과 믿음의 가치를 확고하게 말씀해 주면서 고난을 잘 참고이길 것과 성도답게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자들이고, 불같은 시련을 당하여도 배도하지 않고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38절은 성서시대에 신앙인들이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악형들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이고, 칼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과 염소 가죽을 쓰고 맹수에 찢기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며,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숨어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천주교인들도 이에 못지않은 잔학한 박해를 당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교하면 준다고 밥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신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배고픔이요, 목마름이었습니다. 다른 형벌은 잘 이기고도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북 완주군 동상면 광암리에 있는 대아리 저수지에 있었던 속칭 고산 널바위에 살았던 김성철은 아들을 포함한 가족 6명과 마을사람 17명과 함께 체포되어 여산으로 끌려와 신문을 받고 나이 62세 때에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이들은 얼마나 혹형과 굶주림에 시달렸던지, 옷 속에 있는 숨을 뽑아 먹다가 풀밭인 처형지로 끌려 나오자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었다고 합니다.

둘째, 귀양살이였습니다.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에 처하고, 15세 이하의 자녀와 처는 노비로 삼으며, 시집가기로 약속된 여자는 친정으로 보냈고, 그 밖의 식솔들은 3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산을 몰수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육시형을 받았던 유항검의 큰아들 유중철은 동생 문석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고, 유항검의 처 신희는 함경도 경원부로, 여섯 살 난 아들 일석은 흑석도로, 세 살 난 일문은 강진 신지도로, 그리고 아홉 살 난 딸 섬이는 거제도로, 며느리 이순이는 평안도 벽동으로, 조카 중성은 함경도 회령으로, 유관검의 처 이육희는 평안도 위안으로 각각 보내져 노비로 삼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셋째, 고문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체포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것이 매질이었습니다. 해미에서는 교인들의 머리채를 묶어 나무(회화나무)에 매달아 매질하고, 활을 쏘았고, 커다란 돌다리 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팔다리를 들어 돌에 매치어 가슴이 터지도록 머리가 부서지도록 자리갓질을 했습니다.

원주감영에서 순교한 최해성은 어찌나 맞았던지, 다리뼈가 부서져 뺏조각 두 개가 땅에 떨어졌고, 등과 배에 구멍이 나서 창자가 빠져 나왔습니다.

13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수기를 낸 신태보는 주리를 트는 고문을 당하였는데, 다리뼈가 으스러지고 손발을 쓸 수 없게 되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문에 있어서 주리를 트는 것은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조카 정하상은 1839년 기해년 박해 때에 체포되어 그가 쓴 한국 최초의 기독교 변증서인 「상재상서」를 트집잡는 관헌들에게 몽둥이 끝으로 찢리고 톱질을 당한 끝에 뼈가 드러나는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합덕 사람 손자선은 공주감영에서 거꾸로 매달려 매를 맞고 얼굴에 인분까지 덮어쓰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늘 웃는 얼굴로 “고맙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때리다가 지쳐 “무엇이 고마우냐?”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와 같은 큰 죄인을 위하여 피를 많이 흘리고 목이 말라 가래침을 잡수시며 돌아가셨거늘, 나를 이 모양으로 대접하여 주니, 이제야말로 내 죄를 보속하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네 이빨로 네 살을 물어뜯지 않으면 배교한 것으로 여기고 놓아 주겠다”는 꼬임에도 “만 번을 죽어도 배교는 못하겠다.”면서 양팔을 한 입씩 물어뜯어 기절하기도 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넷째, 죽음이었습니다. 순교자들 가운데는 양쪽 귓바퀴에 화살이 꽂히고, 얼굴에 물을 뿌린 후에 횃가루를 발린 채로 참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교수형으로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거나 옥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우물에 빠뜨려 죽이는 경우가 많았고, 손을 뒤로 묶고, 얼굴에 물을 묻힌 한지를 얼굴에 몇 겹으로 발라 질식사키는 가혹한 도모지 방법으로 처형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주천변에 있는 초록바위터에서는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남종삼의 아들 남명희와 홍낙민의 손자 홍봉주의 아들이 15세 때에 수장되었습니다. 남종삼의 아들 남명희는 전라감사로부터 “너마저 죽으면 집안의 대가 끊기니 배교하라”는 권고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천지의 대군주이시고 대부모이신데 어찌 배교할 수 있겠습니까?”고 대답했다

고 합니다.

1801년 10월 24일 46세의 유항검은 전주 풍남문 밖에서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육시형을 당했습니다. 육시형이란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는 최대 극형으로서, 죄인을 일단 처형한 후에 그 시신을 머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의 순서로 여섯 토막을 내어 전국 각지로 보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형벌입니다.

황사영은 백서사건으로 체포되어 나이 27세 때에 사지를 찢기는 능지처참형을 받아 죽었습니다.

해미 여섯골에서는 많은 신앙인들이 한꺼번에 생매장 당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유해가 하나같이 선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홍주관아에서 원시장은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당한 후에 결박된 채로 물세례를 흠뻑 받고 성밖에 내버려져 얼어 죽었습니다.

충청북도 연풍에서는 원추형 돌구멍에 밧줄 올라미를 만들어 넣어 기독교인의 머리를 반대쪽에서 잡아당겨 머리가 돌구멍에 끼여 죽게 하였습니다.

1866년 보령 갈매못에서 참수를 당한 프랑스 신부 다블뤼 주교의 증언에 의하면, 젓먹이가 딸린 여인들이며 노인과 처녀들이 말씀을 듣고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손에 들고 다블뤼 주교가 거주했던 충남 합덕에서 가까운 신리교회로 3일, 6일 또는 8일씩 걸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잡히면 죽게 될 죽음을 무릅쓰고, 머나 먼 산길을 발이 붓고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것과 혹심한 추위와 눈보라를 무릅쓰고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밤이 맞도록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성서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기독교는 사교로 단정되었고, 국가정책은 사교를 말살하고 뿌리째 뽑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

던 믿음의 조상들은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수 백리 산길을 남몰래 걸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견디기 어려운 불같은 시험들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나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목숨보다 그토록 더 소중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거나 값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산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었고,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선배들의 신앙과 정신이 우리 후배들의 신앙과 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 베드로후서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

베드로후서는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고, 1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변화산의 예수님을 목격한 자로, 3장 1절에서는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낸다고 말함으로 써 본 서신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베드로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 박해 때인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며,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졌다.

베드로는 전서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했다면, 후서에서는 교회 내부에 침투한 이단자들을 경고하고 있다.

신앙인들은 언제나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첫째는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요, 둘째는 내부의 이단자들의 도전이었다.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이 이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초대교회에 가장 위협적인 이단자들은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나 율법의 준수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고,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육체를 악하게 보고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금욕을, 다른 일부는 방탕을 일삼는 자들이었다. 베드로가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단도 바로 이들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이었다.

베드로후서는 1장에서 진리 안에서의 성장을, 2장에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를, 3장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교훈하고 있다.

2. 베드로후서 집필 배경과 동기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다. 임박한 주의 재림이 예언되었으나 재림이 지연되자 재림사상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재림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방탕주의에 빠져 들었다. 그러한 이단자

들에게 저자는 종말론적인 경고를 던지면서 과거에는 물의 심판이 있었지만, 미래에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3:1-7).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미리 걱정해 놓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며 생각지 않을 때에 돌연이 올 것이다. 그 때에는 현세상이 완전히 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3:8-13). 그러므로 베드로후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갈 것을 권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3. 베드로후서의 장르

베드로후서는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편지의 서문은 있지만, 결미는 없고 송영으로 마친다. 따라서 편지라기보다는 유다서와 같이 성명서 또는 팸플릿, 교회 안에 등장한 거짓되고 부패한 교훈에 대하여 사도적 권위 있는 교훈으로 대항하는 논술서 또는 편지형태를 가진 설교 또는 권면의 편지라 할 수 있다.

4. 베드로후서의 문학적 구조

1) 유다서와의 관계

베드로후서는 유다서를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유다서는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그 가운데서 19절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타나 있다.

베드로후서는 사상, 문구와 어휘, 글의 순서에서 유다서와 상당히 비슷하다. 특히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8절과 유다서 4-13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3절과 유다서 17-18이 그러하다. 이런 유사점으로 보아 두 문서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한 것이 틀림없는 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드로후서가 유다서에 의존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두 문서가 다루고 있는 거짓 교사들도 동류의 이단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용	베드로후서	유다서
거짓교사들이 출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빙자한 방종한 생활을 한다는 예언	2:1,3b	4
타락한 천사	2:4	6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2:6	7
좋은 천사를 경멸하고 훼방함	2:10-11	8-9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2:12	10
발람의 이야기	2:15	11
애찬과 연회	2:13	12
물 없는 샘, 안개, 흑암	2:17	12b-13
교만한 말	2:18	16
주의 재림을 조롱	3:3-4	17-18
정욕으로 산다	2:10,12ff.,18	7f.,10,12,16

베드로후서 2장뿐만 아니라, 1장과 3장에서도 나타난다.

권면	1:5	3
진리를 생각나게 한다	1:12	5
마지막 인사말	3:14	24

2) 베드로후서의 내용분해

- 서문 1:1-2 인사
- A. 1:3-21 과거 사도들이 전수한 참된 지식
- a. 1:3-11 주제: 영원한 나라의 큰 약속에 근거한 신앙과 생활
- b. 1:12-18 사도들이 목격한 계시와 약속
- c. 1:19-21 성경에서 예언된 영감과 약속
- B. 2:1-22 현재 거짓 교사들의 멸망케 하는 거짓 지식
- a. 2:1-11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
- b. 2:12-19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종말
- c. 2:20-22 은혜의 도를 저버린 비극
- C. 3:1-17 미래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진실한 지식
- a. 3:1-10 세계 종말에 대한 올바른 지식
- b. 3:11-15a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생활

c. 3:15b-17 올바른 성서해석에 근거한 지식
결미 3:18 결론적 송영

5. 베드로후서의 신학

1)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자들

①이들은 성서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왜곡하여 해석하려는 습성이 있었다(1:20).

②이들은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2:1).

③이들은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름을 더럽혔다(2:2).

④이들은 탐욕으로써 교회를 이용하여 이를 얻는 자들이다(2:3).

⑤이들은 사람이라기보다 짐승에 가까운 자들이다(2:13-22).

⑥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조롱한다(3:3-15).

⑦이들은 도덕률폐기론자들이었다. 도덕률폐기론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이 끝났다는 것과 이제 남은 것은 은혜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께서 고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들이란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사랑이 각 사람 위에 지워주는 책임을 망각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받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망각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죄를 짓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 하여 그분을 위해서 살며 그분의 순전하심 같이 우리도 순전하게 되게 함이란 사실을 잊어버렸다.

2)참 지식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이다. 베드로후서는 거짓교사들이 저들의 지식을 자랑하는데 대해서 참 지식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베드로후서에는 지식이란 말이 16번이나 나타나 있다. 참 지식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를 아는 지식"을 말한다(2:20). 이 지식으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고(1:2),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된다(1:3).

3) 물의 심판(3:5-6)

만물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3:5).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창조에서(creative), 심판에서(executive), 구속에서(redemptive) 나타난다. 문제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 여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서 땅이 성립되었는데, 동시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물을 도구로 사용하신다(3:6). 따라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또한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야 한다.

4) 불의 심판(3:7)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동일한 능력의 말씀이 모든 죄악을 불로써 멸하신다(3:7).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는데(2:6), 다음에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큰불을 간수하고 계신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었다”(3:7b).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3:10).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3:12).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성서와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불 때 분명하다.

5) 하나님의 시간(3:8-9)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동일한 차원에서 생각할 수 없다. 물질은 신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므로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3:8).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해 놓고 계

실 뿐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천년에 가까운 930세를 살게 하셨다(창 5:5). 주의 강림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 오래 참지 않으신다. 그분이 정해놓으신(카이로스) 시간스케줄 때문이다.

6)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3:10a)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므로 주의 재림이 늦은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도적같이 주의 날이 홀연히, 예기치 않았을 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임한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3:10).

6. [설교]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벧후 1:1-11)

베드로후서는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고, 1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변화산의 예수님을 목격한 자로, 3장 1절에서는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낸다고 말함으로 써 본 서신의 저자가 베드로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 박해 때인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며,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1장 14절,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서와도 같은 글입니다.

베드로는 전서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했다면, 후서에서는 교회 내부에 침투한 이단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언제나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요, 둘째는 내부의 이단자들의 도전이었습니다.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이 이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들에 가장 위협적인 박해세력은 유대인들과 로마제국이었고, 가장 위협적인 이단세력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40-50년간의 기독교 박해는 대부분 유대인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붕괴되고, 그 이후 기독교세력이 점차 확장되면서부터는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네로 때 로마시 대화재 사건을 시점으로 국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주의는 할레나 율법의 준수가 구원에 필수라는 주장이었고, 영지주의는 물질 곧 세상과 육체를 악하게 보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 한 부류는 금욕주의를, 다른 부류는 방탕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단은 2장 2절과 18절에 나타난 대로 방탕주의를 표방할 뿐 아니라 주의 재림을 부정한 영지주의였습니다.

100년경에 기록된 책 가운데 『디다케』, 곧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도이후의 글일 뿐 아니라, 책 제목과는 달리 사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경에 들지 못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 빠진 내용들, 즉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신약성경이 집필되던 초대교회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 『디다케』가 기록되던 1세기 말과 2세기 초에는 이 교회 저 교회로 돌아다니는 떠돌이 순회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한 불박이 예언자들과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각 지역의 교회들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권위자들이 초기에 세운 장로들이 있었고, 이후 회중이 선출한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를 말하고, 집사는 목사를 돕는 봉사자를 말합니다. 장로의 역할은 크게 목양과 감독의 일로 나뉩니다. 그리고 떠돌이 순회 목회자들이 더 이상 필요치도 않고 활동하지도 않게 된 시기에는

감독이 장로보다 우위의 직위로 발전하여 감독은 오늘날의 담임목사 또는 교구책임자, 곧 감리사나 감독 또는 지방회장이나 노회장과 같은 직책을 수행하였고, 장로는 감독의 지도아래 있는 지교회를 맡아 담임하거나 감독이 있는 중앙교회의 부목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집사들은 물론 장로들을 돕는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집사직을 거쳐서 장로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천주교회나 성공회 또는 정교회와 같은 정통교회들에서는 감독을 주교, 장로를 사제, 집사를 부제 또는 보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이후로 사제 곧 장로를 목사로, 부제 곧 봉사자를 집사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언급된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앞서 설명한 떠돌이 순회목회자들 가운데 있었던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디다케』란 책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관해서는 복음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들 하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도는 마치 주님처럼 영접 받을 일입니다. 그는 그러나 하루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이틀을 머물러도 됩니다. 만일 사흘을 머물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떠날 때에는 (다른 곳에) 유숙할 때까지 (필요한) 빵 외에 (다른 것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영으로 말하는 모든 예언자를 여러분은 시험하거나 판단하지 마시오. 사실 모든 죄가 용서받겠지만,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써 밝혀질 것입니다. 식탁을 (마련하라고) 영으로 명하는 모든 예언자는 바로 그 식탁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만일 먹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예언자가 만일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인정받고 진실한 모든 예언자가 지상에서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심판받지 말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습니다. 그것은 옛 예언자들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영으로 말한다면 “내게 돈이나 다른 어떤 것을 주시오” 하거든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듣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빈궁한 이들을 위하여 달라고 하거든 아무도 그를 심판하지 마시오.

베드로후서는 1장에서 진리 안에서의 성장을, 2장에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를, 3장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신분을 설명한 글입니다.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며(1:1),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들이며(1:2),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곧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며(1:3),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1:4)고 하였습니다.

1장 4절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위와 같은 구원의 축복을 주신 목적을 설명한 글입니다. 그 목적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1:4b),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1:5-7)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일에 힘써야 할 이유를 설명한 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하여 열매를 맺고(1:8), 믿음의 걸음에서 실패치 않고(1:10),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은혜를 입도록 하려는 것(1:11)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성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라도 다시 상기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이와 같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1:16)을 확실히 믿고, 진리가 마치 햇볕이 떠오르듯이 마음에 밝히 깨달아질 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되 사사로이 풀지는 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단자는 2장 2절과 18절에 나타난 대로 방탕주의를 표방할 뿐 아니라 주의 재림을 부정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곧 세상과 육체를 하나님보다 못한 낮은 단계의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와 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 한 부류는 금욕주의를, 다른 부류는 방탕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가 악한 것이므로 금욕을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고, 방탕주의는 인간의 육체가 악한 것이므로 함부로 해도 좋다고 보아 음란한 행위를 일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바로 이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일컬어 2장 17절에서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핵심은 부활과 재림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출발이 다 그렇듯이, 기독교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죽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해답이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부활이 이뤄지는 시점을 주의 재림의 때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이뤄지는 구원은 이때에 이뤄질 약속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이 약속을 보증하고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뤄지는 모든 축복은 사실상 영적인 것입니다. 굳이 육체적인 것이 있다면, 병고침이나 기도응답과 같은 것들이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축복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과 주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점을 베드로는 3장 8절부터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후서는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록한 글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글을 통해서 신앙성장의 8 단계를 언급하였습니다. 비록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긴 하지만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언급되었습니다. 믿음에서 한 계단 발전한 단계가 덕입니다.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우애, 형제우애 위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큰 계명이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8이란 숫자는 기독교복음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성숙의 8단계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상위 단계인 사랑의 단계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십시오.

요한서신

1. 요한서신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

요한서신은 저자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목격자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

기록연대와 장소는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한일서는 편지라고는 하지만 전혀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수신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회람편지로 보아진다. 그러나 요한이서와 삼서는 분명한 서신의 형태로 되어 있고, 수신자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요한이서의 수신자는 “택함 받은 부인”인데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말일 것으로 이해된다. 요한삼서는 “가이오”에게 보내어진 개인 편지이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교회 안에 나타난 영지주의적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이들을 일컬어 “거짓 선지자,” 혹은 “미혹케 하는 자,”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으며, 도덕적으로 방탕하였고, 사랑의 실천이 없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며,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요한이서의 기록 목적은 거짓 교사와 진보주의자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은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지 말도록 권하고 있어서, 요한일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 한다면, 요한이서는 ‘사랑의 한계에 대한 서신’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

요한삼서는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편지로써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다.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무시하고 영접치 않는 자로써 본받아서는 안 될 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디메드리오

는 본받아야 할 자로 추천 받고 있다.

2. 요한서신 집필 배경과 동기

1) 요한일서의 집필 배경과 동기

요한일서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내적 갈등은 기독교론 때문이었다. 2장 18-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2:18-19).

여기서 이단자들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그들은 진리를 떠난 자들이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좇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요(4:1), 적그리스도이며(2:18; 4:3), 거짓말 하는 자들이며(2:22), 미혹케 하는 자들이다(2:26).

따라서 요한일서는 교회에 이단자들이 등장하여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을 흔들어놓고 있을 때에 그들로부터 미혹되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설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3:23).

3. 요한서신의 장르

요한일서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세 가지 정도로 나뉜다.

첫째, 요한일서를 편지로 보는 입장이다. 요한일서가 어려움에 처한 교회(2:19)와 독자의 사정을 잘 알고 그들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는 요한 계시록과 같이 아시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아

시아에서 제일 먼저 폴리캡이 요한일서를 인용하고 있다. 수신자들을 “나의 자녀들아”라는 말로 부르고 있고(2:1,7; 4:4), “내가 쓴다”는 말을 13번이나 쓰고 있다. 따라서 요한일서를 어느 특정 교회나 몇몇 교회에 보낸 회람편지, 목회서신, 권면의 편지로 여기기도 하였다.

둘째, 요한일서를 편지의 형태를 가진 신학적 논술로 보는 입장이다. 서문(1:1-4)과 결론(5:13-21)이 있긴 하지만, 편지의 서문이나 편지의 끝마감이 없다. 편지를 쓰는 저자나 수신인의 이름도 없고, 편지의 앞이나 뒤에 인사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저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 가인(3:12)을 제외한 인명과 역사적 사건과 지리적 연관성이 없으며 저자와 수신자와의 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독특한 설교 스타일의 권면 또는 목회설교라는 입장이다. 요한일서는 저자와 수신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적 신학논술이 아니다. 저자는 독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들에게 격려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저자는 영지주의자들이 진리에 어긋나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견책하며 경고하고, 교회에 남아 있는 자들의 정체성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이서와 삼서는 분명한 서신의 형태로 되어 있고, 수신자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요한이서의 수신자는 “택함 받은 부인”인데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말일 것으로 이해된다. 요한삼서는 “가이오”에게 보내어진 개인 편지이다.

4. 요한서신의 문학적 구조

1) 요한일서 내용분해

- | | |
|-------------|-----------------------|
| 1:1-4 | 서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심 |
| A. 1:5-2:27 |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
| a. 1:5-2:2 | 빛과 죄의 불가친성 |
| b. 2:3-11 | 참된 지식의 증거로 사랑의 계명의 준수 |
| c. 2:12-17 |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 |
| d. 2:18-27 |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경계 |
| B. 2:28-4:6 |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

· 132 · 공동서신의 메시지

- a. 2:28-3:10 소망을 가진 의인은 의롭게 삶
- b. 3:11-24 사랑의 계명을 행함
- c. 4:1-6 두 영을 시험하여야 함
- C. 4:7-5:12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 a. 4:7-21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사랑
- b. 5:1-12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참된 믿음
- 5:13-21 끝맺는 말

2)요한이서 내용분해

- A. 1-3 서문: 인사
- B. 4-11 본문
- a. 4-6 독자의 신앙을 칭찬
- b. 7-9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
- c. 10-11 이단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경고
- C. 12-13 마감

3)요한삼서 내용분해

- A. 1-2 서문: 인사
- B. 3-12 본문
- a. 3-8 순회 전도자를 환대한 가이오에게 감사
- b. 9-10 접대를 거절한 디오드레베를 공격
- c. 11-12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의 접대를 요청
- C. 13-15 마감

5. 요한일서의 신학

1)영지주의(gnosticism)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false prophets, 4:1), “미혹케 하는 자들”(deceivers, 2:26), “적그리스도”(antichrists, 2:18; 4:3)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영지주의는 죄를 설명하고 세상의 악과 고난을 해명하려는 시도였

다. 영지주의는 모든 물질은 전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악하며 영(靈)만이 선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나아가 물질과 영은 모두 영원하며 그것들은 태초로부터 그리고 태초 이전에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세계는 바로 이 악한 물질에서 생긴 것이며 따라서 태초부터 세상은 악한 물질, 즉 흠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가정은 또 다른 결론을 가져온다. 물질이 전적으로 악하고 영(靈)이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다면 그분은 물질을 만지거나 사용하실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참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실 수 없다. 모든 생성(生成)은 하나님이 일련의 에이온(aeon) 또는 유출작용을 통해서 내보내신 것이다. 각 유출은 신으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지고 신을 모르게 된다.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유출은 신과 무한히 멀어지고 무지하게 되며, 결국 신과 적대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멀어지고 무지하며 적대적인 유출이 세상의 창조자이다. 영지주의자들은 흔히 이 열등한 신을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시한다. 그들은 영이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신약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은 몇 가지 결론들을 갖는다. 모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도 악하며 특별히 육체도 악하다고 말한다. 만일 육체가 악하다면 성육신 같은 사건도 있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육을 입으실 수가 없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며 단지 실체가 없는 하나의 유령과 같은 것일 뿐이라고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으며 피와 육을 가진 참 사람이시라고 주장한다(4:2).

더욱이 육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면 어쨌든 지금보다 더 악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부도덕하게 살거나 육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어둠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사귀어 있노라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1:6).

영지주의를 그노시스주의(gnosticism)라 하는데, 그노시스(gnosis)는

영적 지식 또는 신비적 직관을 말하고, 그노스틱(gnostic)이란 단어는 지식을 자랑하는 지성인을 의미한다. 그노스틱주의자, 즉 영지주의자는 사람의 영혼을 악한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영의 불꽃으로 생각한다. 영혼은 육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신으로부터 유출된 모든 과정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식과 암호들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지식은 지식인만을 위한 것이요, 단순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비로운 지식에 오를 수 없다. 따라서 교제는 깨어지고 사람들도 그러한 종교를 지적으로 해득할 수 있는 자들과 단순하여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없는 자들로 분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형제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필요함을 되풀이해서 강조한다.

이와 같이 영지주의는 성육신을 파괴시키며 도덕과 참된 사귀를 깨뜨린다. 이 서신이 쓰인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2)하나님의 속성(Attributes of God)

요한일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네 가지 위대한 사실을 가르쳐 준다.

첫째,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1:5).

둘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2:29).

셋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4:8).

넷째, 하나님은 생명이시다(5:20).

3)시험의 잣대(Test of Fellowship)

첫째, 순종의 시험이 있었다(2:3-6; 3:10; 5:2).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누구든지 선한 일을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순종은 사랑의 증거요, 순종이 없는 곳에 참된 사랑도 없다.

둘째, 진리를 기꺼이 듣고자 하는가를 알아보는 시험이 있다(4:5-6).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러나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셋째, 사랑의 시험이 있다(2:11; 3:14-18; 4:7-12).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어둠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사랑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넷째, 영을 분별하는 시험이 있다(3:24; 4:13).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환상적인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우리가 살고 기동하는 환경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우리의 가는 길에 친구가 되어 주시는 인격이시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 위에 서있는가를 알아보는 시험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4:15). 어떤 인간적인 범주도 그것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에는 부적당하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가져야 할 범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됨에 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성육신을 믿어야 한다. 또한 예수님께서 육과 피를 가지고 사람이 되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4)예수님의 사역(Ministries of Jesus)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2:1).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다(2:2; 4:10).

셋째,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4:14).

6. [설교]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요일 1:1-10)

요한일서는 저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목격자로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기록연대와 장소는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편지라고는 하지만 전혀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수신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돌려 읽었던 회람편지로 믿어집니다.

요한일서의 기록목적은 ‘하나님과 사귄이 있는 자’가 마땅히 갖춰야할 몇 가지 중요한 덕목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모두가 “형제 사랑”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귄이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각 장별로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1장의 내용은 ‘사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귄,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귄,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사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우리가 귀로 들어왔던 분이고, 눈으로 보아왔던 분이며, 주목해왔던 분이고, 손으로 만져왔던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이 일찍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으며, 함께 먹고 마셨고 사귀었던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생각이나 머릿속에만 있고, 실제로는 없었던 그런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으로 소개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귄 속에 계시다가 인간세계에 나타나셨고, 죄인과 세리와 창녀를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과 사귄 속에 계셨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눈으로 확인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사귄 속에 계셨고, 이천 년 전 수많은 사람들과 사귄 속에 계셨던 예수님을 지금 여기

서 우리가 만나서 “사귄”을 가져야할 대상으로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야할 이유가 바로 인류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귄을 가져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와 같은 사귄의 축복 속에 있는 먼저 믿는 성도들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귄을 갖고, 또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도 사귄을 갖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 사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귄의 시간이고, 예수님과의 사귄의 시간이고, 성도들과의 사귄의 시간인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서에서는 어두움이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고난’을 상징합니다(시 112:4, 사 5:30, 애 4:8). 어두움은 ‘죄악’을 상징합니다(욥 18:6, 엡 5:11). 어두움은 ‘타락’을 상징합니다(롬 13:12). 어두움은 ‘미움’을 상징합니다(요일 2:9-10). 어두움은 ‘영적 소경’을 상징합니다(행 13:11).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합니다(욥 10:21-22). 어두움은 ‘지옥’을 상징합니다(마 22:13). 어두움은 사단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였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일을 본받아 빛의 일을 행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사귄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빛의 일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빛의 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의 권세에 직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혼돈과 공허를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빛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자주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세력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가는 경험들을 축적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귄은 지속될 것이요, 사람들과의 사귄도 지속되어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것이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빛의 일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축복이 동시에 이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귄”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의 사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2장의 내용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제 사랑”이 하나님과 사귀이 있다는 증거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을 “대언자”와 “화목제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이 있는 자는 죄를 범치 않는 자입니다. 만일 죄를 범했더라도 세상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를 주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3절부터 17절까지에서 ‘하나님과 사귀이 있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빛의 일입니다, 살림의 일입니다. 빛의 일과 살림의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빛의 일과 살림의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첫째 계명은 사랑이요, 둘째 계명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빛의 일을 하였고, 살림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는 소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18절부터 29절까지에서 ‘하나님과 사귀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며, 하나님과 사귀이 없는 자입니다.

제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습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이면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들어간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제4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 곧 ‘하나님께 속한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4장 7절부터 24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8)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15)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

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한 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4:7-24).

제5장의 내용은 1-4장까지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일곱 가지로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넷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입니다.

일곱째,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차 공활히 여기면서 사랑하기를 힘써서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란 인정을 받도록 합시다.

7. [설교]사랑의 한계(요이 1:1-13)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보낸 서신인데,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는 지역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말일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록 목적은 거짓 교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은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지 말도록 권하고 있어서, 요한일서를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들'의 '서로 사랑'에 대한 서신이라고 한다면, 요한이서는 '사랑의 한계'에 대한 서신이라고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목회자인 장로와 봉사자인 집사와 평신도인 성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성서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장로'는 목회자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사도 장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장로들은 치리나 관리보다는 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집사'는 문자적으로 보면, '봉사자', '일군', '청지기'란 뜻이기 때문에 평신도, 장로, 사도,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누구나 다 집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가 교직으로 인식된 역사적 과정에서는 '집사'가 목사인 '장로'를 돕는 자로, 목회를 보조하는 자로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사'는 오늘날의 '전도사', '준목', '강도사'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집사 목사'로까지 그 역할이 다양하게 변천해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교회 내의 모든 목사들을 설교와 교

육을 담당한 ‘목회 장로’로, 평신도 장로를 ‘치리 또는 관리 장로’로, ‘전도사’를 ‘목회 장로’를 돕는 자 또는 목회를 보조하는 자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권사’의 성서적 근거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말한 ‘늙은 여자’ 또는 ‘참 과부’에서 찾을 있습니다. 성서나 역사나 여성이 장로직이나 집사직을 수행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한 ‘늙은 여자’ 또는 ‘참 과부’들은 오늘날의 권사직에 해당되는 일들, 예를 들면, “항상 간구와 기도를”(딤후 5:5) 힘쓰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딤후 2:4)하는 일들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진 오늘날에는 남녀의 구별 없이 이 모든 교직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남녀 집사들이 연세가 많아진 후에도 장로직에 오르지 못할 경우, 남녀권사로 취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신도직인 ‘관리 장로,’ ‘권사,’ ‘집사’의 선출, 임기와 안수 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개교회나 교단이 법으로 정해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이서를 통해서 강조한 말씀은 교직자들 평신도든 피차 서로 사랑하고 이단자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서는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할 의무를 지닌 약속관계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부녀”란 말로써 표현될 수 있는데, “부녀”란 ‘숙녀’를 뜻합니다. 또 “부녀와 그의 자녀”로 표현된 교회와 성도는 택하심을 입는 자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인 장로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로써 이 “부녀와 그의 자녀” 곧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고, 교회와 성도는 목회자에게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살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 안에 행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계명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명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진

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랑은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이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7절), 곧 미혹하는 자들이며, 적그리스도들이인 이단자들은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였습니다. 사랑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건 없는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사랑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요한서신에 언급된 ‘서로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보다 열등하고 저급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에 비해서 ‘서로 사랑’과 ‘사랑의 한계’를 말한 요한서신의 사랑법은 월등하게 저급하다는 식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들 학자들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첫째, ‘자기애’라고 말할 수 있는 자공심과 자존감이 너무 강하거나 약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공주병과 왕자병에 걸린 사람은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애’가 적당하면 자공심과 자존감이 생기고, 지나치면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하며, 부족하면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둘째, 가까운 부모와 형제자매 또는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사랑하면서 일가친척과 교우들은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집밖에서 남들한테는 친절할 말, 좋은 말만 하면서, 집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는 가족과 교우들에게 거칠고 상처받을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아무리 사랑해서 그랬노라고 말해도, 사랑이 전혀 아니거나 사랑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은 '원수사랑'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조건적인 사랑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랑일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이란 말이 전혀 대가성이 없다는 뜻으로 쓰일 경우에도 그 사랑이 전혀 무가치하고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옳은 방법 또는 옳은 표현은 '먼저 사랑' 또는 '내리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가보다는 '먼저 사랑' 또는 '내리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지, 반드시 무조건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정의가 희생되지 않고 오히려 우대를 받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 뺨을 맞고 왼 뺨을 돌려 대면서 또 더 때리고 싶으면 더 때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이거나 무조건적인 사랑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정의로운 사랑은 아닙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매를 맞는 다든지, 믿음이나 전도나 정의를 위해서 박해나 시련을 겪는다면 목숨과도 맞바꿔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한 목적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고 견디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로 인해서 자존감이 세워지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불길처럼 솟아오른다면 잘하는 것이고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악행을 더욱 키우고 부추기는 것에 불과한 매우 불행한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싫은 것은 “싫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분명하게 자기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그와 같은 감정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불나비사랑’입니다. 불나비사랑방식은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죽음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때로 율법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실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들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 혹은 긍휼과 같은 행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정의로운 사랑을 결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혹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도와서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숨통을 조여 죽이는 행위들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고민 끝에 찾아낸 절묘한 방식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성품을 함께 지닌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사랑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어서 공존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살면, 정의가 죽고, 정의가 살면, 사랑이 죽기 쉽습니다. 사형제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죄 범한 인간을 살려주자니, 정의가 희생되고, 죄를 벌하고 징계하자니, 사랑이 희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범한 인간들을 용서하면서 또한 그들의 죄를 벌할 수는 없는가를 놓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한 하나님의 처방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벌했다는 측면에서 정의를 살리고, 인간을 용서했다는 측면에서 사랑을 살리며 또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는 인간을 살리는 더하기 표시가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랑과 사랑의 한계 모두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표시였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중요성은 에리히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밝힌 것처럼,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책임을 느끼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주고받는 데 있습니다. 굳이 한 가지를 더 첨부한다면, 사랑은 기술을 연마하듯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이뤄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경험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 평화가 있고,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 빛과 생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는 바울의 말씀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지 말라는 요한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8. [설교] 선한 것을 본받으라(요한삼서 1-12절)

요한삼서는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편지로써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무시

하고 영접치 않는 자로써 본받아서는 안 될 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데메드리오는 본받아야 할 자로 추천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송(宋)나라에 술을 만들어 파는 업주가 있었습니다. 술맛이 일품이었고, 고객에게 무척 친절하였지만, 술이 팔리지 않아 만들어 놓은 술이 변질되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업주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웃에 사는 양청(楊靑)이란 사람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가 답하기를, “자네 말이야, 집에서 사나운 개(猛犬)를 키우고 있지 않는가? 술을 사러간 고객에게 으르렁대고 물려고 덤비니, 누가 자네 집으로 술을 사러 가겠는가?”고 했다고 합니다.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회사든, 교회든, 국가든, 어느 크고 작은 집단이든 간에 사나운 개가 버티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않게 되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오드레베가 바로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사나운 개였던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란 ‘양육 받음’이란 뜻인데, 그는 양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할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금치 못한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의 선행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 권면이 요한삼서의 기록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삼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요한삼서의 수신자이며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가이오는 요한으로부터 삼박자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한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으로부터 이런 지극한 사랑과 축복기도를

받은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고 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은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영적인 자녀를 말합니다.

가이오는 사도요 목회자요 장로인 요한을 매우 기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치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떠돌이 순회전도자들과 나그네 된 자들에게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본문 5-6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이오의 선행은 순회전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 알려지게 되었고, 사도 요한도 그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굳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선행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당신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행하신 선행들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하늘의 음성과 귀신의 입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송을 받았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할 뿐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본문 7-8절에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순회전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목회자와 전도자와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는 일로써 목회자의 일에, 전도자의 일에, 선교사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발전을 저해하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사나운 개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란 ‘양육 받음’이란 뜻인데, 그는 양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 할 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디오드레베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10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위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 도다”고 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으뜸되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동기와 방법이 나빴을 경우일 것입니다. 고객이나 동료를 향해서 으르렁대고 물어 찢으려고 사정없이 덤비는 사나운 개와 같은 경우일 때가 으뜸되기가 나쁜 경우입니다. 요즘 경영에서의 화두는 ‘최고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도 교회도 회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고가 되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가 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와 같은 최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가짜 최고 브랜드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인 최고 브랜드를 모방한 가

짜 최고 브랜드라 할 수 있습니다. 양의 가족을 쓴 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으뜸 되기는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앞에서 가짜는 반드시 가짜란 사실이 드러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판치는 집단은 앞서 한비자의 글에서 으르렁대는 사나운 개 때문에 술집이 망하는 것처럼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0장 26-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3장 10-12절에서는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 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의 것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이나 남의 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 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항상 자신이나 자신의 것에 대해서 부족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만에 빠지지 않고 부단히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익은 곡식 사이에서 고개를 쳐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쪽정이거나 가라지일 것입니다. 가짜가 언제나 큰소리 치고 가짜가 언제나 고개를 쳐드는 법이니까요. 따라서 참 지도자의 모습은 겸손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사도요 목회자요 장로인 요한을 멸시하고 접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주의 종들을 악한 말로 중상모략하였고, 접대하지 못하도록 훼방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꾀론하고도 유위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고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오드레베는 반드시 그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본문 10-11절에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다.”고 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앞서 언급한 가이오처럼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자였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은 데메드리오가 그 일로 못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사도 요한과 그의 일행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의 선행을 본받으라는 취지로 요한삼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첫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13절).

둘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입니다(15절).

셋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사랑과 믿음은 버리는 자입니다(23절).

넷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입니다(25절).

다섯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입니다(27절).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회사에 있으면, 회사를 떠나는 인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이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그들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거나 성경의 권위와 변화의 능력마저 무시하는 건 스스로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유명브랜드의 일류상품이라고 가정해 보시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가짜요 모조품이 됩니다. 가짜가 극성을 부린다고 해서 진짜인 유명브랜드를 닮으면서 유명브랜드를 가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일부 잘못된 신앙인과 교회들을 닮으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비방하는 인물들은 그들이 누구건 간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아니면, 10절의 말씀처럼, 고의적으로 악한 말로 망령되어 꾀하하며 무시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가짜를 보고서 진짜를 꾀하한다고 진짜가 가짜가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잘못된 인물이 아닌지, 값싼 은혜와 값싼 신앙에 젖어 잘못된 삶을 사는 가짜 신앙인이 아닌지 반성하고, 채찍질하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을 뵈올 수 없을 뿐 아니라, 끝내는 저주의 불 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고, 참되신 하나님을 부단히 찾는다면, 그분으로부터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란 말을 들을 뿐 아니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 154 · 공동서신의 메시지

육신이 건강하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삼박자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
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 유다서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

유다서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거짓교사들과 그들의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이었다. 유다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유다서는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구약의 인물과 외경인 『모세의 승천기』나 외경 『에녹서』를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유다서는 유다가 순회하며 설교했던 한 유대인 교회 공동체에 보내어진 서신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유다서 집필 배경과 동기

유다서는 “가만히 들어온” 방탕한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목적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다.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것을 죄악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3. 유다서의 장르

유다서는 첫 부분과 마지막 결미에 편지의 형태를 취한 권면의 편지이다. “부르심을 입은 자”(1절), “사랑하는 자들”(3,17,20절)에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따라서 유다서는 이단자에게 기독교 진리를 천명하는 신학적 논술로 읽기보다는 교인들이 신앙과 생활을 바로 지키도록 권면하는 편지로 읽어야 한다.

4. 유다서의 문학적 구조

1)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의 문학적 관계

유다서 4-18절과 베드로후서 2장 1-18절과 3장 1-3절이 같다.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어휘뿐 아니라 순서까지도 일치한다. 타락한 천

사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유 6, 벨후 2:4-5),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고(유 7, 벨후 2:6), 유다서에 없는 베드로후서 2장 7-9절에 이어서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유 8-9, 벨후 2:10-11).

구약의 예증도 같다. 유다서 5-7절에서 광야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타락한 천사와 소돔과 고모라의 예증이 베드로후서 2장 4-6절에서는 타락한 천사와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구약성서의 순서를 따른 것이 다를 뿐이다.

구약성서 외경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같다. 유다서 6-7절은 에녹서 12장 4절과 10장 4절을, 유다서 9절에서는 모세의 승천기를, 유다서 12-13절은 에녹서 18장 11절 이하와 21장 3절을, 유다서 14-15절은 에녹서 1장 9절과 60장 8절을 사용한 반면에, 베드로후서는 2장 11절에서 모세의 승천기를,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는 에녹서 18장 11절 이하와 21장 3절을 사용하였다.

문학적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유다서가 간략하므로 베드로후서를 요약했다고 보는 입장과 둘째는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사용하여 보충했다는 입장, 그리고 셋째는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 공통자료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세 가지 입장 가운데 대체로 학자들은 유다서가 원본이고 베드로후서가 자료로 사용하여 보충하였다는 입장을 취한다.

2) 유다서의 내용분해

- | | |
|---------|--------------------------------|
| 1-2 | 인사 |
| A. 3-4 | 서론: 본서를 쓰게 된 계기와 주제 |
| a. 3 | 신앙을 지키라는 권면 |
| b. 4 | 그 이유: 거짓교사들의 성격과 실상 |
| B. 5-23 | 본문 |
| a. 5-19 | 그 배경: 불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네 가지 예증 |
| a) 5-10 | 구약의 세 가지 예증.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의 대결 |

b)1-13	구약의 세 가지 예증
c)14-16	예녹서와 그 해석
d)17-19	사도들의 예언과 해석
b. 20-23	권면
24-25	결론적 송영

5. 유다서의 신학

1) 유다서의 이단자들

유다서 4절은 다음과 같이 이단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4절).

이 말씀을 근거로 유다서에 언급된 이단자들은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교회에 찾아들어온 이단자들이며 다수이다. 그들을 목자로 언급한 것을 보면 그들은 떠돌이 전도자들이다(12절).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꾼 자들은 방종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사는 자들이었다(10절).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다.

넷째, 이 이단은 이원론의 사고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홀로 하나이신 주재”(4절)라는 말씀이나 마지막 축도에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25절)에서 “홀로”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상의 세계에 여러 신들의 계층이 있다고 여긴 자들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을 고등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보지 않고 열등한 신이 창조한 것으로 보았다.

2) 큰 날의 심판

유다서는 이단을 철저히 배격한 단호한 입장 때문에 그 공헌도를 인정받고 있다.

유다서는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의 정체와 그들의 종국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지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겠는가를 가르쳐 준다. 이런 맥락에서 신학자 차일즈는 “유다서는 교회 안에서 차차 고개를 드는 반율법주의에 대항하여 묵시문학의 형태를 재삼 강조하여 싸움으로 영지주의 경향으로 신앙이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서는 이단의 현상에 대처하여 신학적으로 논하지 역사적으로 특정한 이단의 형태를 논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유다서는 묵시문학적 체계 속에서 그의 신학적 입장을 피력하고 또 신앙을 지키고 잘못된 행동과 사상을 배격한다. 유다서는 신구약 중간사의 유대교의 묵시문학을 많이 사용하고 직접 인용하는 신약성서에서 유일한 성경이다. 9절에서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논쟁하였다는 말쑼은 모세의 승천기에 나타나는 일화이다. 14-15절,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는 에녹서 1장 9절을 거의 문자적으로 인용한다.

유다서는 유대교의 묵시문학뿐 아니라, “말세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고 예언한 초대교회의 묵시문학적 전승을 이어 받는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17-18절).

유다서는 중심 주제가 구원이다(3,23,21절 영생).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3절)라고 하였다. 이는 저자가 본래 기독교의 중심주제인 구원에 관해서 언급하려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유다서는 이단의 정체와 그들의 마지막을 논한 뒤에 21절에 “하나님의 사

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6절). 그 날에는 주께서 수만의 천군천사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4절).

마지막으로 유다서는 “큰 날의 심판”에 대비해서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위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한다.

6. [설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유 1:1-4)

유다서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거짓교사들과 그들의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유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유다서는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구약의 인물과 외경인 『모세의 승천기』나 외경 『에녹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서는 유다가 순회하며 설교했던 한 유대인 교회 공동체에 보내어진 서신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가만히 들어온” 방탕한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목적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것을 죄악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서는 비록 짧은 글이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네 명의 이복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마 13:55). 이들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요 7:5).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사건과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이후의 일인 듯싶습니다.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교회의 최고지도자로(행 15:13) 부상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란 표현을 썼고, 2장 11-12절에서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자리를 피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신약성서 야고보서가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이복동생들 가운데 막내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이복형제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랬고(약 1:1), 유다(유 1:1)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요 7:5). 그러던 그들이 어떻게 또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의 친 형님을 어떻게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실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어머니를 모신 혈육으로써 어떻게 예수님을 일컬어 주님이라 말할 수 있고, 자신들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낮춰 말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는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야고보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더 이상 혈육이 아니라, 신앙과 순종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허구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입증하는 상황증거인 것입니다. 남이 아닌 친형제들이 그것도 한 때는 전혀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였음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만든 명백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다서에 나타난 성도들에 관한 호칭입니다. 유다서 1절은 성도를 세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르심을 입은 자”란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옛날 조정에서는 세자비를 고르는 일을 간택(揀擇)이라고 하였습니다. 골라 뽑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서 뽑은 자란 뜻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매우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주실 자를 이미 만세전에 간택하셨고, 간택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얻은 자’란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자란 뜻입니다. 옛날 조정에서는 세자비로 뽑힌 자가 시아버지인 임금과 남편인 세자 모두로부터 사랑을 입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압니다. 정권의 쟁탈과 갈등의 틈새에서 있었던 세자비로서 임금과 세자 모두로부터 사랑을 입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듬뿍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란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일전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인질사건에서 러시아 당국은 인질범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1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국가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지켜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지키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의 충만함까지 빌어 주었습니다.

셋째, 유다서에 나타난 구원과 믿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차별 없이 함께 나눈 구원’으로, 믿음을 ‘단번에 결정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은혜요, 값이 없기 때문에 은혜이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소중한 믿음과 구원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밝혀진 유다서의 기록목적은 이 구원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한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유다서에 언급된 이단자들은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부정하였고, 육체를 악하게 생각하면서도 금욕하기보다는 음란을 일삼는 타락한 무리였습니다. 이 타락한 무리에게 유다서는 엄중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무리에게 저주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과거의 사례들을 들어서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집트에서 구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했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던짐을 당했고, 간음과 동성애의 극한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들은 불과 유황과 연기로 멸망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자들은 꿈꾸는 자들처럼 그들의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방한다고 하였습니다(5-8절). 이들 이단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 때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15절).

두 번째로는 세 명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경고하였습니다. 11절에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샅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고 하였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여 아벨을 살해한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

여 해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발람은 발락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였고, 올무를 놓아 우상을 숭배하게 할뿐 아니라 음란에 빠지게 하여 멸망당하게 하였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에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고라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모세를 대적하였다가 지진에 삼킴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의 행동을 10절에서는 이성 없는 자들의 행동, 짐승 같은 행동, 본능에 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자들은 장차 큰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단자들의 해악성을 들어서 경고하였습니다. 12-13절에서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의 멋들어진 시어(詩語)들로 이단자들의 해악성을 열거하였습니다. 애찬의 암초,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나무,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깊은 흑암의 구덩이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이것이 이단자들의 운명이요 숙명이요 결국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의 죄악성을 들어 경고하였습니다. 16절에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利)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은 잘못된 교리에 빠져 그것을 누룩처럼 퍼뜨리는 자들만이 이단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물을 흐려놓고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행악자들 또한 이단자들의 범주에 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유다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려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욕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17-19절).

마지막으로 유다서에는 우리 성도들이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매우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 결론부분 20절부터 25절까지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사설은 안 됩니다. 사도들이 주께 받아서 전해준 신약성서의 가르침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성서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과 행동 곧 믿음과 실천은 신약성서가 가르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시대는 성령시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구원과 관련된 모든 약속의 보증이시며 인침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교리적인 이단사상과 윤리적인 부패와 부도덕과 모든 적대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질 날이 멀지 않음을 굳게 믿고서 영생의 복이 이뤄질 그리스도의 공훈의 날을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세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에서 사람을 끌어내듯이 영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의무감을 가지고 구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옷을 싫어하듯이 영육이 더러워진 이들의 더러움을 멀리하되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건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며,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24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25절).

참고서적(Bibliography)

- 권오현. 『공동서신』 대한기독교서회, 1998.
김득중. 『신약성서개론』 컨콜디아사, 1989.
김철손 외. 『신약성서개론』 기독교서회, 1972.
노르만 페린, 데니스 둘링. 『새로운 신약성서개론』 박익수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1991.
변홍규. 『성서개론』 한국기독교문화원, 1994.
전경연 외. 『신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1971.
정훈택. 『신약개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 A. M. 헌터. 『신약성서개론』 박창환 역. 컨콜디아사, 1989.
G. E. 래드. 『신약신학』 이창우 옮김. 성광문화사, 1988.
윌리엄 바클레이. 『신약성서의 주요 메시지』 신성종 옮김. 컨콜디아사, 1995.
- Barclay, William. *The Letters of James and Peter*. The Westminster Press, 1976.
Barclay, William. *The Letters of John and Jude*. The Westminster Press, 1976.
Guthrie, Donald. *The Letter to the Hebrews*. Inter-Varsity Press, 1983.
Irving, Roy. Ed. *Studies in Hebrews*. Scripture Press Publications, Inc., 1984.

부록

1. 타르타로스: 물과 물 바깥 해변에 대한 성서의 의미들(조동호 교수)

[성구]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벧후 2:4).

성서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의 세계나 지하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물 바깥 곧 해변은 구원을 상징한다. 성경에서는 물론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조차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물 바깥 해변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에는 물에서 구원받은 사건들이 적지 않고 기독교 침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이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집트를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홍해를 죽음의 바다로,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 받음으로, 광야를 교회로, 광야에서 먹고 마신 만나와 반석의 물을 주의 만찬으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요, 가나안복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약성경의 해석방법을 신학에서는 모형론 혹은 유형론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에서 침례를 행할 때 물에 들어가 물속에 잠기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물이 죄 씻음을 의미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며,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라고 말하며 침례의 모형으로 설명하였고, 로마서 6장 3-4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는데, 침례식에서의 물이 죽음 또는 죽음의 세계를 상징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들이다.

성경에서 물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고백이다. 노아의 여덟 식구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으며, 요나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수차례 건짐을 받고 있고, 계시록 15장 24절에 언급된 하늘 보좌 앞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선 성도들도 홍해 또는 소돔과 고모라를 삼켰던 불바다 또는 박해로 상징되는 죽음의 바다를 건넌 후에 바닷가에 서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모세의 노래’ 또는 ‘어린양의 노래’였다(출 15장 참고). 또 계시록 13장을 보면,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탄압하는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시 바다는 죽음의 세계 또는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제국을 상징한다.

그리스신화에서도 죽음의 세계인 하데스(음부의 세계)에 이르는 길을 아케론 강으로 표현하고 있고, 지하세계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개의 강들을 건너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신화에는 회한의 흐름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참혹한 비통의 강인 아케론 강, 깊고 검은 시름의 강인 코퀴토스 강, 용솟음치는 불길의 폭포가 분노로 이글거리는 불의 강인 플레게톤 강, 이승의 일은 까맣게 잊고 저승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망각의 강인 레테 강, 혼령들이 이승의 추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레테 강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레테 강은 종종 추억의 해독제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오의 강으로 알려진 스틱스 강이 있다. 이들 강들은 한결같이 인간을 죽음의 세계인 지하세계 곧 하데스로 인도하는 강들이다. 사람이 죽어서 저승 땅에 이르러 하데스의 궁전에 들어가자면 이들 강들을 모두 건너야 한다. 하데스 곧 지하의 세계 또는 죽음의 세계는 대장장이의 망치받이 모루를 떨어뜨리면 아흐레 밤 아흐레 낮 동안 떨어져야 이를 수 있을 만큼 땅속 아주 깊은 곳에 있다고 한다.

이 강들 중에서 비통의 강인 아케론 강은 지상에서 저승으로 흘러들어갔다가 다시 흘러나오는 강으로써 사람이 하데스의 오른팔이자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죽음이란 뜻)의 손아귀에 붙들리면 이 아케론 강을 건너야 하는데, 일찍이 헤라클레스 이외에는 타나토스의 손아귀 힘을 꺾은 영웅이 없었다고 한다. 헤라클레스는 타나토스의 멍살을 잡고 타나토스를 혼쭐을 내줬다고 하니까, 헤라클레스는 죽음도 이긴 영웅이었을 뿐 아니라, 죽음의 세계인 하데스에 들어갔다가 하데스의 궁전을 지키고 있는 얼굴이 세 개인 뱀 대가리 혀를 가진 무시한 케르베로스를 무찌를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다. 어찌됐든 사람이 죽으면 비통의 강인 아케론 강을 가장 먼저 건너야 하는데, 이 강에는 카론이라는 뱃사공 영감이 있다. 이 영감은 바닥이 없는 소가죽 배로 혼령들을 강 건너 쪽, 즉 피안으로 실어다 준다. 그런데 이 소가죽 배를 얻어 타려면 적어도 엽전한 닢이라도 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입에다 꼭 엽전한 닢을 넣는다고 한다.

아케론 강을 건너면 그 갈래인 코퀴토스 강, 즉 시름의 강이 나오고, 이 시름의 강을 건너면 플레게톤 강, 즉 불의 강이 나오고, 이 불의 강을 건너면, 레테 강, 즉 망각의 강이 나온다. 이 망각의 강을 건너면 별판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낙원의 들판인 엘뤼시온(Elusion)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무한 지옥인 타르타로스(Tartaros)가 나온다. 타르타로스에는 많은 죄인들이 벌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탄탈로스는 물속에 몸을 잠그고 있는데도 영원히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 탄탈로스가 마시려고 입을 대면 물이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익시온은 영원히 도는 불바퀴에 매달려 비명을 지르고 있다. 티튀오스는 독수리의 부리에 살을 파 먹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다나오스의 딸들은 밑 빠진 독에다 영원토록 물을 길어다 부어야 하며, 시쉬포스는 산꼭대기로 바위를 굴러 올리고 있는데, 바위는 산꼭대기에만 이르면 다시 굴러 내려오기 때문에 시쉬포스는 영원토록 그 바위와 씨름해야한다. 죄지은 이들의 이런 종류의 고통들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타르타로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화이기는 하지만, 타르타로스(음부 곧 지옥)는 사람이 갈 곳이 못되는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점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처럼 물은 흑암과 죽음을 상징한다. 그 반대로 해변은 빛과 구원을, 환언하면, 해변은 흑암과 죽음의 터널을 벗어나 부활한 자들이 밝고 안전한 곳에 도달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상징되는 물은 빛과 환희의 세계인 구원의 해변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죄악된 세상이 어둠의 터널이요 흑암과 죽음의 바다라면, 그것은 새 생명을 위한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활은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 빛과 환희의 세계에 도달한 것과 같고, 태아가 출산됨으로 어둡고 출렁이는 파도의 세계를 벗어나 빛의 세계로 나온 것과 같은 것이다. 또 부활은 요나가 어둡고 무덤 속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와 빛의 세계 해변에 이른 것과 같고, 칠혹처럼 캄캄한 밤에 폭풍을 만나 죽음에 직면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동터오는 미명에 갈릴리 해변에 다다른 것과도 같은 것이다.

2.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최종태 교수)

[성구]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벧전 3:19).

[성구]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벧전 4:6).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신 상태에서 지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던가? 여러 방식의 해석이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곧 아벨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라 하였다 (And by faith he still speaks, even though he is dead).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였다(창 6:10: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소리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무언의 설교로 전달되었다.

둘째 해석은, 예수님의 시신(屍身)이 무덤에 있던 그 사흘간에 영으로 지옥에 가서서 선포하셨다는 의미로 파악한다. 즉 사도행전 2장 27절의 말씀대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For you will not abandon my soul to Hades), 예수께서 죽음 당하신 그 사흘간 ‘음부에 내려가셨다’(Descensus ad Inferos)고 한다(마 27:52-53, 눅 23:43, 엡 4:9 참조). 이 해석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노아의 설교를 들었으나 지금은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고자 증거하셨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며(히 9:27), 다시 복음을 듣는 기회는 불가능하다(눅 16:26)는 성경적 진리와 상충된다. 즉 자리 이동, 음부에서 낙원으로, 혹은 그 반대의 자리 이동은 불가능하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복음 증거의 결정적 성격을 말씀하길,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였다. ‘정죄를 받다’란 영원 사망 선고로 받는 것을 지시한다.

셋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노아 당대에 타락한 천사들에게 “노아를 통하여” 증거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벧후 2:5).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함께 하셨다(벧전 3:18).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하여 증거하셨을 때, 그 영들은 지상에 거하였고, 타락한 천사들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즈음에는 그들은 지옥에 던져진 상태였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노아시대에 증거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수사학에서 prolepsis(예기적 표시)라 부른다. 한 표

현에 두 시대의 사건들을 하나로 통합시킨다.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은 경북 구미에서 출생했다고 한다. 구미에서 출생했을 때 그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현재적 사실을 이전의 사실과 결합시킨다. 설교는 노아를 통하여 '과거'에 되어졌지만,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은 현재 '지옥'에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해석에 의하면, 옥에 있는 영들이란 다른 아닌 사탄에 매인 불신자들을 지시한다. 이사야 61장 1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길,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is 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freedom for the captives and release from darkness for the prisoners)라 하였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에서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to open eyes that are blind, to free captives from prison and to release from the dungeon those who sit in darkness)고 하였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당대 사탄에게 매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한다. 그러나 이 해석도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사탄에 묶인 불신자들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근거가 좀 부족해 보인다.

다섯째 해석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음부’에(“풀라케”는 계시록 18장 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용되는데, 귀신들이 감금된 장소를 지시한다) 내려가시어 구약 성도들을 낙원으로 인도하셨다고 이해한다. 그렇지만, 구약 성도들이 ‘음부’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 히브리서 11장 5,16,40, 12장 23절 등을 참조해 보라.

이런 저런 해석들이 수도 없이 제안되었다. 이제 우리의 해석을 제시해야 할 차례이다. 우선 육으로/ 영으로 라는 대조적 표현을 고

찰해 본다. 육으로/ 영으로 란 대조는 로마서 1장 3-4절에서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나오는 육과 영의 대비와 유사하게 보인다. 이런 육과 영의 대비는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의 육과 영의 대비와는 차원이 다르다. 로마서 8장에서 육은 불신자의 전 인격을 부패한 본성 곧 “육”(사룩스)으로 규정하고, 반면 “영”은 성령님이 지배하는 성도의 전 인격을 지시한다. 반면 여기 그리스도에 관하여 “육으로” 혹은 “영으로”란 대비는 그런 부패성과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는 인격과 다른 영육의 대비이다. 여기서 육이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의 존재 방식을 지시한다면, 영으로 란 그가 부활하신 영적 몸을 지닌 상태를 지시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영(혼)”은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자신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다”란 말은 “그가 부활한 그 신령한 몸의 상태로”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하여” 선포하셨다는 해석은 견지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활의 몸으로 그분은 가셨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 호 카이 토이스 엔 풀라케 프누마신 포리우테이스 에케룩센”인데, NIV, KJV, NAB, NRSV 등은 “영으로 또한 그가 가서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시다”로 번역했다. 한역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라고 했다. 여기서 “또한”(also)으로 kai를 읽지 않고 “심지어”(even)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영으로 그가 ‘심지어’ 옥의 영들에게까지 선포하셨다.” 베드로전서 4장 22절에서 베드로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라고 하여, 예수님의 통치권이 우주적임을 암시한다면, 여기서는 복음 증거의 범위가 우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지시하는가?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란 표현이 있긴 해도, 성경은 죽은 자들을 “영들”이라 칭하지 않는다. 보통 “영들”이라 함은 “천

사들"이나 "귀신들"을 지시한다. 여기서도 "귀신들"을 지칭한다고 보인다. 이들은 20절에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 . .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들은 노아시대에 불순종한 그 악령들을 지시한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묘사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유대인 번역 성경 (TNK)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적 존재들" (the divine beings) 곧 '천사들'이라 번역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자들"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의 '천사'를 지시하고 있다(욥 1:6, 2:1, 38:7).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곧 마태복음 22장 30절("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에 근거하여, 천사가 어떻게 사람과 결혼하느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천사들이 결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아니 하고' 산다는 의미로 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다서에서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7절) 라고 하여 천사들이 타락하여 음행하였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유다서 7절에서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 "저희"는 바로 6절에서 언급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지시한다. 즉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 곧 아드마, 스보임 같은 도시 사람들(창 14:8, 신 29:23)이 타락한 천사들처럼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동성연애를 하다가) 결국 유황 불비에 멸망하였다는 것이다. 영어역(NRSV)을 보면, 이 부분이 보다 분명 해진다: Likewise, Sodom and Gomorrah and the surrounding cities, which, in the same manner as they, indulged in sexual immorality and pursued unnatural lust, serve as an example by undergoing a punishment of eternal fire(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이, 그들과 [타락한 천사들] 같은 방식으로, 성적 음행을 탐닉하고, 부자연스러운 욕정[동성애]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당함으로 경고[데이그마]로 작용하느니

라).

이 타락한 천사들의 결혼에서 태어난 자들이 거인들[네피림]이다. 이들은 고대의 “유명한 자들” 혹은 “영웅들”(학깁보림)이라 불렸다(창 6:4).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까닭에, 지옥의 타는 불에 가두셨다(유 6, 벰후 2:4, 5).

그렇다면,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던가?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말할 것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신 인류의 구원 소식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가? 그것은 22절에서 “그가 하늘로 들어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할 때, 그가 “(하늘로 들어) ‘가셨다’”는 것은 “승천”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면, 19절의 “가셔서” 선포하신 것은 곧 “승천(昇天)” 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된다. 19절이나 22절은 모두 “가다” (포류테이스, ‘포류오마이’의 aorist 수동태 deponent 주격 남성 단수 분사형)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지지해 주는 구절은 에베소서 4장 8절(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다. 특히 이 골로새서 2장 15절은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하시고, 그것들 [악령들]을 온 천하에 구경거리로 만드는, 십자가로 승리의 개선행진을 하셨다)로 이해한다(despoiling the principalities and the powers,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leading them away in triumph by it, NAB). 로마의 개선장군이 잡힌 포로들을 이끌고 환영하는 인파들 앞을 통과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묘사이다. 예수님의 승천(昇天)이 바로 영적 세계에서는 거대한 개선 행진이었다. 그분의 개선 행진 소식이 옥에 갇힌 불순종의 영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했을 리 만무하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

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딤후 3:16).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과 승천 사실 자체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선포”의 사건이었다. 마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시 19:1-4)에서처럼 누가 전파하지 않았다 해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개선 행진 사건의 소문은 영적 세계에 짙게 퍼졌다.

이제 남은 문제는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이다(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어거스틴, 루터는 여기 “죽은 자들”은 지금 현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지시한다고 이해한다(엡 2:1, 골 2:13). 이런 노선에 따라, 죽은 이후에는 도무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정통신학이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는 5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란 표현을 이미 사용하여, 6절의 “죽은 자”가 ‘영적’ 죽은 자가 아님을 분명히 말한 바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5, 6절에서 “죽은 자”(네크로스)가 육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속사도 시대 교부들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믿었던 모양이다(고전 15:29 참조). 마찬가지로 오늘날 몰몬교도들은 죽은 이후의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몰몬교도들은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요셉 스미스 자기네 교주가 진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죽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죽은 자들이 죽어 내려간 음부에서 몰몬교 진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회를 얻는다? 참 맹랑한 소리를 해댄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26절), 하늘과 지옥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바 없다. 이를 베드로가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무슨 의미인가? 원문을 살펴보면, “에이스 투토 가르 카이 네크로이스 유앵겔리스테, 히나 크리토시 멘 카타 안트로푸스 사르키 조시 데 카타 테온 트류마티”인데, 헬라어를 모른다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심판을 당하다”와 “살다”란 동사는 각기 가정법 aorist와 가정법 present 시제로, 곧 부정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로 달리 제시되고 있다. 부정과거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을 지시하나, 현재 시제는 반복하여 일어나는 사건을 지시한다. 다시 말해, 심판을 당한 것은 과거 사건으로 한 번 일어났다. 그러나 사는 일은 영원히 산다.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원수들의 손에 한 번 재판을 받아 육적으로(죽임을 당했으나), 그들은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생전에 듣고 믿은 자들이 [지금 - 이 말은 원문에 없지만 보충한다] 죽은 자들이다) 복음이 “전파 되었었다”(유앵겔리스테, 직설법 부정과거). 즉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지금”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전파 되었었다.”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은 생전에 복음을 듣고 믿었던 자들을 지시한다는 것이 문맥상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은 무슨 의미일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마카비2서 12장 40절에서 유사한 문구가 나온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 받는다는 문구를 꼭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껏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설명을 해 왔겠는가?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다면, 그런 세례는 속사도 교부들 시대에도 부정적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다거나, 설혹 믿고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일은 의미가 없지 않은가?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지금 살아있는 믿는 성도가 대신 세례 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교도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가 영적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 이것도 허무맹랑한 소리로만 들린다. 적어도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렇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는 “부활”이다. 20-23절에서 부활의 순서가 언급되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음에 (에페이타)와 “그 후에는”(에이타)는 연대기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얼핏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그분의 재림 시에 부활하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령 (정사,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실 때 나머지 불신자들이 부활한다고 말씀하는 듯하다. 그러나 24절 초두에 위치한 “에이타”(다음에는, 한역)는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지 않고 단지 사물을 병렬 배치할 때도 사용된다. 그래서 23, 24절을 다시 번역하자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때에 끝이(오고),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가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고, 첫 열매(헵쌀을 생각해 보라)가 오면, 곧 뒤이어 추수가 시작된다. 따라서 그리스도 재림 시에 불신자나 성도나 모든 인류가 부활한다. 바로 이 문맥에서 바울 사도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 운운 하신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을 읽고 있다. “고린도” 바로 북동쪽에는 “일루시스”(Eleusis)란 도시가 있었다. 이곳에서 죽음 이후의 생을 보장한다고 선전된 관례, 곧 바다에서 침례 받는 관례가 성행하였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 시대에 여러 이교적 관습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지금 한국 성도들이 몸은 교회에 있어도, 보름에 찰밥하거나

(이 자체는 나쁜 것이라 여겨지지 않지만)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을 확실하게 절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과 같다. 고린도는 특히 여러 지방 사람들도 와서 상거래하는 국제적 도시였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일루시스의 그런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실시하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바로 이런 이교적 습관을 교회에서도 실시하는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듯하다. 바울 사도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Now if there is no resurrection, what will those do who are baptized for the dead? If the dead are not raised at all, why are people baptized for them?

바울 사도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3인칭으로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바울의 요지는 부활은 엄연한 실체이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확실한 사건이다. 심지어 이교도들도 부활을 믿기에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지 않는가? 라고 지적한다.

3. 외경과 위경이란?

‘외경’과 ‘위경’이란 한자로써 각각 ‘성경 밖의 경전’과 ‘거짓 경전’을 가리킨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둘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가경’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가짜 경전’이란 의미이다.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외경’이란 말 대신에 ‘외전’ 또는 ‘경외성서’라 하였다. 경외성서는 “전거를 믿을 수 없다 하여 성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30여 편의 문헌, 구약외전과 신약외전으로 나뉜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위경’에 대해서는 다시 ‘경외성서’를 보라고 지시한다.

외경은 헬라어로 ‘아포크뤼파’, 위경은 ‘프슈데피그라파’라 하는데, 외경은 ‘숨겨놓은 것[=책]들’이란 뜻이며, 위경은 ‘가짜 이름이 붙은 글들’이란 뜻이다. 외경은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책이란 좋은 뜻에서 ‘숨겨놓은 책들’이기도 하고, 그 내용이 황당무계

하고 이교적이어서 '감추어놓은 책들'이 되기도 한다. 한편 위경은 책을 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남의 이름, 특히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유명인들(아브라함, 모세, 에녹 등)을 자기가 쓴 책의 저자로 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개신교에서는 이들 외경과 위경을 정경에서 제외시켜 신학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지 않고 있으나 가톨릭교회에서는 외경을 '제2경전'이라 하여 중요시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외경과 위경은 대부분 신구약 중간시대에 생겨났으므로 신구약 중간시대 문헌이라 부르며, 묵시문학, 유언문학, 쿠파 공동체의 문헌, 기도문, 헬라 유대문헌, 랍비 유대교문헌 등이 있다.

4. 시락의 교회서(The Ecclesiasticus by Sirach)

『시락의 교회서』는 시락(헬라식 이름)의 아들 예수(요수아)의 지혜서 혹은 교회서 또는 집회서(The Wisdom or Ecclesiasticus of Jesus the Son of Sirach)를 의미한다. 본서는 일정한 계획 하에 쓰인 것이 아니라, 논문집 혹은 금언집으로 잠언을 모은 것이며, 교실 강의를 시문으로 고쳐 출판한 것이다.

저자는 본서를 1,2부로 나눠 각각 별책으로 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양 부가 다 긴 지혜송으로 시작된다(1:1-20; 24장). 잠언도 지혜 설교로(1-9장) 시작되며, 잠언과 본서가 다 자모 답판체 시로(히브리어 알파벳순서대로 알파벳 자모 첫 글자로 시작하는 시 작성법) 끝을 맺는다(잠 31:10-31; 교회서 51:13-30).

학자요, 교사인 벤 시라(히브리어식 이름)는 예루살렘에 살았고 주전 180년경에 이 책을 출판했다. 주전 132년에 손자가 본서를 이집트에 가져가 헬라어 개역을 출판했다. 본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1권(1-23장)

- | | |
|-----------|-----------------------------|
| 1:1-30 | 개론 |
| 2:1-4:10 | 환난 중에 인내, 부모공경, 겸비, 빈자에게 친절 |
| 4:11-6:17 | 지혜는 그 아들들에게 생활에 관한 것을 가르침 |
| 6:18-8:7 | 지혜를 찾고, 교만한 근거한 악을 피하라. |

8:8-9:16	사교에 대한 지혜로운 식별
9:17-14:19	집권층에 충고, 부요에 대한 소견
14:20-18:14	신론
18:15-20:26	친절, 선견지명, 자제
20:27-23:28	지자와 우자, 성자와 죄인들

제2권(24-50장)

24:1-32	지혜서문
25:1-26:27	행, 불행의 결혼
26:28-29:28	말에 주의하고 거래에 관대하라
30:1-32:13	자녀교양, 건강주의, 연회에서의 몸가짐
32:14-33:18	신의 선택 받은 자가 지혜를 찾아 가르치기
33:19-36:17	가장의 권위, 참과 거짓지식, 참과 거짓종교
36:18-38:23	어려울 때 돕는 이들: 아내, 친구, 고문, 현인, 의사
38:24-39:35	가장 고상한 직업은 서기관, 신 찬양시
40:1-41:13	고난과 죽음
41:14-42:14	정당, 부정당한 수치, 특히 악한 딸들 때문의 수치
42:15-43:33	신의 자연계 성업을 찬양
44-49장	신께 충성한 옛 조상들 찬양
50장	대제사장 시몬 찬양, 저자는 에돔, 불레셋, 사마리아인을 증오한다. 저자는 독자를 축복하며 본서를 추천한다.
51장	부록, 자모 답관체 시로(히브리어 알파벳순서로 첫 글자를 시작하는 시 작성법) 끝을 맺는다(51:13-30).

5. 모세승천기(The Assumption of Moses)

모세의 승천기는 모세의 유언서(The Testament of Moses)라고도 불리며,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신 제1세기에 한 바리새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한다. 내용은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행한 예언들이라고 한다.

유다서 9절(“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궤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이 모세승천기에서 인용됐다는 주장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오리겐(Origen), 디뮈무스(Didymus)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모세승천기에는 유다서 9절 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유다서 9절과 비슷한 성구는 스가랴 3장 1-2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슥 3:1-2).

6. 에녹서(Enoch)

유다서 14-15절이 에녹일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녹일서 1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그리고 보라, 그는 모든 이들을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 오셔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경건치 않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않은 악행들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강박하게 말한 모든 나쁜 행위들 때문에 모든 육체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다.

And behold! He cometh with ten thousands of His holy ones to execute judgment upon all, and to destroy all the ungodly; and to convict all flesh of all the works of their ungodliness which they have ungodly committed, and of all the hard things which ungodly sinners have spoken against Him.

유다서 14-15절에 에녹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보인다.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 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러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And Enoch also, the seventh from Adam, prophesied of these, saying, Behold, the Lord cometh with ten thousands of his saints, To execute judgment upon all, and to convince all that are ungodly among them of all their ungodly deeds which they have ungodly committed, and of all their hard speeches which ungodly sinners have spoken against him.<KJV>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의 이야기는 주전 200년부터 주후 100년 사이에 유행한 묵시문학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디오피아의 에녹서'로 알려진 제1 에녹서와 '슬라브 에녹서'로 알려진 제2 에녹서이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에디오피아 교회와 러시아 정교회가 이 에녹서를 정경으로 취급했다고 한다.

에녹서의 내용은 타락한 천사 이야기, 에녹의 천상과 지상 시찰담, 천국의 비유들, 구약을 과학적으로 관찰한 천문학적 또는 물리학적 부분, 세계 역사를 표시하는 환상들, 그의 아들 므두셀라와 후손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되어 있다. 그 에녹서 초두에 세상 끝 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를 낳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 따라서 당대의 사람들은 그를 가장 권위 있는 선지자로 인정했던 것 같다.

에녹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에녹은 365세 되던 해 어느 날 두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으며, 거기서 많은 것을 구경하고 많은 것을 배워서 366권의 책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전한다. 하늘나라에 초대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곱 번째 하늘까지 갔었으나 에녹은 열 번째의 하늘까지 가서 그곳 주님으로부터 천사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다. 천사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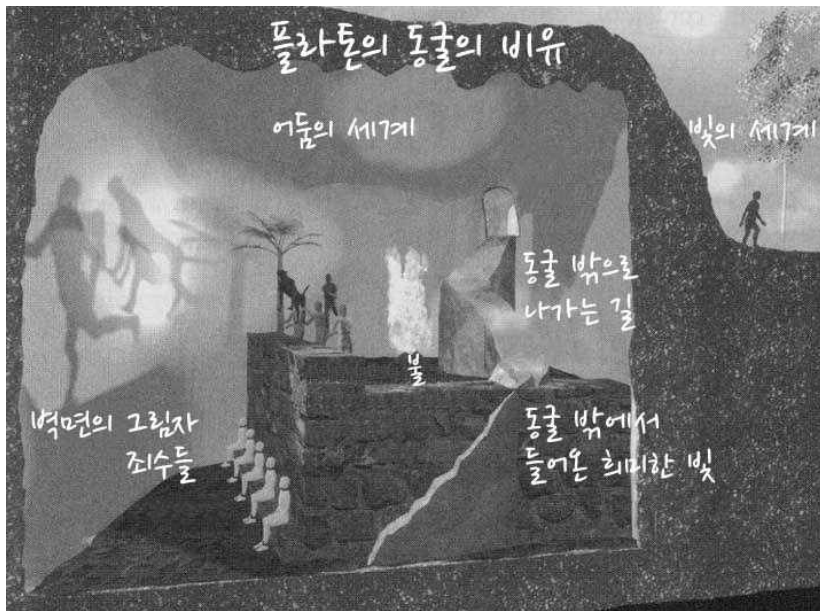
나의 창조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열 번째 하늘의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말하여준 후 아담과 이브의 추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무지를 저주했지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다....” 에녹은 60일 동안 하늘나라를 구경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히 천문학에 관한 지식을 많이 전달받은 것 같다. 태양에 불을 붙이는 천사들, 태양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펼쳐지는 무수한 또 다른 태양의 나라들, 회오리치는 별나라들(나선형 은하계?),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별들, 열두 개의 별나라를 다스리는 천사들, 그리고 태양력은 365일과 4분지 1이 1년이지만 달에 의한 1년은 354일 이라는 등을 배운다. 또 각 계절을 다스리고, 지상의 생태계를 다스리며, 지진과 천둥, 그리고 기후를 다스리는 천사들, 인간의 영혼을 관찰하는 천사들을 소개받는다. 그리고 인류 모두의 영혼에 대해서, 그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기록하라고 지시받는 한 천사를 본다. 인간의 영혼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또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에녹서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실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배신의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아자엘이란 천사의 이름이 나온다. 아자엘이란 이름은 UFO 서적을 탐독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다. 빌리 마이어라는 접촉자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외계인의 이름이 바로 아자엘이기 때문이다. 아자엘은 플레야데스 성좌에 뿌리를 둔 우주인인데, 아틀란티스와 레프리아 시대에 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체제적인 과학자들의 우두머리로 묘사되고 있다.

에녹서에서는 이 아자엘의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들 타락한 감시의 천사들은 인간의 딸들과 혼인하고, 인간들에게 기술과 예술과 신비를 가르쳤으나 그 신비들은 쓸모없는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에게 명해서 그들을 지하의 세계에 감금해 두었다.” 빌리 마이어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그 아자엘의 후손이 에집트의 피라밋 지하세계로 피신했으며 지금도 그곳

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아자엘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표적인 종교인 기독교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려는 데 있다. 빌리 마이어가 전하는 플레야데스 우주인들의 메시지는 매우 경계해야 할 부분이 많다.

7.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1(빛과 어둠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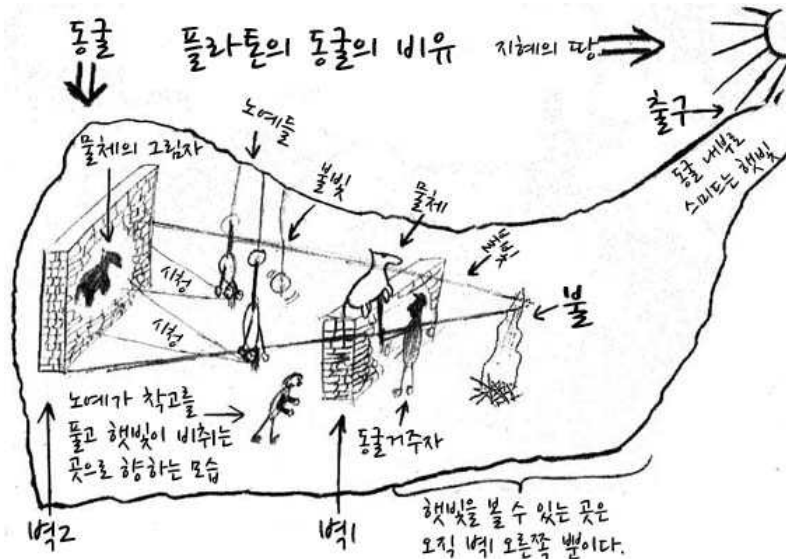


1)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오늘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원래 이 비유는 주전 400여 년 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에게 들려준 우화로써 플라톤이 쓴 『공화국』 일명 『국가론』 7권에 나온다. 본래는 정치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죄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하 동굴에서 발과 목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 없고, 오직 앞만 볼 수 있으며, 머리를 돌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죄수들이 갇힌 곳은 출입구보다 경

사가 낮은 곳에 있고, 높은 입구 쪽에는 불이 타고 있어서 죄수들이 바라보는 벽은 마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인형극의 무대와 같다. 죄수들보다 더 높은 뒤쪽에서는 온갖 종류의 그릇과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조각상과 동물의 형상과 여러 형태의 물건들을 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고가며 대화를 나누곤 한다. 그들의 움직임을 입구 쪽의 불빛이 죄수들의 정면에 그림자들을 만들어낸다. 족쇄에 묶인 죄수들은 기억이 없는 어린시절부터 움직이지 못했고, 고개조차 돌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뒤쪽의 불빛이 벽면에 만들어내는 그림자밖에는 아무 것도 볼 수가 없다. 심지어 옆에 있는 다른 죄수도 볼 수가 없다. 죄수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도 벽면에 부딪쳐 울리는 메아리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들이 벽면에 비친 그림자에서 나온 것으로 착각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진리는 문자적으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글라우콘에게 묻는다. 만일 그들 중 누군가가 족쇄로부터 풀려나 돌연히 일어서 사방을 둘러본 후 불빛을 향해서 걷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처음에 그는 날카로운

고통을 맛볼 것이다. 불빛이 그를 괴롭힐 것이고, 그는 잠시 사물의 실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전에 본 것들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는 점차 실재에 접근하고 있고, 눈은 점차 실체를 향해서 열려지면서 결국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때 일어날 반응이 무엇이겠는가?

소크라테스는 클라우콘에게 또 말한다. 족쇄에서 풀린 자가 그가 보고 있는 물체들의 이름이 무어나는 질문을 받는다면 당황해 하지 않겠는가? 그가 평생 보아온 그림자들이 처음 보는 물체들보다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지 않겠는가? 만일 그가 억지로 불빛을 보게 된다면, 어찌 눈에 통증이 없겠으며, 통증이 없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지금 보는 것들보다 이전에 보았던 것들이 훨씬 더 명확한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그가 만일 이 유혹을 이긴다면, 그는 결국 새로운 세계를 보는데 익숙해지게 된다. 사물의 실체는 물론이고, 밤하늘의 달과 별들과 한낮의 태양까지 볼 수 있게 되며, 이 태양이 연월일을 만든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참 세계의 것들, 즉 그가 과거에 보았던 그림자들의 실체들에 대해서 그의 동료들에게 밝히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난날 탈출을 주저했던 일, 동굴 속에서 가졌던 우물 안 개구리식의 지혜와 지식, 무지와 고통 속에 묶인 동료 죄수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지 않겠으며, 지금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지 않겠는가?

2) 어둠의 자녀들

지하 동굴과 동굴 속 그림자들은 실체나 본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를 말한다. 죄수는 인간이며, 족쇄는 자신을 묶는 무지이다. 태양은 참 세계의 모체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태양이 비치는 동굴의 입구를 향하여 오르는 족쇄

풀린 죄수의 여행은 인간의 영혼이 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오름(aliyah)을 뜻한다.

죄수의 족쇄를 푼 열쇠는 진리이다. 이 진리가 족쇄에 묶인 죄수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다. 무명을 씻는 데는 약간의 고통이 따르지만, 그를 본질과 빛의 세계로 이끌어낸 것은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교육은 성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교사는 성령님이시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이시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요 14:6)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요 지혜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였다. 이 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보혈이 인간을 어둠의 권세와 죄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하는 능력이요 지혜이다.

교육의 역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도이다. 어둠과 무명을 벗고 깨우친 누군가가 어둠의 세계에 갇힌 자들을 강권하여 끌어내지 않는 한, 비유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결코 빛의 세계로 탈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전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학에서는 지하 동굴 속에서 희미하게 보는 그림자를 일반계시라고 말하고, 태양이 작열하는 대지에서 분명하게 보는 실체를 특별계시라고 말한다. 인간은 모두 지하 동굴에 갇힌 죄수들과 같아서 자기가 처한 가장 근본적인 측면들조차 깨닫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이 무지의 동굴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눈으로 보는 주변의 것들을 우주 전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신보다 더 높은 차원의 대지와 하늘과 태양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것은 인간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실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설명처럼, 동

굴 속에서 인간이 보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동굴 안은 희미한 빛만 비치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을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인간들은 항상 이 동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둡고 흐리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보는 그림자가 실체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이 보는 세계에 체면이 걸려있어서 그것의 공허함을 모른다. 그들은 그것들이 모두 허상이란 것을 모른 채, 위로를 받고, 정보를 얻고, 안도감을 누린다.

인간의 배후에는 세 가지 물체들이 있다. 동굴 벽면에 빛을 비치는 불, 동굴 밖으로 나가는 길, 동굴벽면에 그림자를 만드는 움직이는 물체들이 그것들이다. 인간은 단지 자기 앞에 있는 그림자들만 본다. 그래서 무지의 족쇄에 묶인 인간들은 이 그림자들이 실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림자들이 참과 진리라고 확신한다. 이런 어리석음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소개한 인간이란 흑암에 앉은 자들, 곧 어둠의 자녀들을 말한다.

3) 빛의 자녀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있다. 사람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치 족쇄에 묶인 동굴의 죄수들처럼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족쇄를 풀고 어둠의 동굴을 탈출하여 빛의 세계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비유에서와 같이 어떤 긍정의 변화 혹은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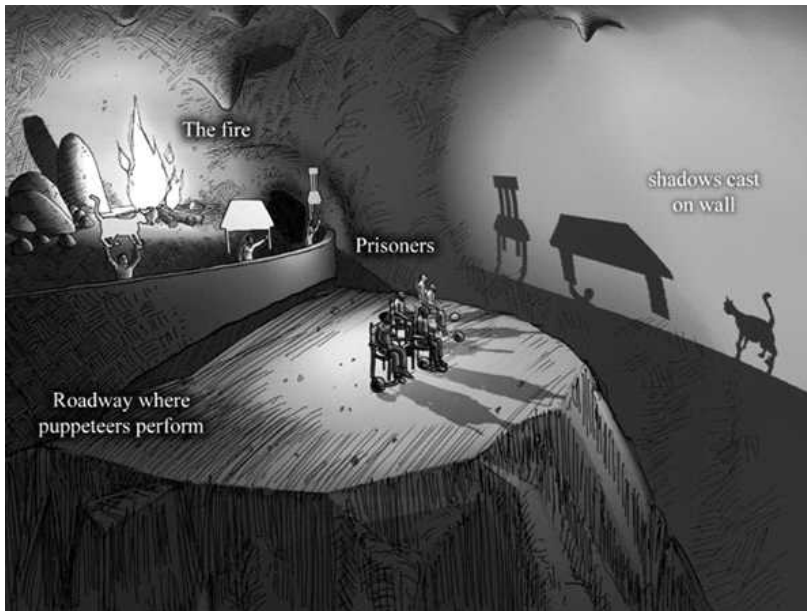
동굴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족쇄를 풀고 일어나 주변을 둘러본다. 전례가 없는 이들 움직임들은 그에게 강렬한 불편을 느끼게 한다. 생전 처음으로 일어서고, 돌아서고, 불을 바라보는 이 움직임들은 적어도 그에게는 부자연스런 것이기 때문에 익숙지 못한 근육과 눈을 긴장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한다. 모든 것이 생소해 보이고, 비

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럽고,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그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 그 사람은 이 모든 새로운 것들로부터 돌아서기를 절망적으로 바란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이 강렬한 유혹을 이기고, 동굴의 길을 따라 땅위로 올라간다면 어떨겠는가? 태양빛이 항상 동굴에서만 살았던 그 사람을 완전히 압도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고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상황은 변하기 시작한다. 눈은 곧 새로운 것에 적응하게 되고, 그 사람은 태양뿐 아니라 대지와 하늘과 세계를 보기 시작한다. 그 사람은 이제 지하 동굴을 넘어 우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동굴은 세계가 아니다. 족쇄에 묶여 사는 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다. 벽면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는 것은 실재에 관한 지식이 아니다. 족쇄에서 풀린 사람은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된다.

빛의 세계로 나온 사람은 이 놀라운 지식을 동굴에 묶여있는 죄수들에게 가르칠 긴급성을 느낀다. 그래서 비유에서 그 사람은 왔던 길을 따라 동굴로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동굴밖에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죄수들에게 전한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족쇄에 묶여 있으며,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보고 살아온 저 그림자들은 단지 그들이 결코 본 적이 없는 실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비유에서 죄수들은 그가 미쳤거나 위험하다고 단정한다. 그들은 그의 시력이 영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뒤를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죄수들은 뒤를 결코 볼 수 없으므로, 그는 참에서 멀어진 것이며, 허튼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만약 그가 지속적으로 죄수들을 해방시키려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그가 죄수들에게 살해되고 말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빛의 증거자 세례요한과 참빛 예수님도 어둠의 자녀들에게 살해된 것을 보아 그의 예상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의 앎은 마치 그림자가 실체가 아닌 것처럼 진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편견은 자주 논쟁적이며, 반감으로 일관된다.

마가복음 8장 22-26절에서 맹인은 한 때 어둠의 세계에 갇힌 죄수였으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만나 족쇄를 풀고 동굴 입구로 나와 빛의 세계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다. 그가 눈을 뜨고 사물을 분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일단 눈을 뜬 후에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족쇄에 묶여 그림자만 보고 살던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한다.

8.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2(감춰졌던 세계)



1)비밀한 세계

헬라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現象)세계를 그림자와 어둠의 세계로 보았고, 이 너머에 빛과 실제세계인 이상(理想)세계가 있다고 보았다. 신화에서는 죽음너머 깊은 지하세계에 낙원의 들판인 샹젤리제(엘리시온)가 있다고 보았다. 중국 사람들은 복사꽃이 핀 무릉도원의 봄을 유토피아로 보았고, 유럽 사람들은 농

경의 신(神)인 사투르누스의 영원한 봄의 정원인 아르카디아를 유토피아로 보았다. 신약성서는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진정한 낙원으로 보고 있다(계 21-22장). 바울은 주후 40년경 어떤 성도가 “셋째 하늘”인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왔다고 했다(고후 12:2-4). 이 성도가 경험한 비밀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족쇄에서 풀린 죄수가 경험한 비밀과 동일하다. 족쇄에서 풀린 죄수는, 신약성서의 관점에서 볼 때, 어둠과 율법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온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다.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서 빛과 생명의 세계로, 무지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나온 죄수는 일생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조상들이 보지 못했던 감춰졌던 비밀의 세계를 본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에서 이 비밀의 세계를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볼 수 없고, 본적이 없다고 해서 비밀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만을 참과 진리로 아는 사람은, 족쇄에 묶여 희미한 지하 동굴에서 그림자만 보는 죄수들과 같아서, 동굴 밖에 펼쳐진 실재의 세계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는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열쇠로 무지의 족쇄를 풀어버리고 동굴 밖으로 나온 사람은 생각속에만 있던 이상세계를, 사람들이 듣고 보지 못한 세계를 분명히 보고 듣게 된다.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남들이 믿기 어려운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 뱃세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만물을 밝히 보게 하신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막 8:22-26)고 하신 것과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시고 분명히 듣고 말하게 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막 7:31-37)고 하신 뜻은 이 ‘비밀,’ 즉 사람들이 듣고 보지 못한 비밀한 보화를 잘 간직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란 뜻이다.

이것을 잘 간직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겨있기 때문이다(고후 4:7).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골 2:3). 자칫 이것을 어둠의 자녀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또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할 이유는 비밀한 세계 속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보고 듣고 아는 데 그쳐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무지의 족쇄를 풀고 동굴 밖으로 나온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마 13:44). 예수님은 그에게 보화를 발견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라고 요구하셨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라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로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막 10:21).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는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2)비밀한 세계를 소유한 사람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감춰졌던 비밀에 관해서 자주 언급하였다. 바울은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났다”(골 1:26)고 말한다. 마태도 예수님의 천국비유가 바로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마 13:35)이고, 그리스도인은 이 비밀을 발견하고 사서 간직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마 13:44-46). 여기서 보화가 묻힌 밭과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서 보화와 진주는 비밀한 세계인 천국을 말한다. 또 비밀

한 세계인 천국은 어둠 속 지하 동굴에서 족쇄에 묶여 지내던 죄수가 족쇄를 풀고 동굴 입구로 나와 바라본 태양이 비취는 빛의 세계를 말한다.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고 하신 말씀과 연결된다. 이 세계는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바가 없어 비밀한 세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그 때에 나타날 지금보다 더 좋은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비밀의 계시가 드러나게 한 것은 지혜라고 말한다. 헬라인들은 이 비밀을 알고자 하여 수백 년간 지혜와 지식을 찾고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지혜는 헬라인들이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지혜가 아니며, 사람의 지혜도 아니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이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써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7절)고 하였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10절) 성령을 통해서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이 지혜가 바로 인간을 죄의 족쇄에서 해방시킨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시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1,3장에서 하나님이 이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엡 1:9)고 하였다. 하나님은 계시로 바울에게 먼저 이 비밀을 알게 하셨고(엡 3:3) 그가 깨달아 안 그리스도의 비밀(엡 3:4) 곧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엡 3:9)

성도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였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롬 16:25) 자기 시대에 드러난 것이며,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라”(롬 16:26)고 밝혔다. 바울은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고 목숨을 걸고 이 비밀을 전한 선구자였다.

3)비밀한 세계의 선구자

하나님은 바울을 비밀의 일군으로 삼으셨다(엡 3:7).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4절에서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매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며 중보기도를 요청하였다. 그렇게 하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하였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자신을 이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과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곧 신실함이라고 하였다. 5절에서 성도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유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상벌을 위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게 해줄 메시아와 함께 좋은 세상(올람 하바)이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하티크바)을 품고 있었다. 마태는 유대인들의 이 희망의 세계를 ‘천국’이란 말로 고쳐 부르며,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세계의 왕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이 메시아의 표상으로 삼고 있는 모세와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이 참 모세와 참 다윗의 실체인 메시아라고 설파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요한도 예수님이 모세의 실체일 뿐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설파하였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어둠의 세

계에서 빛의 세계로 오르는 길ियो, 무지의 족쇄를 풀게 할 진리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을 능력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변화의 능력ियो 지혜라고 설파하였다.

히브리서 저자는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의 예표요 그림자이며 모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어둠이 있는 것은 빛이 있다는 증거이듯이, 혼돈이 있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증거이듯이, 죽음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듯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세계 혹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증거이다. 유한한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무한한 우주가 있기 때문이고, 유한한 세계가 있는 것은 무한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며, 제한된 지성과 인격을 갖춘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무한한 지성과 인격을 갖춘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다. 이 땅의 생로병사는 고통과 슬픔과 괴롭이 없는 영원한 빛과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이다. 영원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사고 속에 있는 것은 그것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새로 보고 듣고 믿고 확신한 것에 대해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히 10:35).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다”(히 10:39)고 하였다. 이전에 보고 듣고 알았던 허탄한 것들의 유혹에 이끌려서 족쇄에 묶여 살았던 어둠의 세계로 후퇴하지 말고, 참 안식의 세계인 빛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는 것이다. 바울처럼 우리도 비밀한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이고 목숨을 걸고 이 비밀을 전해야 할 선구자들이기 때문이다.